



경기누정문화

-지역문화연구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누정문화

경기누정문화는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서

2003년 조사한것으로 경기도 전체의

시·군별로 누·정을 정리해 놓은 자료집 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도시개발, 수도권 개발에 밀려

하나, 둘 사라져 가는 아쉬움이 있어

경기도의 누와 정을 집대성하여

자료집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경기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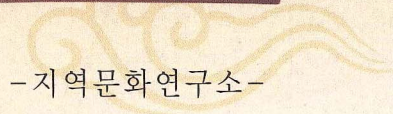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봅니다.

-발간사 중에서



경기누정문화

-지역문화연구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장
김 종 기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대 삼국시대에는 서로 이곳을 차지하려는 격전의 장으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수도를 갖고 통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임금을 모시고 국민을 하늘같이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임금을 모시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산수 좋고 물 맑은 곳에는 어김없이 누와 정자를 지어 휴식을 취하며 국민의 안위와 민생을 생각하였으며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의 충절을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색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도시개발, 수도권 개발에 밀려 하나, 둘 사라져 가는 아쉬움이 있어 경기도의 누와 정을 집대성하여 자료집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경기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봅니다.

이번 자료집이 나올수 있도록 도와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로 뛰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과 옛 문헌을 찾아 집필해 주신 지역문화연구소의 정승모·강대욱·염상균·한동민·조형기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책이 나올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C&N 디자인 이형 사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 12.



- 지금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우리 문화유산 중에 누정이 들어 있다. 누정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환경도 중요한데 이를 모두 갖추고 보존되어 온 곳은 극히 드물다. 간혹 누정이 자리하던 터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경기도의 현존 누정을 정리하여 책으로 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옛 건물과 운치를 그대로 사진과 글로 담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나마 훼손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둔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 경기도 내에 현존하는 누정 및 누정 터를 중심으로 현장사진을 담았으며 가나다 순으로 시·군을 정리하였다.
- 광주시 석호정 터의 경우처럼 접근이 불가능하여 사진으로 담지 못한 곳도 있고, 터 위치가 불확실한 경우도 실지 못했다.
- 사진은 또한 조사 및 촬영기간인 2003년 여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어 계절적 편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는다.
- 본문의 인용 책 중에 고서인 경우는 《》로, 일제 이후에 간행된 단행본 책은 『』로, 논문은 「」으로 표기하였다.
- 조사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 이로 인해 빠진 누정 외에도 조사단의 불찰로 누락된 것들은 추후 보완할 수 있도록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로 제보해 줄 것을 독자들에게 당부 드린다.



차 레

발 간 사	3
-------	---

일 러 두 기	4
---------	---

시군별 누정 : 역사와 현황	9
-----------------	---

광 명 시

관감당(觀感堂)	10
----------	----

광 주 시

지수당(地水堂)	12
침괘정(枕戈亭)	14
영월정(迎月亭)	16
영춘정(迎春亭)	18
백인대(百仞臺)	19
유차산루(有此山樓) 터	22
무진정(無盡亭) 터	24

김 포 시

영사정(永思亭) 터	26
------------	----

남 양 주 시

망세정(忘世亭) 터	28
태극정(太極亭)	29

수 원 시

신평루(新豐樓)	32
----------	----

득중정(得中亭)	35
----------	----

낙남軒(洛南軒)	37
----------	----

노래당(老來堂)	40
----------	----

미로한정(未老閒亭)	42
------------	----

동북포루(東北舖樓)-각건대(角巾臺)	44
---------------------	----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	--

동북각루(東北角樓)-용두각(龍頭閣)	46
---------------------	----

화양루(華陽樓)-서남각루(西南角樓)	51
---------------------	----

영화정(迎華亭)	54
----------	----

항미정(杭眉亭)	57
----------	----

진목정(眞木亭) 터	59
------------	----

산일정(山一亭) 터	60
------------	----

시 흥 시

은휴정(恩休亭)	62
----------	----

안 산 시

고송정(枯松亭)	64
----------	----

평근루(平近樓) 터	66
------------	----

망해정(望海亭) 터	68
------------	----

봉황대(鳳皇臺) 터	70
------------	----

안 성 시

극적루(克敵樓)터	71
-----------	----

양 주 시

금화정(金華亭)	72
----------	----

양 평 군

영호정(映湖亭)	74
보산정(寶山亭)	76
봉황정(鳳凰亭)	78
택승정(澤升亭)	80
세심정(洗心亭)	82
봉의정(鳳儀亭)터	84

여 주 군

청심루(淸心樓)터	85
강월헌(江月軒)	88
구룡루(九龍樓)	91
동대(東臺)	93
침석정(枕石亭)터	95
봉서정(鳳棲亭)	97
영월루(迎月樓)	99
범사정(泛槎亭)터	101
화양정(華陽亭)터	102
침류정(沈流亭)터	104

연 천 군

모정(茅亭)터	106
사미정(四美亭)터	107
휴암정(休菴亭)터	108
남송정(楠松亭)터	110
수월정(水月亭)터	112

용 인 시

사은정(四隱亭)	113
신정(新亭)터	116
양벽정(漾碧亭)터	117
봉서정(鳳瑞亭)터	119
음고정(吟古亭)	121

의 정 부 시

궐산정(寶山亭)	122
청풍정(淸風亭)터	124

이 천 시

죽남루(竹南樓)터	126
애련정(愛蓮亭)	128
육괴정(六槐亭)	131

파 주 시

화석정(花石亭)	134
반구정(伴鵲亭)	137
래소정(來蘇亭)터	140

몽구정(夢鷗亭) 터	141	낙환정(樂還亭) 터	157
임진정(臨津亭) 터	143	청은정(淸隱亭) 터	158
일송정(一松亭) 터	145	노정(盧亭) 터	159
칠송정(七松亭) 터	146		
원사정(遠思亭) 터	147	포 천 시	
강선정(降仙亭) 터	148	금수정(金水亭)	160
취옹정(醉翁亭) 터	149	이양정(二養亭) 터	162
이사정(二泗亭) 터	150		
울포정(栗浦亭) 터	152	화 성 시	
청계정(聽溪亭) 터	153	천보루(天保樓)	164
심류정(沈流亭) 터	154	운금루(雲錦樓) 터	167
동락정(同樂亭) 터	155	상명정(尙明亭) 터	168
은행정(銀杏亭) 터	156		

논 고

누정(樓亭)의 역사와 경기 누정문화	169
---------------------	-----

정 승 모(지역문화연구소장)

경기 누정의 기문(記文)과 시문(詩文)	189
-----------------------	-----

강 대 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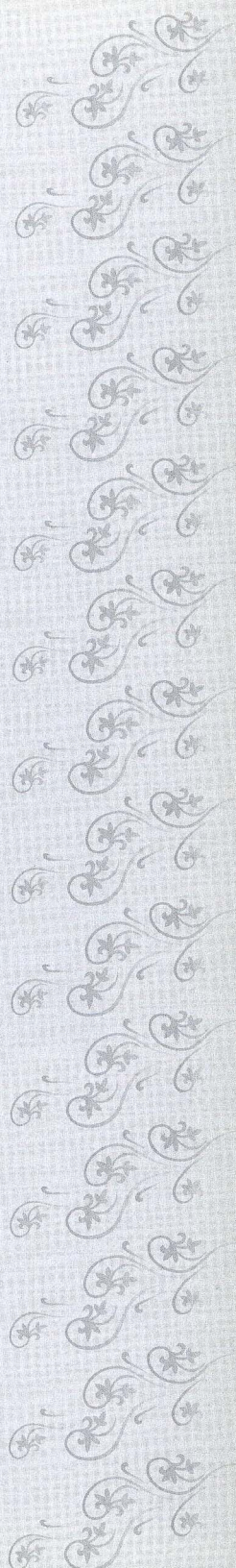
사진목록	226
------	-----

누정자료 종합	227
---------	-----

여 백



시 · 군별
누정(樓亭)현황



관감당(觀感堂)



- 소재지 : 광명시 소하동 1086
- 시 대 : 조선 인조 8년(1630) 초건, 1916년 재건
- 소유자 : 오리 이원익 후손
- 건물 규모 및 구조 :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관감당은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을 위하여 지은 집이다.

이원익은 임진왜란 때 대동강 서쪽을 잘 방어하여 호성공신이 되었고 영의정과 우의정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그는 늙어서 정계에서 은퇴하고는 시흥 서쪽 오리(梧里)에 영성한 초가를 짓고 살았다고 한다. 인조(仁祖)가 신하를 보내 형편을 알아보게 하니 영성한 집이 비바람을 막지 못한다고 하였다.

40여 년 정승에 초가 생활을 영위하는 오리의 검소한 모습에 감동하여 임금의 집을 한 채 지어 주었다. 오리 이원익이 한사코 사양하자 인조는 그로써 신하와 백성들이 ‘보고(觀) 느끼게(感)’끔 하기 위함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오리가 부득이 입주하였다고 한다.

병자호란 때 집이 파손된 것을 후손들이 증진하고 ‘관감당’ 편액을 걸었다고 한다.

지수당(地水堂)



-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124-1
- 시 대 : 조선 숙종13년(1672)
- 소유자 : 국유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3칸, 측면3칸, 팔작지붕 목조와가
- 기 타 :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4호(83.9.19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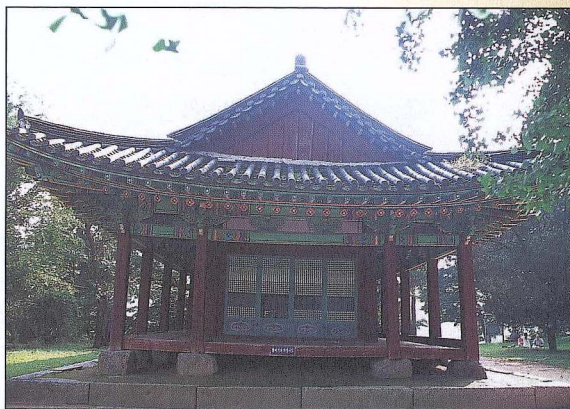


지수당은 1672년(현종13)에 광주부윤 이세화(李世華)가 건립한 것으로 당(堂)의 앞뒤에는 세 못(池)이 있어 당시 이곳을 찾은 고관들이 한유(閑遊)하던 남시터였다. 지금은 두 개의 연못과 누각(樓閣)이 남아있다. 《남한지(南漢志)》기록에는 동문(東門) 안에 있으며 좌우로 세 연못이 있다. 현종(顯宗) 임자년(1672년)에 부윤 이세화가 지었다고 되어있다.

침괘정(枕戈亭)



-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91-1
- 시 대 : 조선 후기 1751년(영조27) 증수후 명명(命名)
- 소유자 : 국유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7칸 측면3칸 목조 단층외집 겹처마 팔작지붕
- 기 타 : 경기도유형문화재 제5호(72. 5. 4.지정)



침괘정은 이서(李曙)가 남한산성 축성당시 총림(叢林)속에서 발
견한 고각(古閣)으로 그 축성년대는 알 수 없으나 조선후기인
1751년(영조27)에 광주유수(廣州留守) 이기진(李箕鎭)이 중수(重
修)하고 침괘정(枕戈亭)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남한지(南漢志)에

『침괘정 재행궁지서부상수어각우건군기고황기인사부총병정릉제역
알 총용무고.....영조신미 유수이기진명편알 침괘정(枕戈亭在行宮之西
阜上遂於閣右建軍器庫皇明詔使程副總兵龍題額曰 摠戎武庫.....英祖
辛未 留守李箕鎭名扁曰 枕戈亭)』

이라 하여 침괘정 우편에 세워진 군기고를 명나라 부총병 정릉
이 총용무고라 이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침괘정
은 무기고, 혹은 군졸들의 무기 제작소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물
은 낮은 석조 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온돌구조의 건물이다.

영월정(迎月亭)



-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29
- 시 대 : 1957년
- 소유자 : 면유(面有)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1칸, 측면1칸 2익공 4각지붕 원주 우물마루에 난간을 두름



영월정은 남한산성 행궁에서 왼쪽으로 수어장대에 오르는 능선길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1957년 당시 경기도지사 이익흥(李益興)이 건립한 것으로 저녁달이 뜰 때 정경이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영월정(迎月亭)이라 명명(命名)하였다고 한다. 현판은 원곡(原谷) 김기승(金基昇)이 썼다.

영춘정(迎春亭)

-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156
- 시 대 : 1957
- 소유자 : 시유(市有)
- 건물규모 및 구조 : 2익공 겹처마 팔모지붕

영춘정은 일명(一名) 팔각정(八閣亭)이라고도 한다. 처음에는 현 남한산성 남문 밑에 있던 것을 1957년에 이곳 수어장대 근처로 이설(移設)한 것이다. 이곳은 서울 경기지방 하남,구리,남양주,서울시 동남부 한강일원인 송파,강동구 일대를 관망할수 있는 좋은 전망대이다. 현판은 농천(農泉) 이병희(李丙熙)가 썼다. 1996년 7월 24일 광주군수가 설치한 표석(標石)이 영춘정의 이설(移設)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백인대(百仞臺)



- 소재지 : 광주시 실촌면 열미리 산174
- 시 대 : 조선후기
- 소유자 : 능성구씨 관선재공 문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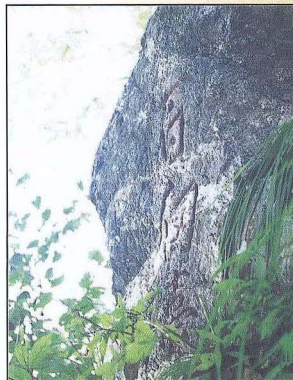


백인대(百仞臺)는 일명 (一名) 육각정(六角亭) 육일정(六一亭)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아마도 정자의 모형이 육각정으로 되어있어 그리되었을 것이다. 백인대는 열미리 앞을 흐르는 열미천 앞산을 배경으로 백여척의 절묘한 암벽이 천연적으로 정자터를

이룬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열미천의 물줄기가 암벽밑을 감아돌아 자연적으로 큰 웅덩이가 되어 있어 옛부터 시인묵객이 즐겨찾는 낚시터였다고 한다. 백인대는 요즈음 태풍 ‘매미’와 계속되는 가을비로 하천이 불어나 있었다. 별도의 진입로가 없어 바지를 벗고 맨발로 하천을 건너야 했다. 백인대를 오르는 길은 자연석으로 돌계단을 만들었으나 가파른 곳이었다. 암벽위는 사방 5x5m정도의 대(臺)로 되어있고 이 대위에 한면이 4.4m로된 6각형 모형의 정자가 시멘트스라브로 건축되어있다. 절벽밑을 흐르는 하천과 울울(兀兀)한 암벽에서 석양의 산그늘에 묻혀 시주(詩酒)로 한더위 피서처로서 손색이 없었던 백인대의 풍류가 손에 잡히는 곳이다.

백인대는 조선 숙종때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한양 도성에 왕래할 때 이곳에 있던 제자(弟子) 관선재(觀善齋) 구문찬(具文烝)

의 안내로 이곳에서 낚시를 하며 청유(淸遊)한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후로 능성구씨 문중에서 이곳에 육각정의 정자를 세워 문중의 상징으로 기리는 곳이 되어있다. 백인대의 주련(柱聯)이 이곳 정자의 내력을 전해주고 있다.



下流玉水上亭臺

밑에는 옥수가 흐르고 대위에는 정자이니

觀齋先祖講磨所

관선재 선조가 학문을 닦던 곳이다.

尤翁上洛探景地

우암공이 상경길에 즐겨찾는 경승지였으니

守補後孫永世傳

지키고 가꾸어 후손에게 영세토록 전하리

관선재 구문찬은 병자호란이 일어나던 1636년(인조14)에 태어나 우암과 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선생 문하에서 수학하여 우암문인록인 화양연원록(華陽淵源錄)에 등재된 선비였다. 효행과 덕행으로 삼강록(三綱錄)에 등록되었으며 숙종19년인 1693년 졸하여 이곳 부항리 선영하에 묻혔다.



유차산루(有此山樓) 터

-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행궁 좌승당 뒤편
- 시 대 : 조선후기(순조년간)
- 소유자 : 시유(市有)
- 건물규모 및 구조 : 미상

남한산성내 행궁(行宮) 상궐(上闕) 왼편 담 밖에 있었다. 이곳은 하궐(下闕)터로서 좌승당(坐勝堂)이 있던 곳이다. 이 좌승당의 뒤에 담을 사이에 두고 약간 층계를 높여서 누(樓)를 만들었다. 《남한지》에 기록된 주련(柱聯)의 시구(詩句)는 다음과 같다.

呼吸通帝座握月駕風

호흡은 천제 자리를 통해 달을 만지고 바람을 멎에 하며

物色非人間洞天福地

물색은 인간세상이 아니오, 동천의 복지로다

衛於緯漢地上作神仙

하늘에 아문을 지으니 땅위에서 신선이오

俸以白雲山中有帝相

흰 구름으로 봉록을 받으니 산중에서 황제의 신하로다

高精四無隣欲臥百尺
높은 정취는 돌레에 이웃 없으니
백척 높은 누에 눕고자 함이요

相看兩不厭更上一層
서로 보며 둘 다 싫어 아니하여
다시 한층 높이 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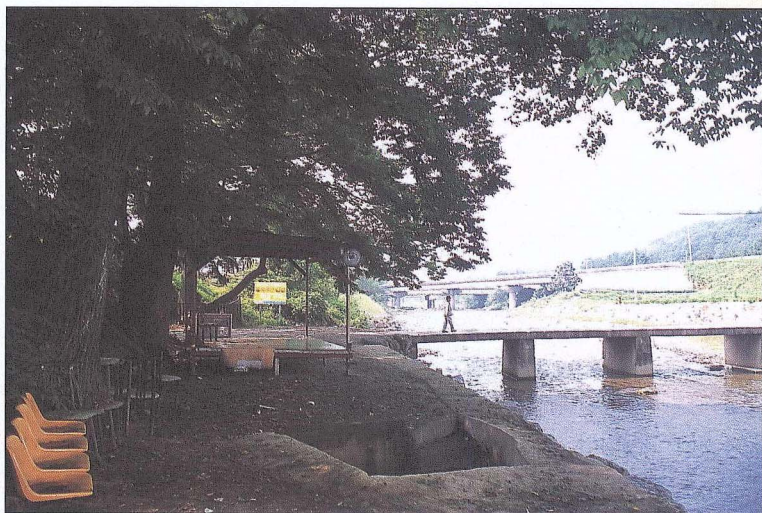
登彼采其風聖之清者
저기 올라 바람을 맞으니 성인의 맑은 기운이요

朝來致有氣佳哉爽然
아침이 되어 기를 이룸이 있으니
아름답다 시원함이어

무진정(無盡亭) 터



- 소재지 :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2리 관창수마을
- 시 대 : 조선후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사진은 1991년 10월 26일 촬영)



《남한지(南漢志)》에 주(州)에서 서(西)로 15리에 있으니 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의 별서(別墅)로 기록되었다(在州西十五里花山君權攀別墅). 남한지 시율편(詩律篇)에 최항(崔恒)의 무진정 시편이 전해온다

영사정(永思亭) 터



- 소재지 :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121번지 일대 신곡양수장 정문앞 좌측
- 시 대 : 미상
- 소유자 : 남원 윤씨 종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표석과 느티나무 한 그루



정조가 김포 장릉(章陵)으로 능행하던 중 화개산 북쪽에서 멈출 때 수행한 이조판서 윤행임(尹行恁, 1762-1801)의 선조 윤은의 묘가 있는 이곳을 바라보며 경치가 아름다워 영사정 묘소라고 사호하였다고 전하나 실록 등에는 이러한 기사가 없다.

망세정(忘世亭) 터

- 소재지 : 남양주시 진건면 양지리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망세정은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있을 때 감사(監司) 심선(沈璿)의 은둔장구(隱遁杖屨)처였다고 한다. 연안(延安) 이병연(李秉延)이 편집한 1929년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양주군편에 보면 망세정은 ‘在眞乾面陽地監司沈璿端宗遜位後隱遁杖屨之所’로 기록되어 있다.

태극정(太極亭)

- 소재지 : 남양주시 진접면 내각리473(밤섬유원지내)
- 시 대 : 조선 중기
- 소유자 : 밤섬유원지 관리사무소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2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우물마루에 난간을 두름. (1978년 당시의 모형)

태극정은 조선 현종(顯宗)때 문신인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이 1665년(현종6) 이곳 내곡리 영지동(靈芝洞)에 이거(移居)할 때 맑은 시냇물을 끌어 연못을 만들고 연못 위에 서재를 세워 정관재(靜觀齋)라 편액(扁額)을 걸고 태극정(太極亭)이라 하였다. 현재는 밤섬유원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태극정지로 연결된 다리가 놓여 있다. 이곳에는 징심석(澄心石) 태극정(太極亭)이라는 송우암(宋尤庵)의 필적이 암각(岩刻)되어 있었는데 징심석은 6.25 한국전쟁때 파괴되었다. 1978년 양주군지(楊州郡誌) 간행(刊行) 당시의 태극정은 원위치에서 4m 아래에 중건되어 있었는데 정자의 규모는 높이가 8m, 넓이가 6.72㎡로 옛모습을 재현한 정면2칸 측면1칸의 맞배지붕 우물마루에 난간을 두른 4각 모형의 아담한 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암벽위에 이건(移建)해서인지 4각석주를 높게 세웠고 옆으로 출렁다리가 놓여 있는 상태였다. 이단상 선생의 태극정사가 전해온다.

1929년 이병연의 『조선환여승람』 양주군편(楊州郡篇)에 수록된 태극정 기록이다.(在榛接面內谷里靜觀齋李端相講道之所澄心石在太極亭前尤庵宋時烈爲師弟之義銘之)



수

원은 조선 정조 13년(1789) 국왕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원-영우원(永祐園)-이 수원부 뒷산(화산花山)으로 천원(遷園)-현릉원(顯陵園)-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현릉원 자리 앞에 있던 읍치소를 지금의 팔달산 동쪽기슭으로 옮기고 주민들 또한 이주시킨다. 새 수원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정조 14년(1790)에는 화산 옆 갈양사(葛陽寺) 터에다 현릉원의 원찰을 크게 짓고 용주사(龍珠寺)라 하였으며, 정조 17년(1793)에 새수원의 이름을 화성(華城)으로 바꾸고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킨다. 그리고 정조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1796) 9월까지 화성유수부에 성(화성)을 쌓고 축성의 시말을 모두 정리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편찬한다.-순조 1년(1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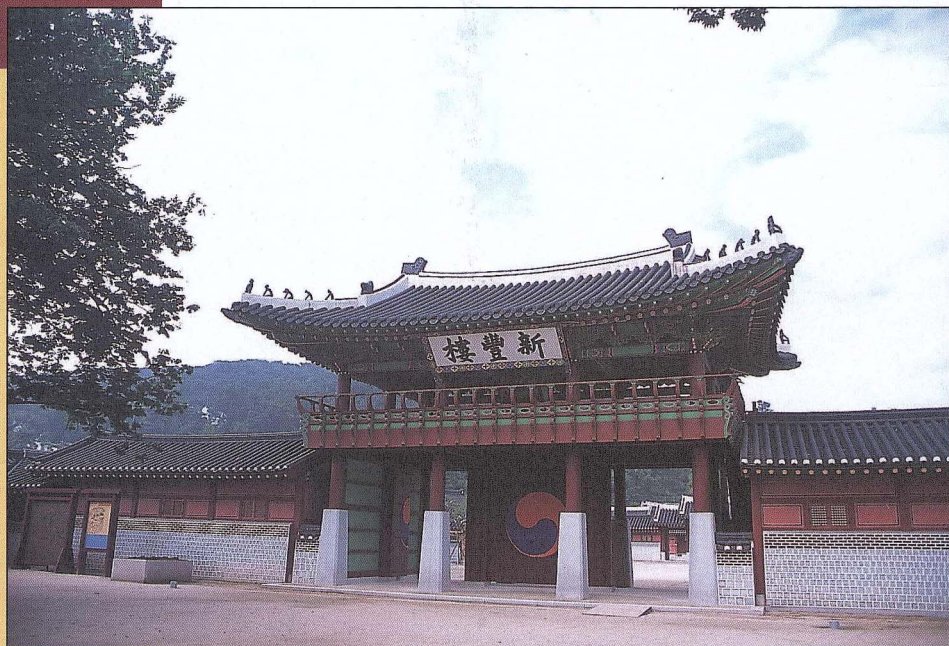
또한 정조 19년(1795) 윤 2월에는 국왕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유수부에서 베풀었는데 이 기록도 《원행을 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모두 담겨 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군사적 목적의 성곽이면서도 아름답고 기능적인 누각과 정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화성의 노른자위인 화성행궁에도 누각과 정자들이 있다.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누정의 상량문 가운데 득중정 상량문만 상량할 때 지어 올린 것이고 나머지는 추후에 하교를 받아 지은 것이다.



신평루(新豐樓)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화성행궁
- 시 대 : 조선 정조 14년(1790)
- 소유자 : 국유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목조 2층 와가
- 기 타 : 일제강점기 훼손되었던 것을 화성행궁 복원 사업으로 다시 지음(2002)

신평루는 1790년에 화성행궁의 외삼문으로 지어져 진남문(鎭南門)이라고 편액하였다. 1794년 2층 구조로 증축하였으며 2층은 마루, 1층은 3개의 널문으로 되어 있어 통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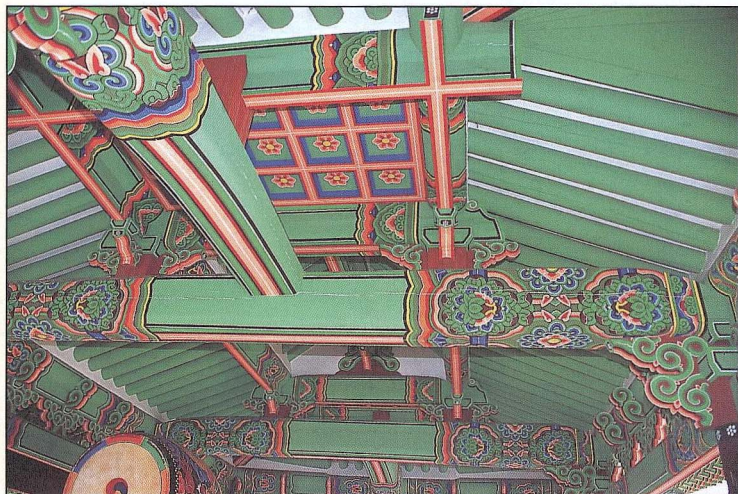
이때 외삼문의 위층을 신평루라 하였다.

1795년 윤 2월 13일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화성행궁에서 거행하였는데, 이보다 앞선 2월 22일에 정조는, “화성 성문에 이제 곧 편액을 달 것인데, 성의 북문은 장안(長安)이라고 이름지어야 할 것이며, 진남문을 고치어 신평루로 한 것은 대개 한(漢)나라의 제실(帝室)이 풍패(豐沛)에서 일어났다는 생각을 담은 것이다.”라하고 호조참판 조유흥(曹允亨)에게 편액을 써 올리게 한다.

혜경궁의 회갑연 다음날인 1795년 윤 2월 14일, 굶주린 백성들을 비롯하여 사민(四民-鰥·寡·孤·獨)에게 쌀을 내려준 곳이 신평루이다.

비록 지난날에는 이 땅이 남쪽을 눌러서
[진남(鎭南)] 호위한다 하였지만
대략 호수를 베고 눕는 형세를 본땀구나
돌아보니 우리 임금님 동방의 표준이 되는 효성은
한고조가 패망 생각하는 마음보다 간절하구나
드디어 누각의 이름을 고치라 명령하여
현판의 이름을 신평(新豐)이라 하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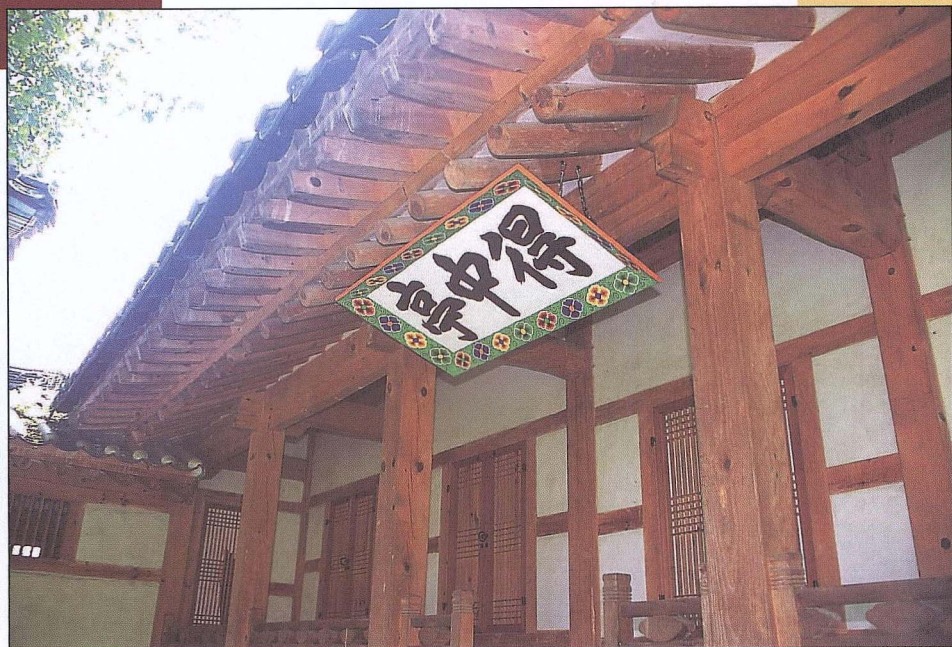
1796(정조20년) 11월, 우의정 윤시동(尹蓍東)이 정조의 명을 받



아 지은 신평루 상량문 중의 일부이다.

신평루 앞에는 신평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해마다 봄이 되면 향음주례(鄕飲酒禮)가 거행되었다. 이는 수원 춘 팔경의 하나인 신평사주(新豐社酒-신평의 술 모임)가 된다. 수원의 유생이 모두 모여 향약을 읽고 술을 마시고 잔치하면서 이상 사회를 구현하려 하였던 것이다.

득중정(得中亭)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화성행궁
- 시 대 : 조선 정조 18년(1794) ~ 2002년 복원
- 소유자 : 국유

득중정은 《화성성역의궤》에,

“갑인년(1794) 가을에 득중정을 노래당 뒤쪽에 옮겨서 건축하고, 옛 이름 그대로 임금이 쓴 편액을 받들어 걸었다. 노래당에서 용마루가 이어져가다가 서쪽으로 꺾이면 온돌 2칸이 있는데,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향하고 있다. 앞면의 처마 안쪽에는 작은 물림이 있고 평란을 설치하여 널문으로 이어놓았는데 비바람을 이중으로 막아준다. 계단 앞에는 어사대(御射臺)—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8척이고, 남쪽과 북쪽의 넓이가 6척임—가 있는데 위쪽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았다. 온돌 동쪽에 마루 2칸과 또 동쪽으로 2척 아래에 마루 2칸, 온돌 3칸, 그 남쪽 가에 물림기둥은 일직선으로 이어져서 봉수당의 북쪽 각도와 붙어 있는데 모두 단청을 칠하지 않았다.”

고 기록되어 있다. ‘득중’이란 똑바로 맞는 적중,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꼭 알맞게 되는 것, 시험에 합격한다는 등의 의미로 쓰인다. 득중정은 행궁 내 활터에 북향으로 지었으며 노래당과 거의 붙어 있는 정자이다. 1790년 정조는 처음 지은 정자에서 활을 4발 쏘아 모두 맞힌 것을 기념하여 ‘득중정’이라 편액하도록 하였다.

득중정 상량문은 이조판서 홍양호(洪良浩)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짓고 썼다.

낙남헌(洛南軒)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화성행궁
- 시 대 : 조선 정조 18년(1794) 9월 28일 완공
- 소유자 : 국유
- 기 타 : 경기도 기념물 65호 (95. 4. 24)

《화성성역의궤》에,

“(전략) 갑인년(1794) 가을에 득중정을 노래당(老來堂)의 서쪽으로 옮기고, 그 터를 넓게 닦아서 그 자리에 낙남헌(편액은 전 참판인 조윤형이 씀)을 건축하였다. 7개의 대들보에 14칸 반으로 남쪽에 앉아서 북쪽을 향하여 자리잡고 있다. (중략) 돌아서서 꺾어지면 노래당으로 통한다.(후략)”

고 기록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노래당과 붙어 있어 한 건물로 보인다. 그러나 당호가 다르고 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두 건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낙남헌이 북향, 노래당이 동향을 하고 있다.

‘낙남’은 중국 낙양(洛陽)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쓰여졌을 것 같다. 낙양은 동주(東周)·후한(後漢)·위(魏)·당(唐)나라 등의 서울이었다. 지금의 하남성 낙양현을 일컫고 낙수의 북쪽에 있다. 그렇다면 낙남은 서울의 남쪽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수원을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남쪽에서 서울을 보위하는 요충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다. 또 같은 소리를 내는 ‘낙남’(落南)은 서울 사람이 남쪽으로 이사하여 내려간다는 의미이니 이것도 고려하여 지은 이름일 것이다.



낙남헌은 화성을 쌓을 때에 호궤(犒饋) 장소로 여러 번 쓰였고, 문무과 별시의 장소로도 쓰였다. 혜경궁의 화갑연 다음날인 1795년 윤 2월

14일 수원에 사는 노인들을 위해 양로연을 베풀었던 장소이며, 1796년 10월 16일 낙성잔치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화성행궁 대부분의 건물들이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것과 달리 비교적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낙남헌에서 노인을 위한 잔치를 여는데 70세와 61세 된 노인이 참여하였다. 절은 한 자리에서 두 번 이르는 예절을 썼다. 여러 노인들이 자리에 나올 때 나는 여러 노인들을 위하여 일어섰고, 이미 당에 올라와서는 술을 세 번 돌리고 여러 노인에게 시를 읊어 보여주고 화답하기를 구하였다 [을묘년(1795) 윤 2월 14일]

학처럼 흰머리에 비둘기 머리 모양의 지팡이 잡고 앞뒤로 모였으니
우리나라의 화기 있는 낙남헌의 잔치로구나
바라노니 여러 노인들 오래오래 사셔서
우리 어머님 만년동안 사시도록 축하해 주시기를

정조 임금이 양로연의 정황과 시를 짓게 된 배경, 그리고 어제시이다.

상량문은 1796년 11월 이조판서 심환지(沈煥之)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짓는다.

노래당(老來堂)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화성행궁
- 시 대 : 조선 정조 18년(1794)
- 소유자 : 국유

노래당은 낙남헌의 서쪽에 맞닿아 남쪽으로 붙은 건물이다. 서쪽에 앉아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며 낙남헌과는 장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온돌 3칸, 마루 1칸, 부엌 1칸, 퇴칸 2칸 등 해서 7칸 짜리 건물이다.

당호에 ‘늙어서 올 집’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 정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수원에 와서 여생을 보내려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정조가 직접 지은 시, 노래당에서 입으로 지어 부르다를 보면,

노래당 속에 활짝 핀 좋은 얼굴
 동산과 정자의 이름 거듭 걸어 늙을 틈이 없네
 평상시엔 감히 늙었다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노래자(老萊子)처럼 색동옷 입어보네

정조가 노래자 같은 효자가 되고 싶어 지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글자는 다르지만 소리가 같으므로 ‘늙어서 올 집’이라는 뜻과 노래자처럼 효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다. 노래자는 중국 초(楚)나라의 현인인데, 나이 70에 어린아이처럼 5색 무늬의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재물을 부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는 전설 같은 효자이다.

6월 18일은 혜경궁의 실제 탄생일이어서 1795년 서울에서 다시 회갑잔치를 열었다. 이때도 역시 과거를 열었는데, 시제는 ‘아유 노래의’(我有老萊衣)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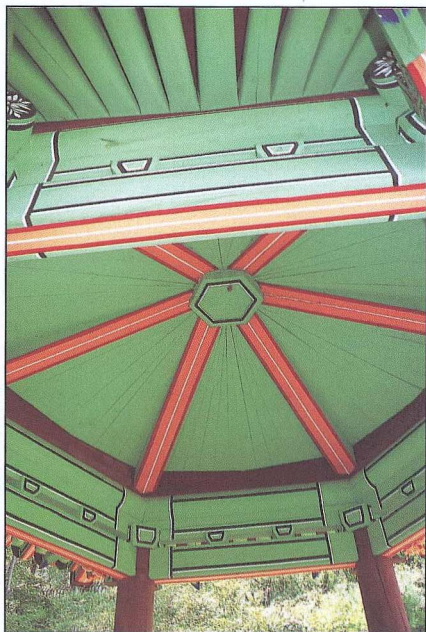
임금님은 매번 오래 계실 것을 생각하여
화려한 현판을 특별히 걸고 노래당(老來堂)이라 하셨네
임금님의 나이 아직 한창인 때에
오히려 때마다 이곳에 오시려 하였고
아주 늙어서 힘들고 조심할 즈음에는
여기를 잊지 못하고 간절한 마음 더욱 절실하시겠지

정조 20년(1796) 11월에 대호군 정범조(丁範祖)가 명령을 받들어 지은 상량문 가운데 일부이다.

미로한정(未老閒亭)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화성행궁 후원
- 시 대 : 조선 정조
- 소유자 : 국유
- 건물 규모 및 구조 : 1칸 육각정, 육모 모임지붕 외가



“미로한정은 후원의 서쪽 담장 안에 있는데 옛날에는 육면정(六面亭)이라고 하였다. 길은 득한문(得閑門)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에 나와 있는 미로한정에 대한 서술이다. 언제 훼손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행궁 뒤편 팔달산 기슭에서 옛 주초석을 찾아 2002년에 다시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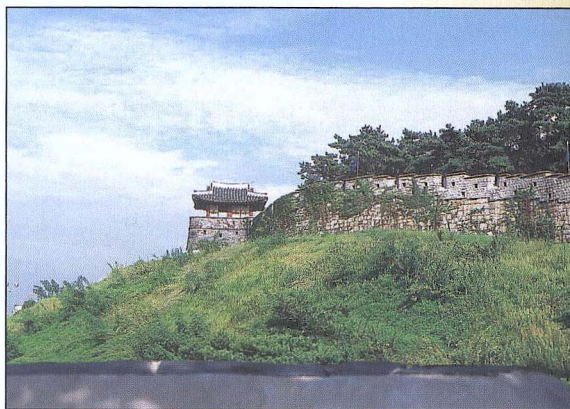
미로한정에서 국화를 감상하는 것 [한정품국(閑亭品菊)]이 수원 의 가을 팔경 가운데 하나였다. 비단 바탕 병풍에 화성의 춘추팔경을 그려 행궁에 설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어 안타깝다.

동북포루(東北舖樓)-각건대(角巾臺)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 시 대 : 조선 정조 20년(1796) 5월 15일 초건
- 소유자 : 국유

동북포루는 각건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방화수류정을 동쪽에서 굽어보고 있다.



《화성성역의궤》에,

“〈성서(城書)〉에 이르기를, ‘치성(稚城)의 위에 지은 집을 포(鋪)라 한다’고 하였다. 치성에 있는 군사들을 가려 보호하려는 것이다.”

“치성이 성밖으로 18척 5촌이 튀어 나왔는데 외면의 너비는 24척이고 현안(懸眼) 1구멍을 뚫었다. 5량으로 집을 지었는데 판자를 깔아 누를 만들었다. 7영(七楹) 3칸이고 높이는 여장 위로 6척 8촌이 솟았는데, 전체 높이는 13척이다. 여장의 3면은 모두 벽돌을 사용하였고 여장 안은 벽등(壁燈)을 이중으로 쌓았는데, 높이는 난간 바닥에서 그치며 벽등 아래 위에 네모난 총안 구멍 19개[사방 각 9촌], 누혈(漏穴) 11개[사방 각 4촌]를 뚫어 놓았다. 누의 위 4면에는 판문을 설치하고 외면과 좌우에는 사안(射眼)을 내어놓았다. 내면에 벽돌 층계를 설치하여 오르내리게 하였다. 단청은 3토를 사용하였고, 들보 위는 회를 발랐다.”

‘각건’은 모가 진 두건인데 은자(隱者)가 쓰던 방건(方巾), 혹은 정재(呈才) 때 무동(舞童)이 쓰던 수건을 일컫기도 한다. 지세가 갑자기 솟아올라온 것 같은 곳에 포루를 만들어 각건대라고 명명한다.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동북각루(東北角樓)-용두각(龍頭閣)



-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 시 대 : 조선 정조 18년(1794) 10월 19일 초건
- 소유자 : 국유

《화성성역의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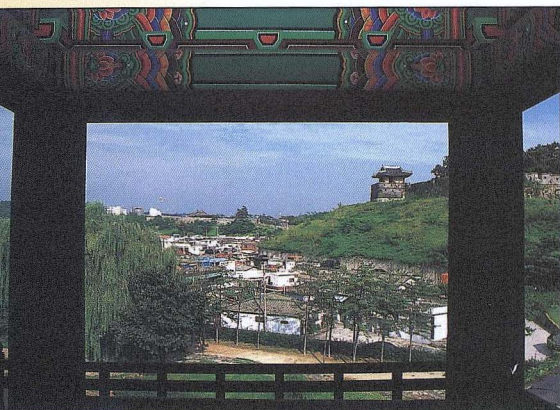
“벽성(甕城)의 서북 19보 용연(龍淵)의 위에 있다. 광고산의 한 기슭이 남으로 뻗어내려 선암산이 되었고, 다시 서쪽으로 감돌아 몇 리를 내려가 용두(龍頭)에서 그치고 북쪽을 향하여 활짝 열렸다. 용두란 것은 용연의 위에 불쑥 솟은 바위이다.

성이 이곳에 이르면 산과 들이 만나게 되고 물이 돌아서 아래로 흘러 대천에 이르게 되니, 여기야말로 실지로 동북 모퉁이의 요해처이다. 장안문을 끌어당겨 화홍문과 이어지게 함으로써 앞뒤로 마주 응하여 한 면을 제압하고 있다. 마침내 절벽을 따라서 성을 쌓고 바위에 누를 세우니 편액은 방화수류정이라 하였다.[전 참판 조윤형(曹允亨) 씀]”

고 기록되어 있다. 방화수류정의 평면은, 동서 방향으로 3칸인데 가운데 칸에 온돌을 놓았고, 이 방에서 북으로 한 칸을 붙이고 남으로 반 칸을 물렸다. 그리고 서쪽의 한 칸은 또 길게 두 칸을 끌어내었다. 이렇게 평면이 복잡하다보니 지붕은 더욱 복잡해진다. 팔작지붕이 모여서 열 십자(十) 형태가 되면서 모임지붕처럼 되어 가운데에 절병통을 얹어 장식했고, 서쪽의 남쪽으로 길게 내려간 지붕도 팔작지붕으로 마감하였다.

1794년 정월 15일 정조는,

“(전략) 용연 위에 우뚝 솟은 용두는 석벽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기맥이 모여들고 뗏혀 정기와 신령함이 있다. 더구나 물막이를 겹하고 있는 공이 있으니 마치 이 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것을 의지하여 둘러쌓으면 좋을 것 같으나 모두 일을 맡은 사람의 재량으로 잘 조치할 일이다.”

용연 위에 불쑥 솟은 바위가 용두라면, 그 용두 위에 지은 집은 당연히 용두각이다. 동북각루라는 이름이 군사적인 시설물을 나타낸다면, 방화수류정은 상큼하고 화려한 휴식시설의 이름이고, 용두각이라는 이름은 땅의 생김새에 순응하여 붙인 이름이라 할 것이다.

방화수류정의 마루 밑에는 군사들이 몸을 숨기고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군사적인 목적의 동북각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마루에 오르기 전에 시설되어 있는 월대에는 네모난 벽돌을 깔았는데 우사(耦射)-둘이 나란히 짝지어 화살을 쏘-와 읍양(揖讓)의 예를 올릴 수 있는 면적이다. 지체 높은 사람에게 보고하거나 인사할 때, 그리고 화살을 쏘 때 이용하는 곳이다.

1797년 정월 29일 정조는 이곳에서 활을 쏘아 세 번 맞힌 다음 시를 지어 내려주고 여러 신하에게 거기에 잇대어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한다. 임금이 내려준 시는,

봄날 성을 두루 돌아도 해는 아직 지지 않고
 방화수류정의 꾸름 긴 경치 더욱 맑고 아름답구나
 수레를 세워놓고 세 번 쓴 것이 절묘하니
 만 그루 버드나무 그림자 속에 화살은 꽃과 같네

방화수류정이라는 이름은 중국 송나라의 대학자이자 시인인 정
 명도(程明道)의 시 〈춘일우성(春日偶成)-봄날 우연히 시를 짓다〉
 에서 따왔다고 한다.

구름은 얹고 바람 살랑이니 한낮이 가까운데
 雲淡風輕近午天
 꽃을 찾아서 버드나무 따라 앞 내를 찾아갔네
 訪花隨柳過前川
 벼은 내 마음 즐거운지 모르고
 傍人不識余心樂
 틈나면 소년들처럼 살아가라 이르네
 將謂偷閑學少年

사도세자의 묘원인 현릉원이 있는 산 이름이 화산(花山)이고, 새
 수원에는 버드내[유천(柳川)]가 흐르고 있으므로 이
 곳도 정자 이름을 지을 때 고려되었을 것이다.

반달처럼 생긴 용연에는 배 한 척이 떠 있었고 이
 용연에서 방화수류정 위에 뜬, 맑게 갠 날의 밝은
 달을 바라보는 것 [용연제월(龍淵霽月)]이 화성 가



을 팔경 중의 하나였다.

1796년 11월 좌승지 이서구(李書九)가 지은 상량
문 가운데 일부는 이렇다.

보아라 저 성가퀴의 한쪽 면은
용연의 윗머리에 있으니
만 떨기의 연꽃 같은 여러 봉우리는
춤추듯 나는 형세 바치고
천 줄기의 수양버들 같은 긴 시내는
그물 같은 그림의 빛을 펼치네
홀로 뛰어나 붉은 언덕 위에 세웠으니
모든 부의 아름다운 형세를 독점하였고
둥근 거울을 푸른 연못에 굽어 비치니
특별히 다른 구역의 풍경을 열었구나
드디어 목수에게 명령하여
아름다운 건물을 세웠다네

화양루(華陽樓)-서남각루(西南角樓)



-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교동 팔달산 남쪽
- 시 대 : 조선 정조 20년(1796) 7월 20일 초건
- 소유자 : 국유
- 건물 규모 및 구조 : 정면 2칸 측면 3칸 팔작지붕 외가

화양루는 화성의 서남암문(西南暗門)을 나와 용도(甬道)의 남쪽으로 멀리 떨어지고 높은 지점 경치 좋은 곳에 따로 우뚝 서 있다. 누의 규모는 6칸인데 남쪽으로 2칸은 판자를 깔고 난간을 둘렀으며, 북쪽의 4칸은 벽돌을 깔았다.

“옛날 제도에 따르면 용도(甬道)란 것은 군량을 운반하고 매복을 서기 위하여 낸 길이다. 지금의 남쪽 기슭 한 가닥은 성밖으로 나와서 별안간 높이 솟아 사방의 들을 내려다보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곳을 막아 지키지 않아서 적군이 먼저 올라가게 한다면 성의 허실을 모두 엿보이게 된다. 비록 양식을 운반하는 길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지로 가장 중요한 곳이다.”

《화성성역의궤》에 들어 있는 용도에 대한 설명이다. 용도는 본래 ‘양쪽에 여장을 쌓아 외성 또는 돌출 치성에 통하는 좁은 길’을 뜻한다.

팔달산의 능선은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내렸는데 그 높낮이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래서 능선을 모두 포함하여 성을 쌓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성벽이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들 뻘뻘러 동쪽의 성과 연결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성의 건축가들은 팔달산 능선의 일부를 성밖으로 처리하면서 용도를 가설하였는데 용도의 입구는 서남암문으로, 암문의 위는 서남포사로 만들었다.

용도의 맨 끝 남쪽에 자리를 넓혀 화양루를 앉혔다. 다만 다른



각루들과 달리 방을 들이지는 않았다.

화양루의 상량문은 1796년 11월 서유신(徐有臣)이 지었다. 이 화양루에서의 눈 감상 [양루상설(陽樓賞雪)]이 화성의 가을 팔경 중 하나였다.

영화정(迎華亭)



-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만석공원 내
- 시 대 : 조선 정조 19년(1795) 10월 초3일 초건,
1996년 10월 신축 복원
- 소유자 : 국유
- 건물 규모 및 구조 : 'ㄱ'자 형태 8칸, 겹처마 팔작지붕

영화정은 본래 장안구 송죽동 만석거(萬石渠) 남쪽에 있었다. 장안문 밖 북쪽 5리쯤 되는 시내에 독을 쌓아 만든 저수지가 만석거인데, 1795년 윤 2월 혜경궁 홍씨의 회갑 때 화성유수 조심태의 건의를 받아들여 만들었다. 이 해 가을부터 물을 받아 호수에 들여보내고 이어서 세운 정자이다.

《화성성역의궤》에 영화정에 대해 서술된 것은 이렇다.

“맑고 깨끗한 물을 내려다보고 기름진 들판을 바라볼 수 있으니 이 정자에 올라가 바라보는 경치는 기남(畿南)을 뒤흔들 만하다. 정자는 모두 8칸이다. 북쪽에 세로로 2칸이 온돌이고, 남쪽에 가로로 2칸은 판자를 깔았다. 3면과 온돌의 뒤는 모두 반 칸을 물렸고 연잎 난간을 두르고 있다. 온돌 4면은 모두 쇠창 장지를 설치하였다. 단청은 다섯 가지 색깔을 썼다. 정자 서쪽에는 대문을 설치하고 남쪽에는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사방을 담장으로 둘렀다. 병진년(1796) 봄에 임금이 탄 수레가 들렀을 때 명령을 내려 영화정(迎華亭) [수원부 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씌]이라고 편액하였다.”

영화정에서 총리대신이 화성부를 바라본 시를 차운하다

다락의 망루가 문득 솟아오르니
산과 물이 갑자기 새로워지는구나
이 모든 것이 그대 총리의 힘이니
나를 위해 귀신처럼 지휘하였네
깃발과 북소리에 뛰어오르는 군사들이며
거리거리마다 생업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이네

밭의 등급은 으뜸 중의 으뜸인데
도랑 뚫어 물 대는 것 내년 봄을 위함일세

1797년 8월의 행차 때 화성 성역의 총리대신인 채제공(蔡濟恭)
이 지은 시에서 운을 따 정조가 직접 지은 시이다.

성곽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이 있으니
땅과 곡식이 없으면 어떻게 기를 것인가
거친 들을 개간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개간하니
곧 기름진 땅 끝이 없게 되었구나

여의교(如意橋) 아래에 수레와 말이 머무르니
모두가 쉬어가기를 생각한 것이요
정리사(整理使)가 도장을 교환한 것은
또한 딱 들어맞는 일 처리구나

1796년 11월 수원부관관 홍원섭(洪元燮)이 지은 영화정 상량문 가운데 일부이다. 이곳에서 화성의 신, 구관 유수들이 거북 모양의 관인을 인수 인계하였다고 하여 일명 교구정(交龜亭)으로도 불렸다. 영화정에서 바라보이는 만석거에는 연꽃을 심어 장식하였고, 소정(小艇)과 소소정(小小艇) 등의 배 2척도 띄워 선유(船遊)하기에도 좋고, 그 모습을 바라보기에도 좋았다. 또한 영화정에서 바라보는 가을 들판을 [석거황운(石渠黃雲)]-만석거 주변의 황금물결-이라 하여 가을 팔경의 하나로 여겼다.

지금의 영화정은 남서쪽에 있었던 옛날의 영화정을 현 위치로 옮겨 추정 복원한 것이다.

항미정(杭眉亭)



- 소재지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51
- 시 대 : 조선 순조 31년(1831)
- 소유자 : 국유
- 기 타 : 향토유적 제 1호



정조 23년(1799)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화성의 서쪽에 축만제(祝萬堤)-일명 서호(西湖)-를 조성한다. 화성의 북쪽에 이미 축

조한 만석거의 효과가 너무 좋았기에 이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한편으로는 만석거와 대유둔(大有屯), 축만제와 서둔(西屯)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성을 성밖에 쌓은 것이다.

항미정은 축만제의 제방 서쪽 끝에 있는 정자이다. 1831년 화성 유수였던 박기수(朴綺壽)가 축만제의 풍치를 더욱 빛내고자 세웠다고 한다. 화성 장안문 밖에 폐사된 건물을 옮겨지었다고 하나 어떤 건물을 옮겨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소동파(蘇東坡)의 ‘항주(杭州의 미목(眉目)’이라는 시구에서 따서 ‘항미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중국의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도 서호가 있고, 그 호수변에 ‘항미정’이라는 정자가 있다고 한다.

정자의 구조는 북에서 남으로 ‘一’ 자형 4칸과 전퇴가 있는 건물에, 북쪽 끝에서는 서쪽으로 2칸의 공랑(空廊)을 붙였고, 남쪽 끝에서는 동쪽으로 1칸의 마루칸을 달았다. 지붕도 전면과 동랑(東廊)에는 팔작지붕, 서랑(西廊)은 맞배지붕으로 처리하였다.

항미정에 앉으면 화성이 있는 팔달산의 전경과 호수에 비친 여기산의 모습이 절경이다.

진목정(眞木亭) 터

-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 1동 295 근처
- 시 대 : 미상
- 소유자 : 미상

진목정은 만석거 옆 언덕으로, 지금의 백조아파트 앞산으로 추정된다. ‘진목정’이라는 이름은 참나무가 많은 곳에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 전해진다.

《화성성역의궤》에,

“장안문을 나와 북쪽으로 5리쯤인 거리 지하동(芝荷洞) 입구 진목정(眞木亭) 아래에 시내를 가로질러 방죽을 쌓고 만석거(萬石渠)라 이름을 붙였다.”

고 기록되어 있고, 1796년 5월 초10일에 진목정교(眞木亭橋)를 여의교(如意橋)로 바꾼다는 기록도 있다.

만석거를 축조하기 이전에는 아마도 진목정이 ‘교구정(交龜亭)’으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만석거를 만들고 영화정이 건립된 다음에는 그 기능이 영화정으로 옮겨간 듯하다.

산일정(山一亭) 터



-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정자 1동 487
- 시 대 : 1925년
- 소유자 : 미상
- 건물 규모 및 구조 : 4칸 팔작지붕
- 기 타 : 1989년 화재로 전소

산일정은 정산(亭山)이란 호를 사용하던 참봉 조세현(趙世顯)-1865년 생-이 지었다고 한다. 정산은 자신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해 사재로 정자를 짓고 연못까지 조성하였다고 한다.

지금의 정자동이라는 지명이 산일정 때문에 생겼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의 유지들이나 관리들이 즐겨 찾던 정자로 추정된다. 한편으로는 위에 언급한 진목정과 영화정 등이 정자동이라는 지명을 낳게 한 것이라고도 한다.

지금 산일정 터에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지어져 영업하고 있으며, 주변 골목길의 이름만이 ‘산일정 4길’ 등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은휴정(恩休亭)



- 소재지 : 시흥시 하중동 산 200-3
- 시 대 : 초건 미상, 2002년 재건
- 소유자 : 안동 권씨 문중
- 건물 규모 및 구조 : 사방 1칸 겹처마 사모지붕



이 정자는 누가 언제 처음 지었는지, 또 언제 없어졌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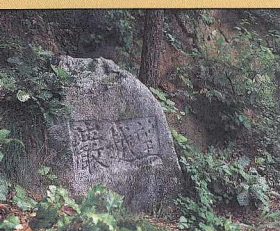
원래의 정자 위치는 지금의 정자에서 동북 방향으로 50여 미터 올라간 산록이라고 한다. 제 위치에 재건하지 못한 것은 주변에

묘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의 위치보다는 동북쪽으로 들판을 조망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앞에 있는 관곡지(官谷池, 향토유적 제 8호)와 관곡지의 연꽃을 바라보기에 좋은 곳이다.

은휴정 터에서 동북쪽으로 바라보는 들판은 일명 ‘호조뜰’이라고 하여 영조 때 대규모의 간척 사업을 통해 조성된 들판이라고 한다. 은휴정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바다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송정(枯松亭)



- 소재지 : 안산시 화정동 산54
- 시 대 : 조선 순조 27년(1827)
- 소유자 : 김녕 김씨 문중
- 건물 규모 및 구조 : 정면 2칸, 측면 2칸, 팔작지붕
- 기 타 : 경기도 기념물 제 101호



고송정은 화정동 너빌[광곡廣谷] 마하산(麻霞山) 아래에 있다.

김충주(金忠柱)의 9세손 김처일이 세운 정자이다. 김충주는 조부 김문기(金文起)와 부친 김현석(金玄錫)이 세조2년(1456) 단종 복위 모의에 가담하였다가 참화를 받아 도성을 탈출하여 이곳에 은거한다. 숲을 구워 파는 것을 업으로

삼아 탄옹(炭翁)이라고 자호(自號)하였다.

김충주는 매일 산에 올라 단종이 있는 영월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산 위에 있는 바위를 망월암(望越巖)이라고 하고, 눈물에 젖어 말라죽은 소나무가 서 있던 곳에 정자를 지어 고송정(枯松亭)이라고 했다고 전한다.

산에 ‘망월암’이라고 글씨를 새긴 바위와, 정자 서쪽에 ‘탄옹고지(炭翁古址)’라고 새긴 암각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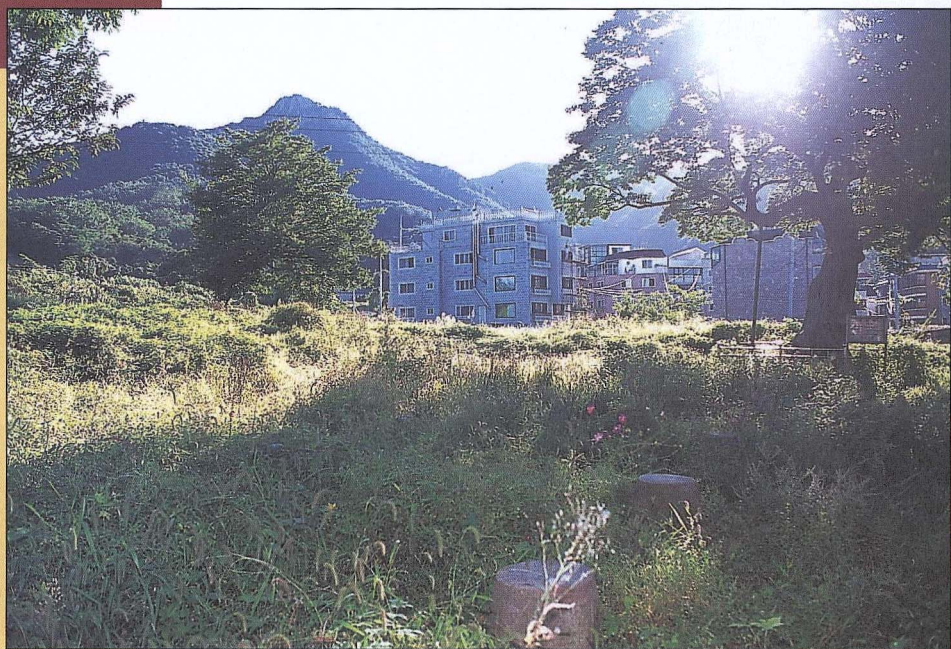
김충주의 9세손 김처일이 조상들의 충정을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정자의 뒤에는 수령 수 백여 년의 느티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김충주가 심었다는 향나무가 있으며, 정자의 앞에는 연못이 남아 있다.

같은 마을에는 충신 김문기와 김현석, 그리고 김충주를 비롯한 효자 후손들을 기리기 위한 오정각(五旌閣)이 있다.



평근루(平近樓) 터(추정)



■ 소재지 : 안산시 수암동 256

1899년에 발간된 《안산군읍지》에,

“평근루, 군아(郡衙)의 정문이다”

라는 기록으로 보아 안산 관아의 정문은 2층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외삼문으로, 2층은 누마루로 조성된 듯하다. 그러나 그 정확한 자리며 규모를 알 수 없다.

망해정(望海亭) 터(추정)



■ 소재지 : 안산시 수암동 산 27(?)

망해정은 조선 초의 권력자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 1345-1419)이 건립하였다고 하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김정경은 '삼도수군절도사'를 역임하고 정종 2년(1400)에 박포(朴苞)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연성군에 봉군된다. 관직에서 물러난 후 안산읍성 안에 살면서 정자를 경영하였던 것 같다.

수암봉에서 내려온 수려한 산줄기에 바다(서해)를 바라보기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망해정이라고 한 듯하다.

조선 시대에는 이곳을 안산군 군내면 서정리(西亭里)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망해정이 수암봉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언제 없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봉황대(鳳皇臺) 터

《안산군읍지》에,

“적길리(안산시 신길동) 해안에 봉황대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형상이 남아 있지 않고 그 아래에 사옹원
이 있어 조기를 진상하였다.”

는 기록이 있다.

지금은 정확한 위치도 알 수 없고 흔적도 없다.
전하는 말로는 높이 2미터 정도의 흙으로 된 단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봉수를 올렸다고도 한다.

극적루(克敵樓) 터

- 소재지 : 안성시 안성을 구포동 156번지
- 시 대 : 고려 공민왕
- 소유자 : 안성교육청

극적루는 객사 동쪽에 있었다. 고려말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紅巾賊) 20만 대군이 물밀듯이 쳐내려와 개경이 적의 수중에 떨어지자 공민왕은 경상도 안동으로 피난을 가는 지경이었다. 이에 경기 도내 30여주(州)는 모두 항복하며 홍건적에게 대항할 의지를 잃었다. 그러나 안성인들은 거짓 항복하고 잔치를 크게 벌여 적의 선봉 부대를 환대하고 배불리 먹여 술에 취하게 한 다음, 강력한 적의 선봉 부대를 처단하였다. 이런 까닭에 홍건적은 더 이상 남진 할 수가 없게 되고 적의 대부대는 송도로 후퇴하였다. 이에 고려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송도에 집결해 있는 홍건적에 대한 총공격을 단행하여 끝내 홍건적을 물리치게 되었다. 이러한 안성인들의 의열을 표창하여 고을을 지관(知官)으로 승격시켰다.

이듬해 1362년 안성군수 신인도(愼仁道)가 적을 섬멸한 공로와 지관으로 승격한 영예로움을 정표(旌表)하기 위해 관아 동쪽에 새롭게 루각을 세웠다. 세울 당시 루 이름이나 기문이 없었고, 36년이 지난 1398년(태조 7, 戊寅) 안성군수였던 정수홍(鄭守弘)이 누각을 새로 수리하고 양촌 권근(陽村 權近)에게 부탁하여 누 이름을 적을 무찔렀다는 의미로 '克敵樓'라 하고 [극적루기]를 달았다.

극적루는 안성이 충절의 고장임을 표상하는 대표적 누각인 셈이지만, 극적루는 17세기 이후 간행된 읍지류에 이미 소실된 것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1592년 임진왜란 전후 소실된 것으로 보인다. 극적루가 소실된 이후 1728년(영조 4년) 오명항(吳命恒)이 무신란을 평정하고 세운 기공비각(紀功碑閣)을 또한 극적루라 부르기도 했다.

금화정(金華亭)



- 소재지 : 양주시 양주읍 유양리(양주관아지 후편 불곡산 남쪽)
- 시 대 : 조선
- 소유자 : 군유
- 건물규모 및 구조 : 원형주초석, 원형목조기둥, 우물마루난간4모정
(1996년 윤명노 군수 복원)



금화정은 양주관아 경내 유양리 불곡산 남록 폭포수가 흐르는 암벽을 배경으로 세워졌던 정자였다. 관아의 후편으로 주변경관이 휴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하다.

정자 앞을 흐르는 벽계수 암벽에 금화통문(金華洞門) 폭포수 암벽좌측에 관민동락(官民同樂)의 암각문(岩刻文)이 정자의 풍취를 더해주고 있다. 1996년 민선군수에 의해 복원되어서 옛정자의 원형은 알수 없으나 정자터를 보존한 관민동락의 문화유산전형을 보여주는 정자였다.



영호정(映湖亭)



- 소재지 :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산40-1 갈산공원 내
- 시 대 : 조선후기
- 소유자 : 양평군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장방형으로 팔작지붕에 우리 식 골기와를 얹은 흙처마 건물로 내부는 마루를 깔았다.

《양근읍지(楊根邑誌)》에 의하면 갈산산록(葛山山麓) 남한강변에 태허루(太虛樓)라는 객사(客舍)가 있었고 그 아래에 관에서 석축(石築)을 하고 영호대(映湖臺)를 세워 나무 그늘에서 향인과 외래객이 풍류를 즐겼다고 하였다 하나 오랜 세월로 폐허되었다가 1930년대에 양근리에 거주하는 이범기(李範基)씨가 유지들과 더불어 그 장소에 영호정(映湖亭)을 재건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그 자리에 신사(神社)를 세우고 영호정은 동편능선으로 이축(移築)하여 붕괴된 채 버려둔 것을 1946년에 양근리에 거주하는 김연수(金連洙)씨가 영호정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유지들과 금품을 염출하여 신사(神社)를 헐고 그 자리에 재건하였으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다. 그 후 재건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지방인사들의 건의로 양평군청에서 1991년 8월 16일에 착공하여 11월 14일 준공한 것이 오늘의 영호정(映湖亭)이다. 제액(題額)은 당시 양평국민학교 교장인 일정(一靜) 조영기(趙永基) 선생이 썼다.

보산정(寶山亭)



- 소재지 :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산33-2 부안천변 옆 동산
- 시 대 : 조선전기
- 소유자 : 무안 박씨
- 건물규모 및 구조 : 지붕은 팔작지붕에 골기와의를 얹었다. 정면 2칸 (4.3m), 측면 2칸(4.3m)의 정방형 굴도리집으로 겹처마에 단청을 하였다.
- 기 타 : 향토유적 제11호



보산정은 이 일대의 대성(大姓)으로 동족촌락을 이루고 사는 무안 박씨 입향조가 14세기후반에 보룡리 대대(大垓), 즉 한터로 입향한 이후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안 박씨는 이곳에서 25대를 걸쳐 살고 있다.

현재의 건물은 1955년에 중건한 것으로 기둥과 일부 벽을 시멘트로 복원하였다.



봉황정(鳳凰亭)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산239-1
- 시 대 : 조선후기
- 소유자 : 남원 양씨 문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6.10m(3칸), 측면 6.10m(3칸)이며 정방형 건물이다. 현액이 달린 출입문은 목조다. 곡로의 계단을 올라가면 [남휘정]이란 현액이 붙은 본건물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남휘정은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겹처마 건물이다.
- 기 타 : 향토유적 제24호



봉황정은 조선 인조2년(1624) 이곳 남원 양씨 선조 이조참의 양응청과 병사 양응함 두 분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이 정자에는 구성대 또는 람휘정이라는 현액이 있다. 구성은 성대풍류가 아홉 번 이루니 봉황이 와서 춤추는 형상이고, 람휘는 봉황이 천길을 날다가 덕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내려 앉았다는 뜻이 있다.

이항복·이식·김창흡·이중하 등 명인재사들이 글을 남겼다. 누각 상단에는 [봉황대 람휘정 중수기]를 비롯 중건기와 백사 이항복·규당 이중하 등의 시 현판들이 사방에 걸려 있다. 중수·중건기에 의하면, 이 정자는 정조 14년(1790) 경술 3월 14일에 중건했다가 한국전쟁으로 소실·황폐된 것을 1966년에 남원 양씨 문중에서 복원했다.



택승정(澤升亭)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산175-3
- 시 대 : 조선 순조30년(1830)
- 소유자 : 남원 양씨
- 건물규모 및 구조 : 팔작지붕에 우리 식 골기와를 얹었으며 마루를 깔았다. 자연 초석 위에 원주(圓柱)를 세운 굴도리 집이다. 정면은 4.36m, 측면은 3.68m다.
- 기 타 : 향토유적 제25호

광탄리에서 홍천으로 가는 국도변 소나무 숲 속에 위치한 사정(射亭)의 기능을 한 정자다.

택승정은 남원 양씨 문중에서 궁술을 연마하기 위한 도장으로 만들었다. 즉 부근의 봉황정에서 글을 읽어 문(文)을 쌓고 이곳 택승정 앞 광장에서 활을 쏘아 무(武)를 익힘으로써 문무를 겸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 것이다.

[澤升亭記]에 의하면 순조30년(1830)에 남원 양씨들이 본래 있던 활터에다 건립한 것으로, 헌종6년(1840) 병사(兵使) 양주태(梁柱台)가 현액(懸額)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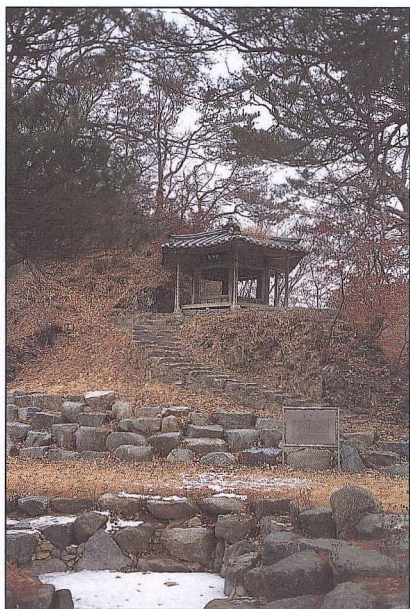
‘澤升’은 못가에서 활을 익히는 것은 선왕의 법도이며, 예절을 지켜 정자에 오르고 내리는 것은 군자의 도리라고 뜻을 가지고 있다.



세심정(洗心亭)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덕촌리 산137 퇴촌마을 입구
- 시 대 : 조선 중종 16년(1521)
- 소유자 : 평양 조씨 문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육각원당형(六角圓堂形)의 2.3평 되는 목조건물이다. 지붕은 팔작지붕에 우리 식 골기와의를 얹었다. 7개 주초석(柱礎石) 위에는 육각 기둥을 세웠고, 각각 길이 2.5m의 툇마루를 내었으며 내부는 우물마루를 깔았다.
- 기 타 : 향토유적 제23호



세심정은 조선 중종·명종 때의 학자로 정암 조광조 선생의 제자인 조육(趙昱, 1498~1557) 용문선생(龍門先生)이 기묘사화를 당하여 이곳에 은거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도학을 강론하던 곳이다. 중종 16년(1521)에 이 정자를 건립하여 세심정이라 제액(題額)하고 자신의 당호(堂號)를 세심당(洗心堂)이라 하였다.

세심정은 전면에 용소보(龍沼洑)가 있고 사면은 울창한 노송과 고목으로 둘러싸여 있는 야산 기슭 고대(高臺)에 자리를 잡았다. 정자에서 10m 전방에는 20여 평되는 연당(蓮塘)이 있다. 주위를 석축으로 만든 연당은 방형으로 정면 16m, 측면 11.5m의 규모이며, 한 가운데는 관상노송(觀賞老松)을 심었다.



봉의정(鳳儀亭) 터



- 소재지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97-2 교암마을 동편 남한강변 구릉지
- 시 대 : 미상
- 건물규모 및 구조 : 미상

건축물은 없고 기단석재만 흩어져 있는 상태다.
봉의정터 맞은편에는 큰 집터가 있는데 이곳을 대
궐터라고 하며 지금도 옛날 기와 조각이 있다.

청심루(淸心樓) 터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여주초등학교 교정
- 시 대 : 고려시대

청심루는 객관 북쪽에 있는 부속 건물로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정자로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 등 고려의 대학자들과 인연이 깊은 유명한 정자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청심루는 1617년(광해군 9) 여주군수 김용(金涌)이 중건하였다. 또한 청심루에는 숙종대왕 어제(肅宗大王御製) ‘讀東國史感高麗右正言李存吾忠節遂作贊’이 걸려 있었다. 이는 1682년(숙종 8) 11월 우암 송시열이 효종의 영릉이 있는 여주로 내려와 이듬해까지 머물렀을 때 청심루에 올라 영릉을 바라보며 효종을 그리며 여러 편의 시를 지었던 인연과 연관이 있는 듯하다. 우암 송시열은 큰 글씨로 ‘淸心樓’의 현판을 새로 써서 걸어 놓았다.

정조는 1779년(정조 3) 여주의 세종의 영릉(英陵)과 효종의 영릉(寧陵)을 전배하고 청심루에 올라 송시열의 충절을 기리기도 하였다.

청심루에는 조두순(趙斗淳)이 1856년(乙卯) 여름에 쓴 [淸心樓記]가 있었다. 또한 1869년 여주 부사가 된 이인응(李寅應)이 여주 관아에 대한 대대적인 중건을 시작하면서 퇴락한 청심루도 1870년 3월부터 수선하기 시작하여 8월에 마쳤다. 중수를 마친 뒤 이인응은 [淸心樓重修記]를 써서 청심루에 걸었다.

청심루는 남한강 상류쪽 신륵사의 동대(東臺)가 아늑하게 보이고, 서쪽으로 영릉의 웅장한 송림과 강 아래로 오고가는 뚝단배들이 그림처럼 전개되어 여주의 대표적 경승이어서 나라의 대표적

인 시인묵객들이 남한강을 지나다가 반드시 들러보는 명소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청심루에 올라 지은 제영이 전해지는 바, 이곡·이색·김구용·정추·정자후·설문우·도원홍·김종직·최숙정·서거정·한수·김안국·이황·유성룡·노수신·송시열·홍섬·홍양호·신광한·권상하·이병연·이항로·김좌근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현재는 터로 남아 있지만 청심루는 서울의 낙천정·세검정, 광주 청풍루와 파주 화석정, 청풍 한벽루, 남원 광한루, 제주 관덕정 등과 더불어 나라에서 유명한 정자 가운데 하나였다.

1908년 5월 공립 여주보통학교가 사립 개진학교를 인수하여 개교하였는데, 1910년 4월 청심루가 있던 군청 객사를 수리하여 이전해 옴에 따라 청심루는 학교 부지로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45년 8월 22일 군수 관사의 화재로 인해 청심루 서쪽 5개 교실이 소실될 때 함께 불탄 것 같다.

청심루는 현재 여주초등학교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었고, 그 터에 1987년 12월 26일 경기도에서 세운 ‘청심루터’라는 표석이 있다.

강월헌(江月軒)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 : 신흥사
- 건물규모 및 구조 : 2층의 6각형 정자로 골기와, 시멘트
- 기 타 : 1974년 재건

신륵사 동쪽의 높은 언덕에 다층전탑이 있고, 강쪽으로 약간 아래에 3층석탑과 강월헌이 서 있다. 여강의 풍광이 자연스럽게 펼쳐보이는 절경으로 아래쪽 강가의 암반 위에 주춧돌을 대신하여 세웠는데 기둥의 크기는 암반의 모양을 따라 자연스런 크기로 서 있다.

원래 강월헌(江月軒)은 보제존자 나옹(懶翁, 1320~1376)의 처소 이름이자 당호였다. 나옹의 제자였던 무학대사의 처소는 계월헌(溪月軒)이다. 나옹은 공민왕의 왕사로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승려였다. 경북 영해 사람으로 속명은 원혜(元慧)이고 호가 나옹 또는 강월헌이다.

나옹이 신륵사에서 입적하고 난 뒤 제자들이 유지를 받들기 위해 사리탑과 영당을 세웠다. 목은 이색의 「보제사리석종기(普濟舍利石鐘記)」에 의하면 "강월헌은 보제(普濟)가 거주하던 곳이다. 보제의 몸이 이미 화장을 하였건만 강물과 달만은 거기에 우뚝 솟아 있어 달이 뜨면 그 그림자 강에 거꾸로 걸려있고 물빛은 등불 빛 같고 무럭무럭 타오르는 향연기만 그 속에 영겼으니 소위 강월헌이로다."

보제존자 나옹의 영당이 맨 처음에는 강월헌이었던 것 같다. 이후 지공·나옹·무학을 모시는 조사당(祖師堂)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나옹은 양주 회암사에서 밀양 형원사로 가는 도중 신륵사에서 입적하였고, 실제 신륵사에서 머문 기간이 며칠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월헌은 양주 회암사의 나옹의 생전 처소였던 강월헌

의 이름을 그대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가에 있는 정자는 최근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시인묵객들이 신록사를 나들면서 강월헌을 언급한 시는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 동대(東臺)를 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승려였던 함허 기화(涵虛 己和, 1376-1433)와 서산대사의 언급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강월헌은 전각의 형태로 있다가 이름이 없어진 뒤 강가에 만들어진 정자의 이름으로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승유억불의 정책적 기저에서 유학자들이 승려 나옹과 관련된 강월헌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것이 된다.

원래 정자는 나옹화상의 다비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3층석탑과 거의 맞붙어 있었으나 1972년 홍수로 옛 건물이 떠내려간 이후 1974년 지금의 자리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새로 지은 것이다. 기문 등이 없다.



구룡루(九龍樓)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 : 신륵사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의 2층 누각
- 기 타 :

구룡루는 신륵사의 중심법당인 극락보전 앞에 서 있는 누각이다. 구룡루라는 이름은 석가모니 탄생시 9마리 용이 물을 뿌려 부처님을 목욕시켰다는 경전내용과 신륵사가 창건될 때 커다란 연못을 메우고 그곳에 살던 9마리 용에게 항복을 받고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 지었다는 전설과 연관된다.

구룡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로 된 2층의 누각이다. 사찰의 누각은 누마루 아래를 통해 경내로 들어오는 누하진입(樓下進入) 방식이거나 누마루 아래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막아놓고 누각 옆으로 드나드는 우각진입(隅角進入) 방식을 쓰는데, 구룡루는 우각진입 방식이다. 특히 구룡루는 누마루 기둥이 높지 않고 벽돌로 마감하여 일반 전각과 별 차이가 없어 누각의 느낌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신륵사는 극락보전과 탑 그리고 구룡루의 배치가 중심축선상에 기하학적인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심축의 연장선상에 남한강이 위치하기 때문에 신륵사로 진입하는 방식은 강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범종루를 통해 들어오는 진입방식이기 때문에 구룡루는 통로의 기능보다 정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컸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영조 때 동대의 전탑을 중수하고 난 뒤 구룡루를 중수하였고, 또한 1858년(철종 9) 김병기(金炳冀)에 의해 신륵사가 중창될 때 구룡루도 중수되었다. 전면에 ‘九龍樓’라는 현판이 있고 극락보전과 마주보고 있는 뒷면에는 원충희(元忠喜)가 쓴 ‘鳳尾山神勒寺’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구룡루 안에는 김병기의 [신륵사중수기(神勒寺重修記)]를 비롯하여 1919년 용주사 주지 강대련(姜大蓮)과 1932년 봉은사 주지 나청호(羅淸湖)의 제영시와 이천 부발면 매곡 하일당 이회명(李會明)의 [登淸心樓(偶詩)]와 1954년 원주 문막 김택영(金澤榮)의 제영시가 걸려 있다.



동대(東臺)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 : 신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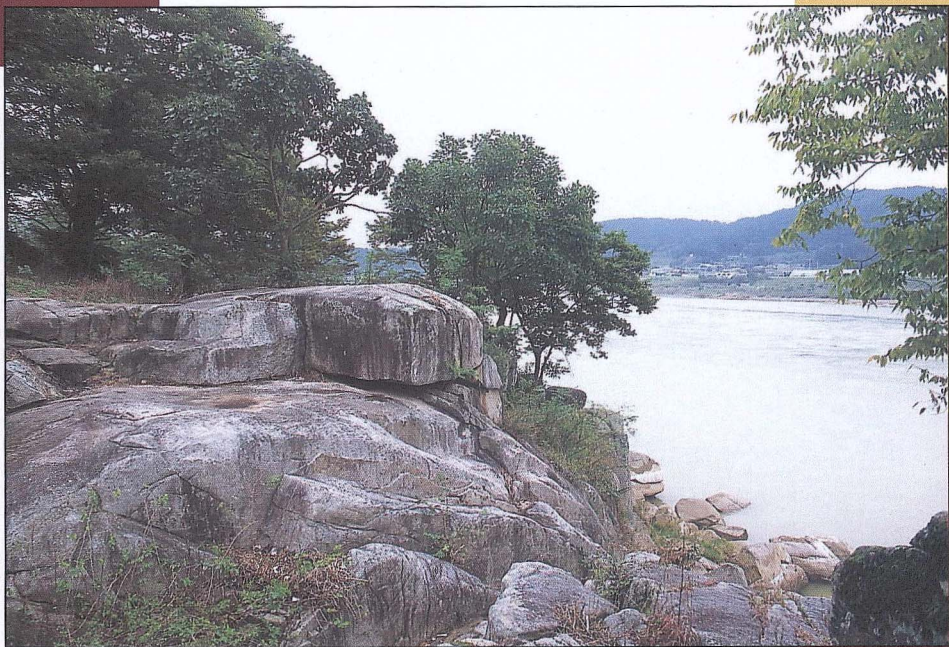
신륵사 동쪽 남한강을 굽어 볼 수 있는 기암절벽을 동대(東臺)라고 한다. 남한강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고려시대 조성된 벽돌탑이 서 있어 더욱 유명하다. 이 때문에 신륵사를 벽절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여주를 떠오르면 신륵사를 떠올리는데 이는 여주의 절승(絶勝)이기 때문이다. 동대(東臺)는 또한 신륵사에서도 풍광이 으뜸이니, 남한강과 만나는 기암절벽의 묘미를 만끽할 만하다. 하여 술한 시인묵객들이 동대에 올라 호연한 기상을 노래하였다.

《輿地圖書》에는 동대를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고 연못에는 소나무와 노송나무가 창연하여 경치가 극치를 이루어 상류의 제일로 꼽는다. 나옹선사가 바위 위에서 입적하여 그 제자들이 작은 부도를 세웠다"고 적고 있다. 따라서 동대에서 신륵사 쪽으로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강월헌 주변 남한강가의 암벽에 커다란 해서체 글씨로 '東臺'라 세로로 각자되어 있다. 조금 작은 글씨로 왼쪽에 '李敦夏'라 써 있는 것으로 보아 1874년(고종 11) 여주목사를 지낸 이돈하가 재임 중 신륵사 동대를 방문하여 새겨 넣은 것으로 보인다.

침석정(枕石亭) 터



- 소재지 : 여주읍 단현리 부라우 마을
- 시 대 : 조선시대



부라우 나루 주변의 기암절벽 위에는 자연 암반을 이용하여 정자의 기둥을 놓았던 자리가 남아 있다.

주변 암벽에 예서체로 ‘丹嶠’이라 새겨 넣은 글씨가 있는데, 민진원(閔鎭遠, 1664~1736)과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 민진원은 민유중(閔維重)의 아들이자 숙종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동생으로 영조 때 노론(老論)의 거두로 좌의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민진원은 문장과 글씨에 뛰어났는데, 저서로는 청나라 기행기인 《연행록(燕行錄)》과 《단암주의(丹巖奏議)》 등이 있고, 글씨에는 [송담서원비(松潭書院碑)], [검열오희도비(檢閱吳希道碑)] 등이 있다.

민진원이 부라우 마을에서 살았고, 그의 호 단암(丹巖)은 이곳에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라우 나루 주변 남한강을 특히 단강(丹江)으로 칭하였던 것 같다.

강가의 기암절벽과 강 건너 넓은 뜰을 조망할 수 있는 경승을 위해 정자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봉서정(鳳棲亭)



- 소재지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 시 대 : 고려시대
- 소유자 : 광주 이씨 문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의 2층 누각
- 기 타 : 1995년 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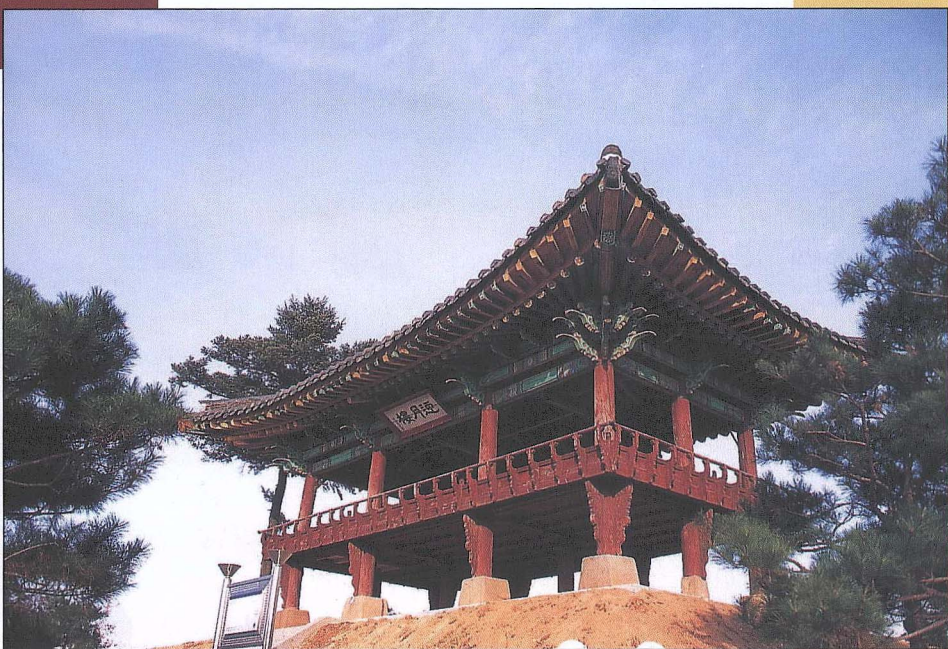


봉서정은 둔촌 이집(遁村 李集, 1327~1387)이 벼슬을 그만두고 난 뒤에 지은 정자이다. 둔촌 이집은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목은 이색(牧隱 李穡), 도은 이숭인(陶隱 李崇仁) 등과 교유하였던 고려 말의 대표적인 문인이다.

신돈의 개혁 당시 비판적이었던 그는 1371년 신돈이 실세한 뒤 다시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로 있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천녕(川寧: 지금의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 이포)으로 물러나 살았다. 거처를 봉서정(鳳棲亭), 또는 천녕강사(川寧江舍)라고도 하였다. 봉서정은 이집이 정계에서 물러나 시를 논하고 강학하던 곳이다. 포은 정몽주가 둔촌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강(驪江)이 내가 즐기는 곳이라는 것은 선생도 아시는 바인데, 의외로 선생께서 나를 앞질러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도은(陶隱)과 함께 필마로 가서 찾으려 하는데 소원과 같이 된다면 천녕에서 마땅히 하룻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였다. 목은 이색도 이곳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이집이 향년 61세로 1387년 서거한 뒤 오래지 않아 퇴락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이씨 대중회에서 원래 유허지를 알 수 없어 1994년 이곳 부지를 매입하고 1995년 10월 정면 3칸, 측면 2칸 겹처마 2층 누각을 새로 지었다. 누각 안에는 [鳳樓亭復元記]가 걸려 있다.

영월루(迎月樓)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상리 산 126-6번지
- 시 대 : 근대
- 소유자 : 여주군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지붕은 겹처마
- 기 타 : 1925년 이건

여주군청 관아 정문이었으나 1925년 당시 군수였던 신현태(申鉉泰)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 세웠다고 하는데, 현판은 동창 원충희(東滄 元忠喜)가 썼다. 원래 여주관아의 아문(衙門)은 1870년(庚午) 여주 부사 이인응(李寅應)이 쓴 [衙舍門樓記]에 따르면 ‘畿左第一樓’의 5자로 편액되어 있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난 뒤 여주가 중진(重鎭)으로 대우받으면서 대대적인 중건을 하게 될 때 여주아문도 새로 조성되었다. 동헌의 정당(政堂)의 누헌(樓軒)은 ‘三清樓’로 청심루의 왼쪽에 있었다.



남한강을 굽어보는 자리로 이전해 세운 영월루는 관아 정문의 재목을 갖다가 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자는 새로 지은 것으로 전형적인 중층 누각의 형태로 정면3칸, 측면 2칸에 겹처마집이다. 주춧돌은 정면 4개, 중간 가장자리 2개, 끝 4개로 총 10개로 초석은 제대로 치석을 하였다. 전체 기둥은 원형이나 가운데 기둥 2개는 고주(高柱) 형태로 4각 기둥을 하고 있다. 누각마루로 초석 사이 기둥마다 날개장식이 멋지게 장식되어 있다. 記文 등은 없다.



범사정(泛槎亭) 터

- 소재지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 시 대 : 조선시대

모재 김안국(慕齋 金安國)이 이천 주촌(注村, 注叱洞), 즉 지금의 이천시 부발읍 죽당1리 좃골로 퇴거한지 9년째인 1528년(중종 22, 무자년) 봄에 여주 천령(川寧) 이호촌(梨湖村), 지금의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로 거처를 옮겼다. 이듬해인 1529년 범사정을 지었다. 그리고 은거 16년이 되는 1535년 다시 장호정(藏壺亭)을 지었다고 한다.

현재 이포리에는 ‘모재선생 문경공 부조묘’가 있다.

화양정(華陽亭) 터



- 소재지 : 여주군 대신면 천서1리
- 시 대 : 조선시대

1872년 지방지도에는 화양정이 표시되어 있다.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천서리는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는데 ‘해영정’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화영정’과 관련이 있는것 같다. 남한강변으로 ‘너른바위’로 불리웠던 넓은 암반 위에 화양정이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대신석재’ 맞은편으로 농업취수장이 서 있는데 그 곳이 화양정이 있던 자리로 추정된다.

본래 천서리는 신래천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불리게 되었다. 자연마을로 화영정·왕태울·소송골 사거리·멧말·느내·나란 등의 마을이 있다. 일제시대 때부터 천서리 인근 지역에서 가마니 공판장이 열렸는데 주변에 접대부가 있는 술집이 많았다. 천서리는 여주 팔경 중의 한곳으로 60년대에는 호밀과 참밀·콩·조 등을 심어 주곡으로 했으며 강가에서 생선을 잡아 이천 등지에 팔면서 생활을 해오던 곳이다. 이 지역에는 강원도와 서울을 잇는 나루가 있어 자연스럽게 상업지역으로 발달옴하게 되면서 천서리 막국수촌이 형성된 것이다.

화양정으로는 서울 화양리에 화양정(華陽亭)이 유명한데, 1432년 최윤덕(崔潤德) 등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짓게 되었는데, 세종이 건립한 후 친히 편액까지 내린 정자로 이후 손자인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 유배될 때 전별연이 베풀어진 곳이다. 단종은 광나루에서 뱃길로 이동하여 여주 금사면 이포나루까지 와서 육로로 영월로 갔다. 따라서 화양정이 이포나루에서 양평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음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침류정(沈流亭) 터



- 소재지 : 여주군 대신면 금사리
- 시 대 : 고려시대

침류정은 고려 때 천령현 금사리에 있었다. 침류정은 염흥방(廉興邦, ?~1388)의 별서로 침류정 마을은 염정승동, 염정승평, 염정승굴 등 염흥방과 관련한 지명이 많이 남아 있다. 침류정 마을에서 염흥방은 시가를 즐기며, 당대 명사들(유항·둔촌·평재·척약재 등)과 조정의 친구들로 도의와 충절을 숭상했다.

염흥방은 곡성부원군 염제신의 아들로 파주 염씨의 2세로 추앙받고 있다. 그리고 무진참화 후에 이곳은 염흥방의 1남 염치함과, 2남 염원보의 도피처와 정착지였다.

그 후 염씨들의 후손들이 여주 금사면 용담리, 이포나루 근처에 살면서 '용담 염씨(龍潭 廉氏)'로 불리웠다.

김구용의 시에 "먼 남국에 놀음이 이미 3년인데 깃발을 예천에서 금사로 옮겼네. 伊菴의 유적이 있으니, 침류정 위에 책 베고 조노라"라는 구절이 있다. 침류정은 또한 이암 권하(伊菴 權賀)와 관련이 있다.

여주지역의 기록에만 있는 누정은 천녕(川寧) 이집의 봉서정 인근에 목은 이색의 염정당(廉政堂)과 척약재 김구용의 육우당(六友堂)이 있었다.

《동여비고》에 마암(馬巖) 옆으로 사우당(四友堂)이 표시되어 있고, 유선대(遊仙臺)가 나와있다.

신득함(申得涵)의 임정(林亭)도 남한강 교암(交巖) 소재 강서(江墅)로 김안국과 관련이 있다.

모정(茅亭) 터

- 소재지 :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모정산
- 시 대 : 조선 후기

모정은 조선후기 병조참판을 지낸 정래주(鄭來周, 1680-1745)가 건립하였다고 하나 퇴락연도는 알 수 없다.

차탄천(車灘川) 이 모정이 있던 모정산을 휘돌아 내려가는데 천변의 절벽이 아름답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이 정자의 이름이 ‘침류정’(枕流亭)으로 되어 있다.

“모정은 연천 관아에서 동쪽으로 15리 거리인 불견산(佛見山) 아래에 있는데 참판 정래주가 우거하던 곳으로, 지금도 이곳에는 그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광무연간에 발간된 읍지에 나온 설명이다.

전하는 말로는 일제 강점기 때까지도 연천에서 손꼽히는 경승지였다고 하는데 미수 허목(許穆, 1595-1682)의 고택인 은거당과 비교하여 1 모정, 2 은거당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사미정(四美亭) 터



- 소재지 : 연천읍 읍내리
- 시 대 : 조선 후기

사미정은 연천현감 신유한(1681-1752)이 옛 읍 관아 앞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지금도 연못의 흔적이 남아 있고 선정비도 있어 옛 관아터라고 추정할 수는 있으나 정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알 수 없다.

휴암정(休菴亭) 터



- 소재지 :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 시 대 : 조선 중기

휴암정은 유학자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이 임진강 징파나루[澄波渡] 부근에 세운 정자이다. 징파나루 절벽에는 ‘白休菴公釣臺’ 등의 암각문이 있으며 휴암공의 현손(玄孫) 백이규(白以圭, 1636-1702)가 휴암정에 다니면서 심었다는 300여 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정자 터가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남송정(楠松亭) 터



- 소재지 :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 시 대 : 고려 말

남송정은 고려말 도원수 현문혁(玄文赫)이 관직에 나가기 전 지은 정자로 학문의 기틀을 닦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1895년에 발간된 읍지에 ‘이미 정자는 폐허가 되고 유지만 남아 있다’ 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확실한 퇴락 연대를 알 수 없다. 남송정 터에는 200여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서 있으나 정자의 유구는 남아 있지 않다. 이 주변은 상습 침수지역에 속하는데 남송정 터는 얕은 언덕 위에 있다. 남송정 터에서 보면 서쪽으로 흘러 내려온 임진강이 커다란 굴곡을 그리며 남쪽으로 향한다.

근처에 현문혁의 제향을 받드는 남송사(楠松祠)가 있다.

수월정(水月亭) 터

- 소재지 :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추정)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화석정의 상류에 위치한다는 《적성현지》의 기록이다.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이곳에 정자를 건립하고 소일하였다고 한다.

연천군에는 은행정(銀杏亭, 현가리 도당골), 학소정(鶴巢亭, 전곡읍 은대리), 강선정(降仙亭, 백학면 도곡리), 반륜정(半輪亭, 미산면 마전리), 삼계정(三溪亭, 중면 도연리) 우화정(羽化亭, 중면 대사리)등의 정자 터가 있으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거나 북한 지역에 들어 있다.

사은정(四隱亭)



- 소재지 : 용인시 기흥읍 지곡리 615
- 시 대 : 조선초기
- 소유자 : 사유(한산이씨 음애공파종중, 한양 조씨 회곡공파종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 기 타 : 향토유적 제50호(2001. 3. 지정)

지곡리 두암산 아래 사은정 고개 도로변에 동남향하고 서 있다. 사은정은 본래 조선 중종 때 명현이며 성리학의 대가이자 동방 7현 중 한 사람인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 1482~1519)와 그 종형제로 식견이 높았던 방은 조광보(方隱 趙光輔)·회곡 조광좌(晦谷 趙光佐) 형제와 목은 이색의 후손인 음애 이자(陰崖 李紆, 1480~1533) 등이 도의로 벼를 맺고 경서(經書)의 뜻을 강론하고 밝히면서 서로 즐거워하던 곳이다.

정자를 사은이라 한 것은 은거하여 "밭갈고, 나무하고, 낚시질하고, 나물캐는" 4가지 즐거움의 뜻을 취하였다.

1796년(정조 20)에 정암 후손 조국인(趙國仁), 음애 후손 이두연(李斗演), 회곡 후손 조홍술(趙弘述)이 의논하여 중창하였다. 정범조(鄭範祖)가 지은 [사은정기(四隱亭記)]와 민종현(閔鍾顯)이 지은 [중수사은정기(重修四隱亭記)]가 있다. 1864년(고종 1) 봄에 다시 후손 조국형(趙國衡), 이인규(李麟圭)가 퇴락한 정자를 중창하기 시작하여 1866년(고종 3)에 완성하였다. 이때의 일은 장례원 장례였던 이용구(李容九)가 지은 [사은정중수기(四隱亭重修記)]에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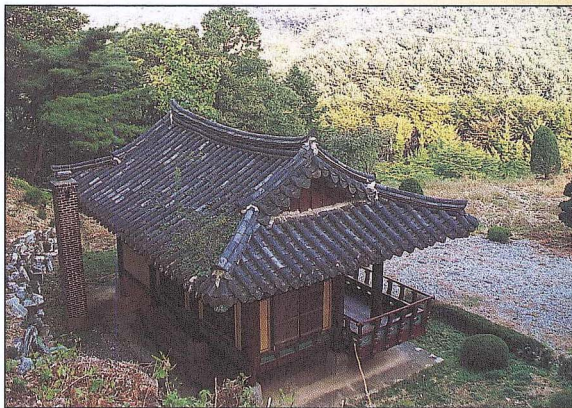
사은정은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 때 죽음을 당한 정암 조광조와 파직 당한 음애 이자 등이 강학하던 16세기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용인지역을 대표하는 유서 깊은 정자이다. 사은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전면에 퇴칸을 달았고 팔작지붕에 한



식 골기와를 얹은 한옥이다. 오른쪽에는 온돌방을 두었고 왼쪽은 대청으로 이루어졌다.

사은정 내에는 민중현의 [중수사은정기], 이용구의 [사은정중수기], 정범조의 [사은정기]와 현액 1좌가 있다. 도암 이재선생이 이곳에 들렀다가 지은 시가 읍지에 전한다.

새로 중수한 사은정의 상량을 보면 ‘檀紀 4323年 己巳7月27日 庚申’으로 1989년 다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신정(新亭) 터

- 소재지 :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구성읍사무소
- 시 대 : 조선시대

1460년(세조 6) 용인현감 박거명(朴居明)이 관아에 정자를 새로 지었다. 용인은 서울과 인접하고 삼남지역과 연결되어 남북을 잇는 인후(咽喉)임에도 객관이 작아 손님에게 불편하였기 때문이다. 정자를 만들고 난 후 박거명은 김수녕(金壽寧)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기문을 짓고 난 뒤 다시 정자 이름을 부탁한 바, ‘신정(新亭)’이라 명명하였다. ‘신정’은 용인 백성이 우러러보며 새로 지은 것을 경축하는 뜻에서 지은 것이다. 용인현 관아에 세워진 것으로 지금의 구성읍사무소 자리로 추정된다.

양벽정(漾碧亭) 터



- 소재지 :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구성읍사무소
- 시 대 : 조선시대

1499년(연산군 5) 용인현감 김우(金祐)가 3칸 짜리 정자를 용인 객사 마당의 연못 위에 반이 걸치도록 지었다. 당시 영남 절도사였던 안침(安琛)이 ‘양벽정’이라 이름지었고, 홍귀달(洪貴達)이 기문을 지었다.

원래 정자는 객현 동쪽에 옛부터 조그만 규모로 있었으나 없어져 터만 남았던 상황이었다. 1497년 용인현감으로 부임한 김우가 관사를 새롭게 수선하면서 동쪽 담을 물리고 땅을 넓히고 연못을 만들었다. 북쪽에서 흘러내리는 산골 샘물을 동쪽으로 끌어서는 담을 뚫어 연못에 흘러들게 했던 것이다. 연못의 깊이는 한 길쯤 이고 세로는 두어 발, 가로는 세로의 곱절이었다. 새로 만든 연못의 품격과 정자의 정취가 아름다웠던 것 같다.

김종직의 《점필재집》에는 ‘용인의 원정에서 잠깐 쉬다[龍仁園亭小憩]’라는 시가 있다.

아름다운 연(荷)은 만 줄기나 되고
 술그릇엔 수사(水麴)의 향기 그윽해라
 작은 고기들은 헤엄치며 뛰놀고
 부평초들은 언뜻 틈새를 이루기도 하는데...

연못의 풍경과 정취를 잘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김종직이 쉬었던 정자는 양벽정이었던 것 같다. 양벽정은 지금의 구성읍사무소가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서정(鳳瑞亭) 터



- 소재지 : 용인시 백암면 박곡리 500
- 시 대 : 근대



봉서정은 박곡리의 대지주였던 함안 이씨 이하중(李河鍾)씨가 세운 정자이다. 정자는 마을 옆 자신의 저수지 위에 8각형 정자로 운치있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정자 앞에는 1937년(소화 12) 2월에 세운 [委員 李河鍾施惠紀念碑]가 서 있다.

이후 저수지는 논으로 풀었고, 정자는 몇 년전 아들 이순묵(李淳默)에 의해 철거되었다.

음고정(吟古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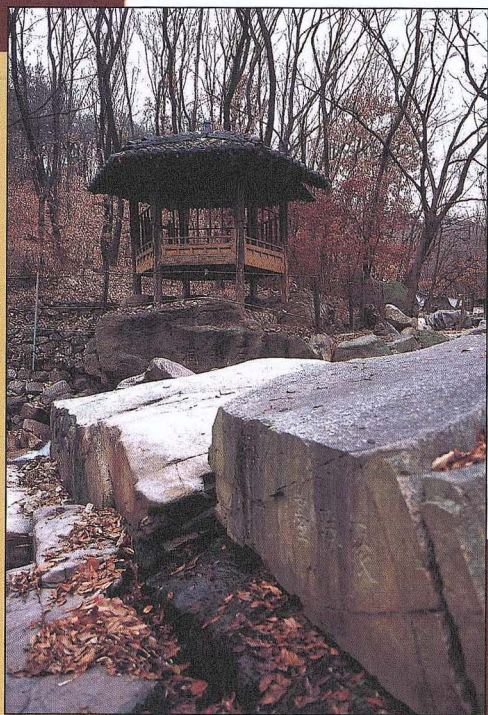


- 소재지 :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85
- 시 대 : 근대(1996. 6. 21)
- 소유자 : 경기도 박물관
- 건물규모 및 구조 : 중층의 8각정

음고정은 1996년 6월 경기도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지은 정자이다. 주초석은 8각인데 중앙 1개로 모두 9개 기둥을 하고 있는 8각정으로 8개 계단을 오르면 격자형 마루와 우물천장이 돋보인다. 용틀임의 판자를 한 기둥마다 주련이 걸려있는 점도 특이하다. 난간은 계자난간으로 고급스런 느낌이다. 지붕은 겹처마로 편액은 서하 임창순(西河 任昌淳)이 썼다.



궐산정(簣山亭)



- 소재지 :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 입구 계곡
- 시 대 : 조선 후기
- 소유자 : 반남 박씨 종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육각형 목조 건물로 지붕은 원래 초가였으나 보수하면서 새로 기와를 얹었다

궤산정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거주하던 곳이다. 이 정자에서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할 때 위산구인공휴일궤「爲山九仞功虧一簣」(아홉 길 산을 만드는데 마지막 한 삽태기의 흙이 모자란다는 말)라는 뜻에서 이 정자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정자 밑



바위에는 서계유거「西溪幽居」(서계가 한적하게 산다), 취승대「聚勝臺」(경치 좋은 곳), 석천동「石泉洞」(돌과 샘이 어우러진 곳)이라는 선생의 친필 조각이 남아있다. 6각정 기둥에 걸린 주련(柱聯)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탐구진리서독지우궤산	(探究真理書讀之于簣山)
석백이수지이천석익백	(石白而漱之以泉石益白)
천청이류지이석천익청	(泉清而流之以石泉益清)
백학채운선부열봉야기	(白鶴彩雲仙臯列峰也奇)
선유도장토운제곡지승	(仙遊道藏吐雲諸谷之勝)
유상곡수시성어취승대	(流觴曲水詩成於聚勝臺)

청풍정(淸風亭) 터



- 소재지 :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산 입구 계곡
- 시 대 : 조선 후기
- 소유자 : 반남 박씨 종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남아있는 4개 주추의 크기는 높이 90cm, 아랫
폭 55~60cm, 윗폭 35~38cm이다. 주춧돌간
의 거리는 가로 2.2m, 세로 2.4m이다.



청풍정은 노강서원 아래에 있는 정자인데 지금은 주춧돌만 남아 있다. 서계 박세당이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을 추모하기 위하여 충열사(忠烈祠)를 짓고 그 앞에 청풍정(淸風亭)을 세워 제자들과 함께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다.

박세당이 지은 청풍정기(淸風亭記)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정자 아래 맞은편 계곡 바위에는 [수락통천(水落洞天)]이라는 매월당 김시습의 친필이 남아 있다. 그가 세상을 비웃으며 전국을 유랑할 즈음 이곳 수락산에 머물고 있을 때 남긴 필적이다.”

죽남루(竹南樓) 터



- 소재지 : 이천시 장호원을 선읍리 팽곶말
- 시 대 : 조선시대

죽남루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객사 동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객사가 있던 자리에서 보면 들판이 펼쳐지는 끝트머리에 선읍리 팽곶말 뒷산이 위치하는데 지금은 과수원이 조성되어 있다. 과수원의 넓은 터와 아래로 가파른 암벽이 위치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자 터에서 보면 산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과 넓게 트인 들녘은 정자가 섰음직한 풍광이다. 정자 앞쪽 들판에는 10년 전에 조성된 장호원낚시터와 콘크리트 강관을 만드는 홍일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앞쪽으로 제법 넓은 시냇물이 흐른다.

애련정(愛蓮亭)



- 소재지 : 이천시 안흥동 404번지
- 시 대 : 조선시대
- 소유자 : 사유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3칸, 측면 2칸, 중층 겹처마 팔각지붕
- 기 타 : 향토유적 제15호(1997. 8. 1. 지정)

처음 건축된 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원래 객사 남쪽에 예부터 정자가 있었는데 작고 좁은데다 몇 년간 수리하지 않아 퇴폐하였는데, 세조 12년(1466년) 이천부사 이세보(李世瑠)가 옛 정자가 있던 자리에 새로 정자를 지었다. 정자 아래 습지를 모나게 연못을 파 연꽃을 심고, 정자 이름을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에게 부탁하여 애련정(愛蓮亭)으로 하였다. 당시 기문은 임원준(任元濬)이 지었다. 애련정은 원래 객사의 남쪽, 즉 동헌의 동쪽이자 연지(蓮池)의 남쪽에 위치하였다.

이후 1523년 이천부사 이순언(李純彦)이 이천의 물산이 풍부함에도 창고가 작아 새로 지었는데, 남은 자재로 퇴락한 애련정을 연지의 북쪽으로 옮겨 다시 지었다. 이때 정자의 이름을 옛 이름 그대로 애련루(愛蓮樓)라 하고 김안국에게 기문을 청해 [애련루기(愛蓮樓記)]를 지었다. 따라서 한때 애련정은 애련루로 불리웠던 것으로 보인다. 1523년 이후 애련정은 객관의 동쪽(연지 북쪽)에 위치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셈이다.

여주 세종대왕의 영릉을 참배하고 돌아가던 길에 역대의 국왕들이 애련정을 찾았는데, 중종이 1528년 10월 17일 이곳에서 양로연을 베푼 기록이 있고, 숙종과 영조·정조가 각각 방문한 기록이 있다.

애련정에는 사가 서거정(四佳 徐居正), 풍월정 월산대군(風月亭 月山大君), 매계 조위(梅溪 曹偉), 퇴어 김진상(退漁 金鎭商) 등의 제영이 걸려 있다.

숙종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비고(東輿備攷)》에 애련정은 이천지역을 대표하는 정자로 표시되어 있고,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의하면 이천의 제언으로 유일하게 안흥지(安興池)가 표시되었는데 둘레가 1250척(약388m)으로 부 동쪽 5리 지점에 안흥리 제언이 있다고 하였다.

1871년에 편찬된 《경기읍지(京畿邑誌)》에 수록된 [이천부읍지(利川府邑誌)] 등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세월이 흘러 여러 해 동안 퇴폐하였던 것을 1728년(영조 4, 戊申年)에 다시 중건하였다. 정사년 겨울에 불이나 무오년 봄에 고쳐지었다고 되어 있으나 정확한 연대를 확인하기 힘들다.

1907년(융희 1) 정미의병 때 일본군에 의해 불타 없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1998년에 재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천의 애련정은 1692년(숙종 18) 창덕궁 후원에 지어진 애련정과 평양 금수산에 위치한 애련정과 더불어 유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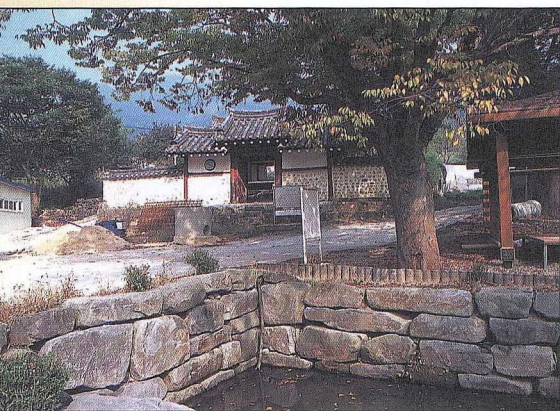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문집을 살펴 보면 김안국·월산대군·서거정 외에 조위·강경서·김진상 등이 애련정을 소재로 한 시가 남아있다.



육괴정(六槐亭)



- 소재지 :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735번지
- 시 대 : 조선 중종
- 소유자 : 영월염씨(寧越嚴氏) 종중(宗中)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9m, 측면 3.78m의 목조 건물,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
- 기 타 : 이천시 향토유적 제13호(1986. 4. 14. 지정)



조선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로 조광조를 중심으로 지치주의와 이상정치를 추구하던 신진사류들이 크게 몰락하였다. 이때 난을 피해 낙향한 남당 엄용순

이 건립했다는 정자이다.

처음에는 초당이였으나 그 후 수차례의 증진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육괴정이란 이름은 당대의 명현인 모계 김안국을 비롯 규정 강은, 계산 오경, 퇴휴 임정신, 성두문, 엄용순 등 여섯 선비가 모여 시회와 학문을 강론하며 우의를 기리는 뜻에서 정자 앞에 못을 파서 연을 심고 각각 한 그루씩 모두 6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연못은 많이 메워지고 6그루의 느티나무 중 3그루가 또한 고사하여 후손들이 다시 심어 지금도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의 건물은 팔작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은 본당과 이를 둘러싼 담장과 대문으로 되어 있어 정자가 아닌 사당의 형태이다. 본당의 규모는 정면이 9m, 측면이 3.78m이다.

본당 안에는 엄용순의 손자로 임진왜란때 순절한 엄유운(嚴惟尹)의 충신정문을 비롯하여 「南塘嚴先生六槐亭序」, 「六槐亭重修記」등의 현액이 걸려 있다.

엄유운은 임진왜란(壬辰倭亂)이 일어나자 백의서생(白衣書生)으

로 의병을 이끌고 세종대왕(世宗大王) 영릉(英陵)을 호위하다 삼일대전(三日大戰)에 활이 떨어져 여주강(驪州江)에 몸을 던져 순국(殉國)하였다.

이에 1893년(고종 30)에 통정대부 이조참의(通政大夫吏曹參議)에 증직되면서 정려문이 내려져 육괴정(六槐亭)에 걸려 전해 오고 있다.

정문(旌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忠臣 贈 通政大夫 吏曹參議 嚴惟尹之門 癸巳 命旌

또한 김안국은 42세인 1519년(중종 14) 기묘사화로 조광조 일파가 숙청을 당함에 따라 관직을 잃고 이천으로 내려와 부밭을 짓골에 은일정(隱逸亭)과 동고정(東臯亭)을 짓고 은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화석정(花石亭)



-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울곡리 산100
- 시 대 : 조선 중기
- 소유자 : 사유(유림)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겹처마, 초익공 목조와즙 건평8평
- 기 타 : 경기도유형문화재 61호(1974.6.26.지정)

화석정 관련자료를 보면 원래 고려말의 유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약은(冶隱) 길재(吉再)의 유지(遺址)라고 전한다. 그러나 1871년(고종8)에 만들어진 《경기읍지(京畿邑誌)》 파주군편 〈화석정〉기록에는 「在州北十七里臨津南岸知敦寧府事康平公德水李明晨耑始卜居其長孫通判宜碩重修通判之曾孫文成公李珥拓基重修以爲讀書養德之所亭下洞名栗谷故學徒稱栗谷先生」로 되어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화석정은 파주관아에서 북쪽으로 17리 임진강 남쪽언덕에 있으며 지돈령부사를 지낸 강평공 덕수이씨 이명신이 비로소 처음 정자를 창건하여 살만한 곳으로 정한 정자임을 알 수 있다. 그후 그의 장손인 의석(宜碩)이 중수했고 의석의 증손인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선생이 터를 열어 중수한 이후 독서와 덕을 기르는 곳으로 삼았다는 기록이다. 율곡선생은 국사의 여가와 퇴관(退官) 후의 여생을 이 정자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시와 학문을 논하였으며 중국의 사신도 율곡선생을 정자로 찾아와 음시청유(吟詩淸遊)하였다고 한다. 정자의 일대에는 노송이 우거지고 아래에는 임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어 낮에는 범선이 밤에는 고기잡이 배들의 불빛이 끊어지지 않는仙境(仙境)이었다고 한다. 정자에 걸린 율곡선생의 8세기 현액(縣額)에서 시공(時空)을 초월한 선현의 정신세계와 절경(絶景)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정자는 임진왜란때
회진되어 다시 세웠으나
6.25 한국전쟁때 불타버
린 것을 1966년에 복원하
였다. 창건당시의 양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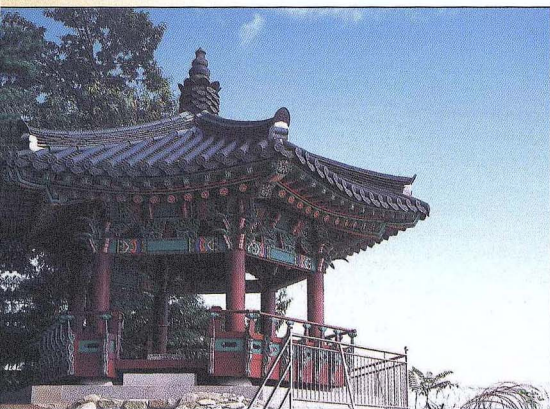
살려 팔작지붕 겹처마에 초익공집으로 조선시대건축양식을 재
현하였다. 제3공화국시절 복원되었음을 말해주는 “화석정”현
판은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휘호로 되어있다.

임진왜란당시 선조(宣祖)이하 조정백관이 의주로 파천할 때
비오는 밤중에 임진나루를 건느게 되는데 이때 화석정에 불을
놓아 무사히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이는 선각자 율곡
선생을 회자하는 일화일 뿐 그렇지 않다. 《징비록(懲毖錄)》
에서 밝힌 내용으로 바로 잡는다. “임진강에 이르도록 비는 몇
지 않았다. 이때 임금은 배안에서 수상과 나를 불러 보셨다 강
을 건너니 이미 황혼이 지나 길을 찾기가 몹시 힘들다. 임진강
남쪽 기슭에 옛날 승청(承廳)이 있었다. 적이 그 재목을 베어다
가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너올까 두려워 우리는 이 재목에 불
을 놓게 하니 불빛이 강 북쪽까지 비쳐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 초경이나 되어서 동파역(東坡驛)에 이르렀다.”

반구정(伴鷗亭)



-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190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장수 황씨 사목종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정면 2칸, 측면 2칸, 초익공 양식의 외집
- 기 타 : 경기도문화재 자료 제12호(85.9.16.지정)



반구정은 원래 낙하정(洛河亭)이라 하였으나 황희(黃喜) 선생이 관직을 은퇴하고 이곳에서 유유자적 갈매기와 벗함으로부터 반구

정이라 하였다.

반구정은 팔도유림들이 선현을 추모하는 유적으로 수호하여 왔으나 6.25한국전쟁때 회진되었다.

후손들이 정면2칸 측면2칸의 초익공 양식의 건물로 복구 한 것을 1967년에 단청과 축대를 설치, 면모를 일신하였다. 반구정과 몇칸 사이를 두고 잇대어서 양지대(仰止臺)가 있는데 근래에 세운 건물이나 건축기법은 고건축의 양식을 따랐다. 이 건물 또한 황희정승의 반구정을 기리는 이고장 유림의 뜻으로 건립되었기 기록으로 남긴다. 황희는 고려말 조선초의 문신으로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尙村) 본관은 장수(長水)다.

1383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1389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학관(學官)이 되었다.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은거했으나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년(태조 3)에 성균관 학관으로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임, 그 후 여러 직을 거쳐 형조, 병조, 예조, 이조, 호조판서를 역임했다.



1416년(태종6) 양녕대군의 세자폐출을 반대하다 공조판서로 전임되었고 이어서 판한성부사가 되었으나 1418년 세자가 폐출되고 충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에 반대하여 서인(庶人)이 되어 교하(交河)로 유배되었다. 이 교하땅에 후일 반구정이 세워졌다. 이곳에서 다시 남원(南原)으로 유배되었다가 1422년(세종4)에 풀려나와 재임하면서 농사의 개량, 예법의 개정, 천첩소생의 천역면제등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황희선생의 인품을 그대로 함축한 시(詩) 한편을 여적으로 남긴다. 혹시 은퇴 후 노년을 유유자적했던 반구정에서의 시가 아닌가하여 관련문헌을 섭렵했으나 단 두편의 시 모두 작품배경이 어디인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초볼 불근 골에 밤은 어이 뜻드르며
 버 벤 그르헤 게는 어이 내리는고
 술 닉자 체 장사 도라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강호(江湖)에 몸이 드니 이 몸이 일이 하다
 나는 그물 낚고 아희는 밧줄 가니
 뒷 뒤희 업나라는 약을 언제 캐랴 하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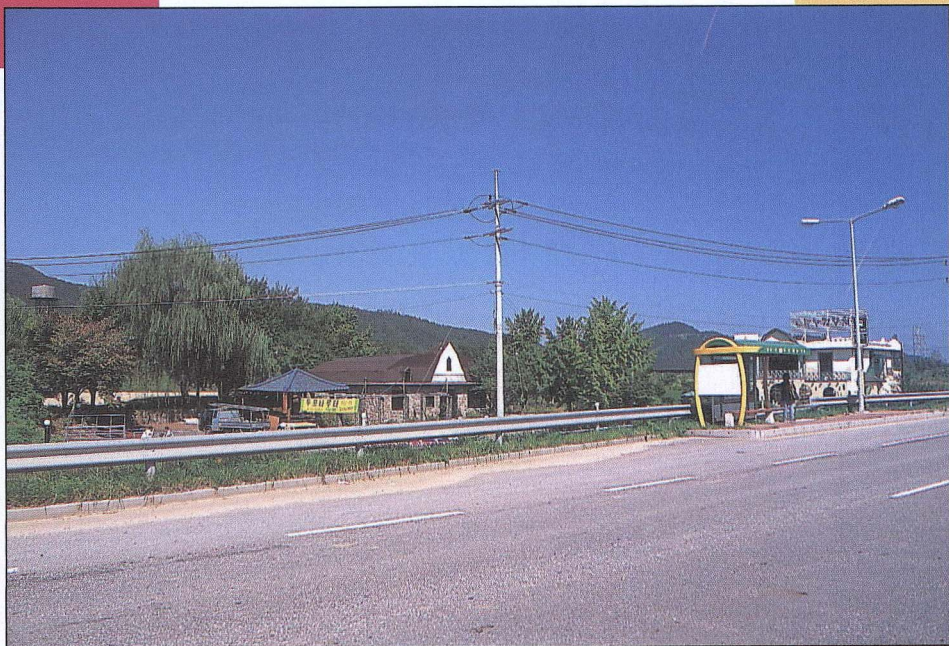


래소정(來蘇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파주목읍지》에 의하면 임진도(임진나루) 하류 남안인 문산읍 장산리의 임진강가에 있었다고 한다. 거창부원군(居昌府院君) 신승선(愼承善)이 퇴임후 임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어귀에 이 정자를 세우고 은거한 곳이다. 일명 소래정이라고도 한다. 이 내소정에서 지은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의 내소정팔경시(來蘇亭八景詩)가 전해 온다. 남용익은 숙종때의 명신으로 통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마도주가 관백전당(關白殿堂)에 참배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굴하지 않고 도리어 도주(島主)를 설득하고 돌아왔다. 인현왕후(仁顯王后) 폐출 때 명천(明川)으로 귀양갔다가 적소에서 죽었다. 대제학 이조판서를 지냈고 문헌공(文憲公)의 시호를 받았다. 이 팔경시(八景詩)는 파주시의 명승(名勝)을 거의다 노래한 절창시(絶唱詩) 일뿐 아니라 그 명승지 또한 당대의 명현 석학이 교유(交遊)하던 정자(亭子)로 이곳 정자에 얹힌 풍류세정(風流世情)이었다는 점이 이채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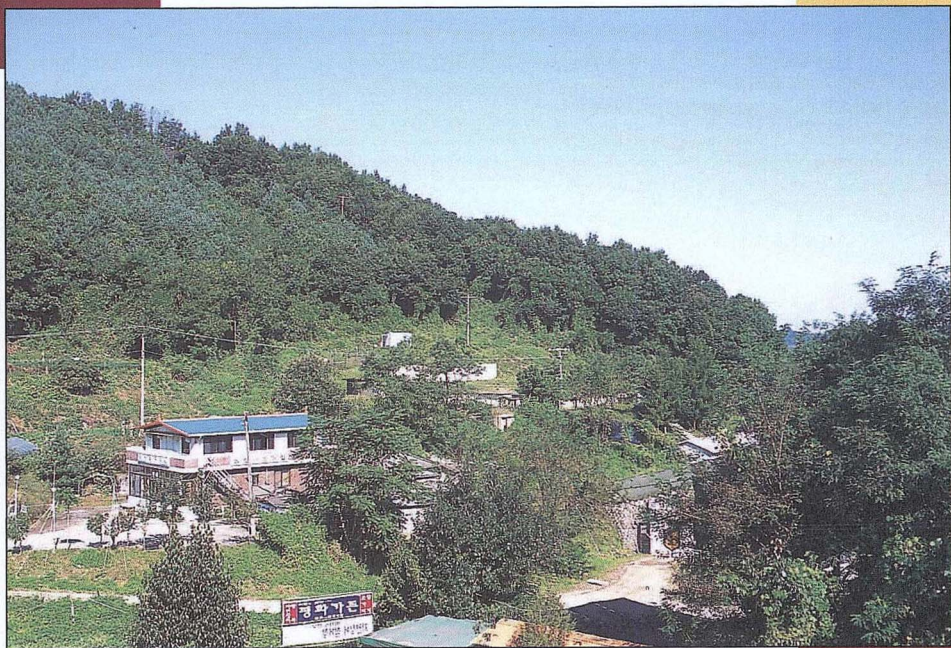
몽구정(夢鷗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472-26(장개나루터)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창녕 성씨 회곡공(穡谷公)파 문중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몽구정은 웅담리에서 흘러내리는 늘노천과 우계(牛溪)가 합류하여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어귀에 세워졌다고 한다. 계유정난(癸酉靖難)이후 성담수(成聘壽)가 이곳에서 은거하였다고 하며 지금의 파평면 파평초등학교 서쪽의 임진강안 석벽위에 있었다. 두포리의 자연마을인 장포동에 몽구정터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이곳은 경치가 아름다워 중국의 소선적벽(蘇仙赤壁)과 비교 되었으며 장단적벽(長湍赤壁)중에서도 이 정자가 위치한 파주적벽(坡州赤壁)이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적성현지》의 기록이다. 이곳에 은거했던 성담수의 몽구정시가 전해온다.

임진정(臨津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울곡3리
- 시 대 : 조선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임진나루 옆에 있었던 정자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읍지》에 파주관아 북쪽 17리 지점에 있는 임진도(臨津渡)남쪽의 언덕에 그 터가 있다고 하였다. 임진정은 임진나루를 오가는 길손들이 이곳에서 쉬어갔고 또 시도 많이 남긴 곳이다. 임진정이 있었던 임진도(임진나루)는 파주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루로서 관북과 관서지방으로의 분기점이 되었으며 임진진(臨津鎭)을 두어 관리하였고 중앙정부의 충융청에 소속되었다. 《대동지지》파주조에 주의 북으로 15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나루는 장단과 경계를 이루며 임진현 동쪽의 나루가 된다고 《신증동국여지승람》장단조와 《장단읍지》에 기록되었다.

일송정(一松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추정)
- 시 대 : 조선 후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몽구정(夢鷗亭)의 상류에 위치하였고 현석(玄石) 박세채(朴世采)가 은둔하였던 곳이다. 한그루의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이 정자가 자리잡은 곳은 고령산과 장지산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합류되어 굽이쳐 흐르는 광탄 어귀로서 경치가 아름답고 한적한 곳이었다.

칠송정(七松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추정)
- 시 대 : 후삼국, 고려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적성 이천(二川)의 큰 길 옆에 흙둔덕이 있어 어대사(魚岱沙)라 하는데 이곳을 칠송정이라 하였다. 궁예(弓裔)가 철원(鐵原)에 도읍을 정하였을 때 휴게소가 되었던 곳이고 고려 태조가 내왕한 곳이다. 지금의 탄현면 갈현리로 추정되는데 백강(白江) 이경여(李敬輿)가 광해군 때 낙향하여 은둔하였던 곳이기도 하다.

원사정(遠思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관골마을(추정)
- 시 대 : 조선 중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신지강 상류에 그 터가 있다고 전해온다. 적성면 구읍리 관골 북서쪽의 임진강변으로 추정된다. 진사 경유후(慶有後)가 인목대비의 유폐시에 세상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했다고 《적성군읍지》에 전한다.

강선정(降仙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임진강 북안
- 시 대 : 고려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적성 술탄(戍灘) 북쪽 언덕에 있었다. 석축이 사방전답에 흩어져 옛터가 남아 있다고 전해본다. 적성면 주월리 임진강의 북안에 있는 고려조의 왕과 신하들이 신선이 내려올 정도로 경치가 좋은 곳이라 하여 이 곳에서 즐겼다는 《적성현지》의 기록이 있다.

취옹정(醉翁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추정)
- 시 대 : 조선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적성면 마지리 청학동(靑鶴洞)의 청학폭포사이에 있는 큰 바위 위에 현의 이속과 주민들이 재목을 모아 정자를 지어 취옹정이라 하였으며 이곳에서 더위를 피하였다고 한다.

이사정(二泗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 시 대 : 조선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주내에서 남쪽 10리 응암(鷹岩) 현암(絃岩)사이에 있었다. 현령 신태동(辛泰東-호는 백석(百石)이 건축하였고 이수(二水)가 합하는 곳이므로 이사(二泗)라 명명하였다. 지금도 터가 남아 있는데 정자동(亭子洞)이라 한다.

울포정(栗浦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적성면 울포리 울포마을
- 시 대 : 조선 중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적성면 울포리 울포 앞의 임진강 가에 있었다고 한다 인조때 정승 학곡(鶴谷) 홍서봉(洪瑞鳳)이 세우고 이곳에서 시를 읊으며 지냈다고 한다.

청계정(聽溪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청송(聽松) 성수침(成守琛)이 파평면 두포리 응담에서 샘내를 거쳐 흐르는 맑은 냇물과 임진강변의 조수물이 오르내리는 무정산 절벽 아래 정자를 세우고 학문에 전념하면서 후진을 양성했다고 한다. 성수침은 파주의 파산서원(坡山書院)에 제향(祭享)되었다.

심류정(沈流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 시 대 : 조선 후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심류정은 군내면 정자리의 덕진당과 정자포에 인접하였다고 한다. 당대의 명현 오천(梧川) 이종성(李宗城)이 자신의 고향 하천인 오천(梧川)이 임진강과 합류하여 덕진산 암벽에 부딪쳐 휘돌아가는 강언덕에 정자를 짓고 자주 내왕, 은거하였다고 한다.

동락정(同樂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동중학교 뒷편 동락사 터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동락정은 문산읍 문산리에 있었다고 한다. 고려말 조선초기의 문신이었던 조은(釣隱) 박은(朴崧)이 퇴임후 이곳 배내와 광탄천이 합류하여 흐르는 문산포 위의 파평산 서맥인 백운산 끝머리로 송림이 우거진 곳에 정자를 건립하여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은행정(銀杏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광탄면 창만리에 있었다고 한다. 지봉(芝峯) 황보인(皇甫仁)이 광탄 어귀 만장산 북맥의 끝머리 집 근처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 정자를 세우고 시와 경치를 즐겼다고 한다.

낙환정(樂還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
- 시 대 : 조선 중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팔여거사(八餘居士) 김정국(金正國)이 기묘사화 이후 이곳 조리면 봉일천리에 정자를 건립하여 저술과 후진양성에 힘썼다고 한다.

청은정(淸隱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산천재(山泉齋) 윤선거(尹宣舉)가 곡릉천이 흐르고 조수가 오르내리는 이곳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세우고 교하향교(交河鄕校) 훈도로 있을 때 인재양성과 저술에 힘썼다고 한다. 금릉리의 서원말 서북쪽 동산에 있었다고 하며 제자들이 이 정자터에 신곡서원(新谷書院)을 건립하고 배향하였으나 훼손된 후로 그 터만이 전해지고 있다. 윤선거는 소론의 중추가 된 윤증(尹拯)의 아버지이며 김집(金集)의 문인이었다. 문장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다. 신곡서원, 영춘의 송파서원, 노성의 노강서원 등에 배향되었다. 청은정 터는 지금은 밭으로 쓰이고 있으나 서원이 자리잡고 있던 대지는 옛 그대로이다. 청은정은 낮은 구릉의 남쪽 기슭에 곡릉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정(盧亭) 터

- 소재지 : 파주시 탄현면 구포
- 시 대 : 조선 초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 규모 및 구 : 모름

보진재(保眞齋) 노사신(盧思愼)이 탄현면 갈현리 구포에 정자를 세우고 집필에 힘썼다고 하며 교하 노씨(交河盧氏)의 정자(亭子)라는 의미로 노정(盧亭)이라 불렀다. 일명 영벽정(影碧亭)이라고도 기록 되었다.

금수정(金水亭)



- 소재지 :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547
- 시 대 : 조선 중기
- 소유자 : 군유
- 건물규모 및 구조 : 원래의 <금수정(金水亭) 터>를 보면 1984년 당시 만해도 네모로 된 주초석 8개만이 남아있었다. 1989년 포천군에 의해 5.2평 규모의 건물로 복원되었다. 원래의 주초석 8개 위에 원형의 기둥을 세워 우물마루에 난간을 돌렸으며 팔작지붕의 4모정 모형의 정자다.



금수정은 포천시 향토유적 제17호로 지정되었다. 포천의 영평팔경(永平八景)중의 하나이다. 화적연(禾積淵)·금수정(金水亭)·창옥병(蒼玉屏)·외룡암(臥龍岩)·낙귀정지(樂歸亭址)·백로주(白鷺洲)·청학동(靑鶴洞)·선유담(仙遊潭)이 그것이다. 금수정은 창수면 추동리 547번지에 소재한 정자이다. 영평천의 수면에서 약8m 되는 절벽위의 평평한 대지에 세워져있다. 이 정자의 처음 명칭은 우두정(牛頭亭)이다. 정자가 위치한 곳의 형상이 소의 머리(牛頭)를 닮았기 때문에 이름 붙인 것이다. 금수정과 관련되는 금석문을 이기(移記)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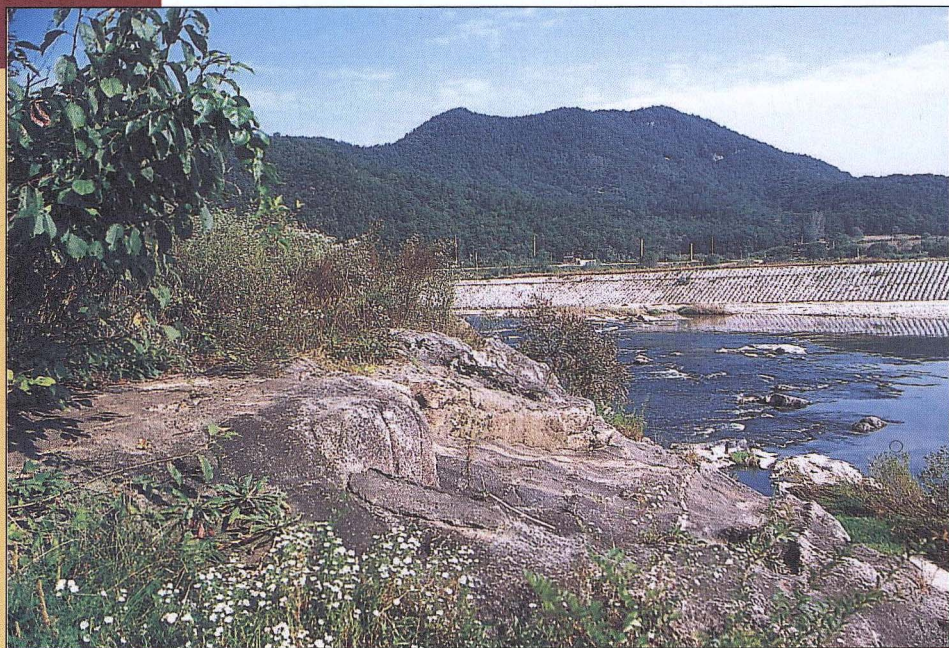
금수정 암각문은 다음과 같다

丹染靑楓枝	붉은 단풍은 푸른 나무가지에 들고
天香落桂子	천향은 계수나무 열매에 떨어지는데
不見眼中人	눈앞에 사람도 보이지 않으며
空餘石上字	부질없이 돌 위에 글씨만 남긴다

〈楊士彦〉

금수정은 “영평의 구읍지(舊邑址)와 인접한 서쪽7리에 있다. 옛날 부사로 있던 김확이 복축하였다.” 영평군읍지, 여지도서 또한 금수정은 “포천현의 서쪽 15리에 백운을 누르는 시내 돌언덕 위에 있다. 조선왕조때 양사언이 별축하고 매월 밤에 정자위에서 거문고를 타고 시를 지었으며 돌언덕에 각자(刻字)하였다.” 고 하였다.” 《동국여지지》

이양정(二養亭) 터



- 소재지 : 포천시 창수면 주월리
- 시 대 : 조선 후기
- 소유자 : 모름
- 건물규모 및 구조 : 모름



이양정의 모형과 규모는 알길이 없으나 이양정과 관련이 있는 옥병서원(玉屏書院)의 연혁을 참고

해 보면 이곳은 영평팔경의 하나였기 때문에 양사언을 비롯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창옥병(蒼玉屏)의 절경을 찾을 때 회동했던 장소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이곳 옥병서원 일원은 사암(思菴) 박순(朴淳)의 사위인 이택(李澤)의 택지였는데 장인인 사암이 벼슬을 버리고 영평에 머물 뜻을 알고는 자신의 터전을 내어준 데서 유래하고 있다. 박순은 영평에 은거하는 동안 창옥병의 경승지마다 이름을 붙이고 당대의 명필가인 한석봉의 필체로 암벽에 새기었는데 이때 새긴 암각문에 이양정(二養亭)이 있다. 글씨의 크기는 40×40cm이며 제작년대는 1588년(선조21)이다. 사암(思菴)의 이양정기(二養亭記)에 보면 “창옥병은 언제나 봄여름 할 것 없이 빠꾸기가 찾아와서 우는데 산이 비어 소리가 먼 곳까지 울려퍼져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한다 또다시 그 벼랑 위에 집을 세우고 이양정이라 이름하였다. 이는 이천(伊川)의 ‘양덕(養德)’과 ‘양체(養體)’를 뜻한다. 그 왼쪽을 보면 큰 암벽을 대하고 있고 그 오른쪽은 사대와 연결되어 있다.” 위의 기문으로 볼 때 이양정은 창옥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지은 정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양정’ 암각문은 정자를 지은 직후 제작된 것이다.

김수증(金壽曾)의 ‘제이양정벽(題二養亭壁)’ 시는 1700년대로 추측되는데 이는 김수증이 기사환국(1689년) 이후 조카인 김창집·김창협이 영평에 은거할 때 그도 창옥병을 자주 방문하게되는데 이때 남긴 시일 가능성이 짙다.

천보루(天保樓)



- 소재지 :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188
- 시 대 : 조선 정조 14년(1790)
- 소유자 : 용주사
- 건물 규모 및 구조 : 정면 5칸, 측면 3칸, 2층 팔작지붕
- 기 타 : 경기도 문화재 자료 36호



천보루는 현릉원(음릉)의 원찰로 지어진 용주사의 누각이다. 아래층은 대웅전으로 출입하는 통로가 되고 궁궐을 지을 때나 사용할 기둥같이 높다란 장초석(長礎石)이 건물을 받치고 있다. 천보루 아래로 누하진입(樓下

進入)할 때 기둥과 천정 등이 액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흐트러지는 시각을 대웅전에 모으는 역할(폐쇄시각 기법)을 한다.

도편수는 경상도 영천 은해사(銀海寺)의 승려 쾌성(快性)이, 단청은 강원도 삼척 영은사(靈隱寺)의 승려 팔정(八定)이 맡았다.

누각의 바깥쪽에는 천보루(天保樓), 안쪽에는 홍제루(弘濟樓)라고 쓰여 있다.

또한 누각은 좌우의 만수리실과 나유타로 등의 요사채와 회랑으로 연결되어 있어 궁궐 건축인 것처럼 보이고, 대웅전에서 보았을 때는 1층으로 보이면서 아늑한 마당을 구성해주어 절집의 분위기를 차분히 가라앉게 한다.



화 성 시



기러기, 사자,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는 여러 부처 여러 천신이
영원히 보호하고
소, 사슴, 양을 탄 선남선녀가
한결같이 귀를 기울이네

雁刑獅刑鵠刑諸佛諸天千劫護
牛乘鹿乘羊乘善男善女一時聽

연화계와 패엽경은 불이문중의 하늘 소리이고
향기로운 밥과 창포떡은 무량겁전의 비옥한 땅이라

蓮花偈貝葉經不二門中天籟
香積飯伊蒲饌無量劫前地肥

창건 당시 청장관(靑莊館)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지은
천보루 주련이다. 상량문은 '화성' 건설의 총리대신인 변암(樊巖)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지었는데 근래에 목판으로 새겨 걸
었다.



운금루(雲錦樓) 터

《신증동국여지승람》, (수원도호부) -누정- 조에 있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이 지은 기(記) 가운데,

“(수원)부의 치소(治所) 동북쪽 모퉁이에 옛 못이 있는데 황폐한 지가 이미 오래였다. 전성안(全城安)군이 부사가 되었을 때 개연히 복구하는 데에 뜻이 있어 이에 못을 파서 깊게 하고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서 새 정자를 산뜻하게 지었는데, 재물은 관가에서 나오지 않고 역사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았다. 완성이 되자 고을 사람들이 서로 돌아보며 놀라 말하기를 어떻게 그리 쉽게 이루어졌는가 반드시 귀신이 와서 도왔나 보다 어떻게 우리들을 부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였다. 아, 전군은 참으로 백성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세조 9년(1463)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지은 중수기도 수록되어 있다.

옛 수원부의 치소는 지금의 용릉 앞 숲인데, 운금루 자리가 어느 곳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상명정(尙明亭) 터

상명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양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고 하였다. 옛 남양 관아 터에는 남양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어 이 근처인 것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누정(樓亭)의 역사와 경기누정문화

鄭 勝 謨 (지역문화연구소장)





1. 머리말

누정을 세우는 기본 목적은 휴식과 유희를 위한 공간 확보에 두고 있지만 여럿이 무리를 이룰 때는 시회(詩會)나 계(契) 모임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감농(監農)의 장소로 사용되기도 한다. 과거의 누정 모습들은 다양한 회화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랜 역사를 갖는 정자와 누각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동문선(東文選)》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사륜정기(四輪亭記)〉 기사가 참고된다.

고려 말에 이규보는 이 정기(亭記)에서 '사방이 탁 트이고 텅

비게 만든 집'을 정자라고 하였다. 이를 정각(亭閣) 또는 정사(亭榭)라고도 하는데 사(榭)란 높은 언덕, 혹은 대 위에 건립한 집이란 뜻이다. 실제로는 정원 안에 있는 정자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정천(亭泉)은 연못 주위에 있는 정자를 말한다. 정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한 남성 위주의 휴식공간이다.

누(樓), 또는 누각(樓閣)은 사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문과 벽이 없이 다락처럼 높이 지은 집으로, 규모나 법식에서 정자보다 크고 화려하다. 누각에 비하여 정자는 작은 건물로서, 역시 벽이 없고 기둥과 지붕만으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놀거나 휴식할 장소로서 산수 좋은 높은 곳에 세운다. 누각과 정자(亭子)를 함께 일컬을 때는 정루(亭樓), 또는 누정(樓亭)이라고 한다. 대개 누각은 중층(重層)인 반면 정자는 단층(單層)이다.

2. 누·정에 관한 문헌 기록

기록으로 나타난 누정의 역사는 매우 깊다. 즉 삼국시대부터 궁원에 정자와 누를 지었으며 연회의 장소로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정자에 관한 기록의 처음은 신라 비처왕, 즉 소지왕 10년(488)으로 왕이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삼국유사(三國遺事)》(권1, 紀異 2, 射琴匣)에 실려 있다.

누(樓)는 대개 정자보다 규모나 법식에 있어서 상위에 있었다. 누와 관련해서는 백제 무왕(武王) 37년(636) 8월에 “망해루(望海樓)에서 여러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

록이 있는데 《삼국사기(三國史記)》(권27,〈百濟本紀〉제5 武王條, '燕群臣於望海樓')에 나온다. 다음의 기사는 기존 누각에 정자를 추가 건립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제 의자왕(義慈王) 15년(655) 2월에 “태자궁을 수리하는데 극히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하였으며 왕궁 남쪽에 망해정(望海亭)을 세웠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28,〈百濟本紀〉제6 義慈王條, '立望海亭於王宮南')에 실려 있다. 신라 무열왕(武烈王) 2년(655)에 “월성(月城) 내에 고루(鼓樓)를 세웠다.”고 하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권5,〈新羅本紀〉제5 武烈王條, '立鼓樓月城內')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기에는 위에서 언급된 이규보의 〈사륜정기(四輪亭記)〉가 있고 이에 앞서 의종(毅宗) 때 정서(鄭叙)가 지은 〈정과정곡(鄭瓜亭曲)〉이 있는데, 특히 후자를 통해 당대의 누정과 관련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조선에서의 정자 건축은 관아(官衙) 주도와 사가(私家) 주도로 구분되는데, 양자 모두의 경우 재정 낭비와 소나무 남벌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예컨대 문종 원년(1451)에 관찰사(觀察使)가 소나무 벌목을 금지하는 조목을 아뢰는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소나무를 금벌(禁伐)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고, 또 여러 차례의 수교(受敎)로 지극히 자세하게 되어 있으나, 각 고을의 관사(館舍)·누정(樓亭)에 정한 제도가 없으므로 모두 장려(壯麗)함을 숭상하여 옛집이 낮고 좁으면 기울고 썩었다는

평계로 반드시 새로 지어서 높고 크게 하니, 공재(公財)를 쓰고 민력(民力)을 다하여 세상에서 이름을 사고, 소나무가 거의 다 없어지는 것이 오로지 이 때문입니다. ……(中略)…… 새로 설치하는 고을 및 세월이 오래 되어 어쩔 수 없이 새로 짓는 것이 라면, 간각(間閣)의 다소(多少)와 동량(棟樑)의 장광(長廣)을 해당 부서로 하여금 법을 세워서 주·부·군·현(州府郡縣)의 차등을 두어 정수(定數)하여 정한(定限)을 넘지 못하게 하되, 어긴 자는 파출(罷黜)하소서. 민가(民家) 및 사사(寺社)에서는 잡목(雜木)을 쓰는 것을 허가하되, 만약에 소나무를 쓰는 자는 험하게 하고 과죄하소서.”(《文宗實錄》권8, 문종 원년 7월 16일 임자조)

조선시기에 발간된 각종 지지(地誌)에는 누정조(樓亭條) 항목을 세워 소개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481/1530년), 《여지도서(輿地圖書)》(1760년~정조대), 그리고 각종 관찬(官撰), 사찬(私撰) 읍지들이 참고된다.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권 39 輿地考 27) 궁실조(宮室條)에는 경기도의 외방궁실(外方宮室)로 다음과 같은 누정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개성부에서는 서사정(逝斯亭)과 범사정(泛槎亭), 강화부는 연미정(燕尾亭), 광주부에서는 무망루(無忘樓)와 침괘정(枕戈亭), 여주는 청심루(淸心樓) 등이고, 이천의 애련정(愛蓮亭), 통진의 공해루(控海樓), 양근의 감호정(鑑湖亭), 삭령의 우화정(羽化亭), 그리고 정조 때 지은 과천의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도 이에 해당한다. 수원부의 경우는 화

성(華城)을 중심으로 행궁(行宮)에 해당하는 미로한정(未老閑亭)을 비롯하여 운금루(雲錦樓),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각건대(角巾臺), 화양루(華陽樓), 영화루(迎華亭), 향미정(杭眉亭) 등이 외방궁실로 되어있다. 화성 이전에는 진남루(鎭南樓)가 있다.

이상의 누정들은 임금이 행행(行幸)할 때 주로 머무는 객사 옆이거나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어 이러한 대접을 받았던 것 같다. 이것들 중에는 당시에 도 터만 있던 것들도 있고 실재한 것들도 있었으며, 현재는 몇 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각종 읍지에 나타나는 경기도 누정들은 정리하여 별도의 첨부자료로 붙였다.

3. 누정의 위치와 명칭

정자는 대부분 남향인 건축물에 비하면 그 방위는 정해져 있지 않고 배경과 경관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자가 세워져 있는 곳을 보면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난다.

- 절벽 위

전망대처럼 산꼭대기나 천인단애(千仞斷崖), 또는 수십 길의 절벽 위에 축조한다.

- 맑은 물을 접한 곳

냇가나 계곡, 강가 또는 호수나 바다 등 물을 볼 수 있는 곳에 짓는다. 누정 이름에 천(川)·계(溪)·강(江)·유(流)·호(湖)·폭(瀑)·해(海)·파(波) 등이 있는 것은 물을 접한 곳에 있다는 뜻이다.

- 마을 어귀 연못 옆

- 그밖에 전망 좋은 곳

변방 또는 성터 등 관방시설에도 누정을 볼 수 있다. 옛날 주요 고을에는 성문이나 객사의 부속 건물로 문루(門樓)를 두었는데 주로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역시 전망이 좋다.

누정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사연들이 담겨 있다.

1) 부근의 자연과 관련된 명칭

첫째, 산수와의 관련에 의하여 붙여진 명칭이 많다. 산에 있는 누정은 대개 산의 지형, 또는 바위나 절벽 등과 관련된 이름이 많다. 물가나 물 위에 있는 누정명은 내와 호수·바다·못 등과 관계가 있다. 파주의 임진정(臨津亭)은 글자 그대로 임진나루 옆에 있어서 지어진 이름이다.

둘째, 자연의 수목·일월·구름·비 등에서 연유된 이름이 많다. 한 그루의 소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하여 지어진 일송정(一松亭)이나 연천의 수월정(水月亭) 등이 그 예다.

셋째, 동식물과 연관된 이름이 많다. 동물류로는 봉

황·용·거북 등 상상의 동물과 학·갈매기 등이, 식물류로는 흔히 군자로 상징되는 매화·난초·국화·대나무·연꽃·소나무 등이 누정의 이름으로 많이 쓰였다. 파주의 반구정(伴鷗亭)은 황희(黃喜) 선생이 관직을 은퇴하고 이곳에서 유유자적 갈매기와 벗하였던 상황을 이름에 담고 있다. 양평의 봉황정(鳳凰亭)에는 봉황이 와서 춤추는 형상, 또는 봉황이 천 길을 날다가 덕이 빛나는 것을 보고 내려앉았다는 뜻이 있다.

넷째, 위의 세 가지 경우와는 달리 어느 한 자연물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연을 대할 때의 포괄적인 감상의 흥취로 생긴 누정명도 있다.

2) 인물과 관련된 명칭

첫째, 성명이나 별호와 관계된 명칭이 있다. 누정에는 사람의 호와 같은 명칭이 많은데, 후손들이 선조를 위하여 지은 정자는 대개 선조의 호로써 그 이름을 삼았다. 양평의 세심정(洗心亭)은 조욱(趙昱, 1498~1557) 용문선생(龍門先生)이 기묘사화를 당하여 은거하며 도학을 강론하던 곳인데 선생의 당호(堂號)를 세심당(洗心堂)이라 하였다. 파주 탄현의 노정(盧亭)은 보진재(保眞齋) 노사신(盧思愼)이 세운 정자로 노씨(盧氏)의 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둘째, 다수의 모임으로 된 계(契)나 회에서 건립한 정자가 있다. 이때의 누정명은 대개 그 모임의 이름과 같다.

3) 역사 상황이나 고사(古事)와 연관있는 명칭

누정의 명칭은 모두 한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자 어로서의 뜻이 있다. 파주의 원사정(遠思亭)은 유폐된 인목대비를 멀리서나마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어느 진사가 지은 정자라고 한다. 세상을 잊겠다는 뜻을 가진 남양주의 망세정(忘世亭)은 감사(監司) 심선(沈璿)이 수양대군(首陽大君)의 왕위찬탈을 보고 은둔처로서 지은 것이다. 그중에는 한문구에서 직접 따온 누정명이 있다. 그밖에 고사 등 옛이야기에서 연유된 누정 이름도 있다.

4) 누정의 기능을 반영한 명칭

누정의 설립목적은 이름에 담는 경우다. 광주 남한산성의 침괘정(枕戈亭)은 무기고 옆에 세워져 무기관리나 제작과 관련된 기능을 행했던 것 같다.

4. 누정 건립의 목적과 기능

정자와 누는 약간씩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갖지만 대개 다음과 같은 동기에서 세워진다.

- 풍류, 관광, 휴식을 위해 건립

유흥상경(遊興賞景)을 목적으로 경관이 좋은 산이나 대, 또는 언덕 위에 위치하여 산을 등지고 앞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추모나 기념을 목적으로 건립

- 강학(講學), 또는 연무(鍊武)의 목적으로 건립

누정 중에는 사족들이 벼슬에서 은퇴하여 유희처로 만든 경우들이 있는데 부근의 유생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들을 강학하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경우 한두 칸 정도의 방을 만든다. 그러나 방보다는 마루를 위주로 한 구조의 특징은 유지한다.

누정은 또 활쏘기 수련장, 즉 사장(射場)의 기능을 한다. 경기도 양평 광탄리의택승정(澤升亭)은 이러한 예가 된다.

- 독립된 단일 건물로서가 아니라 궁궐, 사찰, 향교, 서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시설(施設)로 건립.

고을을 지키는 성을 쌓으면 성루(城樓)를 두었다. 큰 성의 경우 동서남북에 각각 문루를 두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금이나 사신, 기타 외래에서 방문하는 고위 관리를 위해 객사(客舍)에 부속된 누정을 짓기도 한다. 그 외에 별장(別莊)·재실(齋室)·치농(治農)·측후(測候)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누정들이 있었다.

5. 누정의 건축구조

누정은 원래 오두막집이나 그와 비슷한 건축물에서 발전한 것이어서 비록 기와를 이은 지붕이기는 하지만, 새나 이영을 이었을 때의 지붕처럼 네 귀를 날카롭게 하지 않고 둥글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면이 정방형인 누정은 그 가구(架構)에 있어서 대들보를 쓰지 않으므로, 귀접이천장을 하거나 또는 네 귀의 추녀가 정상에 모이도록 하는 구조법을 사용한다. 가운데 모아지는 부분은 대개 절병통을 얹어 마무리한다.

별궁(別宮)의 개념을 갖거나 아니면 관아에서 관리하는 누정은 거의가 단청을 하지만 향촌의 누정은 별다른 장식 없이 백골로 두거나 굿기 정도로 그친다. 기둥에는 주연을 붙이고 편액에 누정의 명칭을 써서 걸어놓는다.

▶ 지붕

형태 : 팔작지붕이 가장 많고, 처마의 각에 따라 4모지붕(처마가 4각), 6모지붕, 8모지붕 등이 있으며, 드물게 정자(丁字)형 맞배지붕도 있다.

재료 : 기와나 벚짚

▶ 천장

- 연등 천장 : 가장 흔한 형태로 우물반자 등과 같은 치장을 하지 않고 서까래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만든 천장이다. 그러나 궁궐 안 정자처럼 품격을 높일 때는 각종 장식으로 천장을 꾸미기도 한다.

▶ 난간과 바닥

- 계자난간과 평난간 두 종류가 있고 더러 있다. 바닥은 대부분 마루를 깔았으며, 흙이나 전(塼)을 깔 바닥도 있다.

- 계자난간 : 구름모양으로 된 계자다리가 지지하고 있는 난간. 난간대가 약간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며, 여기에 앉거나 기대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 평난간 : 바닥과 직각으로 서 있는 난간으로 살대로 여러 가지 무늬를 꾸민다.
- 우물마루 : 귀틀을 짜서 세로 방향에 짧은 널을 깔고 가로 방향에 긴 널을 깔아서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짠 마루.

6. 누정을 매개로 형성된 문화

누정에는 시객이 찾아들고 서로 간에 시우(詩友)가 되며 누정 시단으로 발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긴 시문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누정기(樓亭記) 및 누정시(樓亭詩)로 누정을 짓거나 머물다가 그곳에 부친 선비들의 문필이다. 누정에 붙인 글 중에는 도선적(道仙的)인 은일사상(隱逸思想)을 표현한 것들도 있다. 나아가 정자와 그 주변은 선(仙)의 세계로 묘사되어 선경환입(仙景幻入)하는 공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경기도에서 찾자면 포천시 창수면에 소재한 이양정(二養亭) 부근은 소위 영평팔경의 하나였기 때문에 봉래 양사언을 비롯하여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창옥병(蒼玉屏)의 절경

을 찾으면서 회동하던 장소로 이름을 날린 곳이다.

강학(講學)의 기능을 하는 누정에서는 사제관계가 형성되고 학파로 발전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경우 누정은 정사(精舍)의 구실을 겸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누정이 이러한 예가 된다.

양평군 용문면의 세심정(洗心亭)은 용문선생(龍門先生) 조욱(趙昱, 1498~1557)이 기묘사화를 당하여 이곳에 은거하며 제자들과 더불어 도학을 강론하던 곳이다. 궤산정(簞山亭)은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이 이 정자에서 제자들과 학문을 강론하였다. 파주시 금촌읍에 있던 청은정(淸隱亭)은 산천재(山泉齋) 윤선거(尹宣舉)가 교하향교(交河鄕校) 훈도로 있을 때 곡릉천이 흐르고 조수가 오르내리는 이곳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세우고 인재양성과 저술에 힘썼다는 곳이다. 후에 제자들은 이 정자터에 신곡서원(新谷書院)을 건립하고 배향하였으니 이곳 문화의 중심지가 된 셈이다.

종회(宗會)나 동회(洞會) 또는 각종 계의 모임의 장소가 되면 이를 통해 공동체 조직이나 결사체적 집단으로 발전하게 된다. 문중 소유 누정들은 대부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文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東文選
 增補文獻備考
 大東地志
 東國輿地志
 東國輿地備考
 擇里志
 輿地圖書
 海東地圖
 五洲衍文長箋散稿
 山林經濟
 林園十六志
 南漢志
 華城城役儀軌
 京畿道史(1979)
 朴俊圭, 全南地方의 樓亭調查研究 (全南開發 3, 全南地域開發協議會, 1984)
 朴俊圭, 韓國의 樓亭攷(朴俊圭, 湖南文化研究 17, 全南大學校湖南文化研究所, 1987)

첨 부 자 료

각종 지지류(地誌類)에 나타난 누정 자료

1. 각종 읍지자료 樓亭 條

- 광주 : 狎鷗亭 無忘樓 枕戈亭 地水堂 九松亭 石湖亭
수원 : 訪花隨柳亭 角巾臺 華陽樓 末老閑亭 迎華亭 杭眉亭 得中亭(壯南軒 북 1790년 新建) 山亭(壯南軒 후원 1칸 6면) (화성이전) 拱極樓 鎮南樓
과천 : (遺址포함, 郡北 동작 흑석 등) 望辰樓 望北樓 望遠亭 退老亭(址) 蒼檜亭 明月亭 月波亭 (址)
교동 : 晏海樓 三門樓 秋梧軒 八角亭 海山亭 息波亭 庾亮樓 統三樓 拱北樓
김포 : 無
남양 : 臥龍樓 (府南門上)
마전 : 半輪亭 (唐浦津上)
시흥 : 觀感亭
안산 : 平近樓(읍 외삼문루) 鳳凰臺(址)
안성 : 克敵樓 鏡雲亭 詠歸亭
양근 : 太虛樓 鑑湖亭 映湖臺
양성 : 諫議臺(今無)
양천 : 望湖亭 岳陽樓(址) 相聞亭(址) 小岳樓(악양루舊址) 映碧亭 二水亭(址) 逍遙亭(今無) 莫如亭(今廢)
여주 : 淸心樓(객사) 鳳樓亭(천녕현강변 頽毀) 泛槎亭(금사 梨湖, 김안국 退住 頽毀) 江漢樓(신록사) 九龍樓(신록사) 東臺(신록사前 江上) 遊仙臺 枕石亭(丹江上 丹巖 閔相公古宅)
연천 : 銀杏亭(墟) 柑松亭(址) 四美亭(址) 茅亭(佛見山下 鄭來周)

영평 : 二養亭(군45리 朴思菴) 金水亭(군서7리) 樂歸亭(군남5리 黃廷或)
 용인 : 四隱亭
 이천 : 愛蓮亭
 지평 : 解暑亭(今廢) (增)鳳凰臺(광탄)
 진위 : 釜山亭(無徵)
 통진 : 控海樓 喜雨樓(문수산성)
 파주 : 臨津亭 花石亭 七松亭(址) 來蘇亭(임진하류남안) 伴鷗亭(址) 銀杏亭(址)
 송도 : 南門樓 逝斯亭 泛槎亭
 강화 : 利涉亭 燕尾亭 息波亭(통진) 海山亭 南將臺 西將臺
 남한지 : 有此山樓 緩帶亭 又喜亭 以威亭 以明亭 玉泉亭 觀魚亭 枕戈亭
 無忘樓 唾(睡?)雲樓 九松亭 駐 躡 狎鷗亭 夙夢亭 清風樓 無盡亭 石湖亭

2.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나오는 누정 추가사항

풍덕 : 梅花亭 退憂亭 詠坂亭 梨湖亭
 금천 : 影湖亭 (시흥)관감정 醉巖亭
 통진 : 舞(撫)劒亭
 삭령 : 羽化亭
 파주 : 水月亭
 김포 : 湧金樓(東閣西 小樓)

3. 1872년 제작 군현지도(郡縣地圖)에 나타난 누정

강화 : 伏波樓 朝海樓
 연천 : 南松亭

지평 : 寶山亭 鍊武亭

교동 : 禦邊亭

김포 : 詠詞亭

여주 : 華陽亭

적성 : 古懸鐘臺

인천 : 凌虛臺

4.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나타난 누정

남양 : 望海樓

여주 : 淸심루

영종 : 太平樓

양주 : 架亭子 華陽亭

양근 : 江漢亭 觀水亭 洋洋亭

김포 : 龜伏亭 五官亭 연미정 영사정

영평 : 金水亭 낙귀정

풍덕 : 古長源亭

송도 : 觀德亭 서사정 범사정

파주 : 내소정 수월정 칠송정

풍덕 : 梅花亭

남한 : 무진정 압구정 한명회정

파주 : 반구정 화석정

강화 : 연미정 이섭정

삭령 : 우화정

장단 : 退北亭

지평 : 보산정

5. 《고려도경(高麗圖經)》 누정 사항

개성 ; 淸風閣 香林亭 西郊亭 碧瀾亭

6.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권 39 輿地考 27 (補) 宮室 外方宮室의 누정

개성부 ;

逝斯亭 ; 在 花潭上 숙증 기미 유수 尹深 建

泛槎亭 ; 在 朴淵下 숙증 경진 유수 金昌集 建仍撰記 영조 을해 유수 尹汲 重修 易以石柱

강화부 ;

燕尾亭 ; 在 月串鎭 舊爲武將黃衡別墅 後屬鎭 영조 갑자 유수 金始赫(火奕) 重建又撰記

광주부 ;

無忘樓 ; 在 西將臺 영조 신미 유수 李箕鎭 建

枕戈亭 ; 在 城內 李曙 築城時 得一古閣於林藪中 영조 신미 유수 李箕鎭 重修 命名

여주 ;

淸心樓 ; 在 客館北 高麗朝時 建

수원부 ;

鎭南樓 ; 독성산성 南標樓 부사 邊應星 建 文忠公 李廷龜 撰記

雲錦樓 ; 여말 부사 金成安 建 文靖公 李穡 撰記

訪花隨柳亭 ;

角巾臺 ;

華陽樓 ;

未老閑亭 ; 行宮

迎華亭 ;

杭眉亭 ;

이천 ;

愛蓮亭 ; 在 客館 東 未詳始建 頽圯累年 영조 무신 중건

통진 ;

控海樓 ; 在 부서 10리 문수산성

양근 ;

鑑湖亭 ; 在 군서 8리

삭령 ;

羽化亭 ; 在 군남 8리 江川上 현종 정미 군수 李山賚 建/숙종 기미 군수

閔挺栢 重建 許穆 撰序

과천 ;

龍驤鳳翥亭 ; 正祖時 建

여 백



경기누정의 기문(記文)과 시문(詩文)

강 대 욱





누정의 편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누정의 명칭이 새겨진 것이며, 또 하나는 누정기(樓亭記) 또는 이곳에서 지은 누정제영(樓亭題詠)을 현판한 것이다. 대부분의 누정은 이와 같은 편액을 갖추고 있는데, 누정이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앞에 든 두가지 중, 앞의 것은 주로 세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자횡서(三字橫書)로 새겨 누정 밖에 걸어놓는다.

이에 대하여 누정기(樓亭記)는 비교적 긴 한문체 문장이며, 누정 제영도 5언 또는 7언의 한시로서 누정 안에 걸어놓는다. 다만, 누정시만은 주련(柱聯)의 형식으로 기둥 밖에 걸어놓기도 한다.

편액의 글씨체는 해서·초서·예서·전서 등으로 다양하다.

누정기나 누정시는 해서 또는 초서로 쓴 것이 많고 나무판에 새기는데 음각(陰刻)으로 새긴다. 역사가 오래되고 유명한 누정일수록 제영도 많다.

현재 경기도 관내에 있는 누정의 현재모습과 그 터가 있었던 누정지에 대해서 문헌자료에 의거 현상을 약술하고 당시 기록을 이기(移記)한다.

광 주 편

지수당기

우리 현묘(顯廟)13년 임자(壬子)에 이충숙쌍백공(李忠肅雙栢公)이 홍주목으로부터 묘당(廟堂)이 서로 천거하여 광주부윤(廣州府尹)으로 승격되었다. 공은 일찍이 종사(從事)로서 이미 군(君)의 마음을 얻어 성(城)을 전담하기에 미치니 아전은 복종하고 백성은 편안하니 그 스스로의 생활이 오은(吳隱)의 때에 부끄러움이 없더니 능을 옮겨모심을 당하여 주정소(晝停所)지었던 집을 일을 마친 뒤 그 재목을 옮겨 당(堂)을 행궁 동편에 짓고 3개 대지(大池)을 파고 한곳엔 연꽃을 심었다. 뒷날에 이 상서 선부(善簿)가 이곳을 맡고는 개수하고 단청을 칠했으며 또 천양정(穿楊亭)을 그 남쪽에 세웠다. 내가 17세때 쌍백공

(雙栢公)을 홍주 근민당(近民堂)에서 뵈었고 연당을 세울때는 자주 용인 화곡(花谷) 선산에 왕래하다가 선친께서 파담(琶潭)으로 퇴휴하시게되자 연당은 실로 중간의 쉬어가는 지점이 되었다. 그때마다 앉아서 동문의 물방아와 양언덕의 버들과 주도(周道)의 돌다리를 보니 사랑할만 한 것은 특히 산수나 추화(秋花)와 활쏘는 일 아니라 덕을 볼 따름이었다. 운주(鄆州)의 계당(溪堂)과 비슷하여 매양글을 지으매 자랑하기론 겨를 하지 못하였다. 여길 지나가 10여일 머물게 되자 부윤이 나를 맞아 당에서 마시니 세연꽃은 푸른 돈을 포개고 그림 처마는 수면을 덮으니 손과 주인이 모두 즐거웠다. 부윤의 사위 이군 경원(景元)은 바로 쌍백공(雙栢公)의 손자이다. 나에게 기(記)할 것을 청하니 지수(地水)의 이름을 얻음은 그 건립초이다.

대개 주역의 민(民)을 용납하고 중을 길은다는 뜻을 취한것인데 기문이 아직도 없어서 이군이 그 선대의 업적을 천양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쌍백공과는 년(年)도 덕(德)도 이미 멀건만 일찍이 뵈 바도 있고 또 항상 후배로 대접하였으며 오히려 기사년(己巳年)에 공이 외제(外弟) 박사원(朴士元)과 함께 대절(大節)을 세워 이미 세상에 자랑꺼리가 되고 갑술(甲戌)여름에는 선친께서 거듭 수보(首輔-영상)가 되시어 공을 천거하여 대사도검 하성수어사(荷城守禦使)가 되었었다. 얼마 아니하여 선친께서 무고를 당하여 파담으로 내려가시자 선대왕께서 특히 공을 보내어 함께 오도록하여 같이 삼전도(三田渡) 창사(倉舍)에서 수일을 거하셨으며 용인과 광주의 지명은 어금니 같이 엇

갈려 동향과 같은 사이라 공이 하주(荷州)를 지킨지도 3차이며 나의 선친은 일찍기 어사로 군(軍)의 실정을 사열 하셨으며 또 현도사(顯都司)건립도 청하셨습니다.

늦게 파담에서 옮겨와 탄동(炭洞)의 선조 병조의랑 묘하에 사셨으니 두분은 발관 눈의 버릇까지 서로 알만할 것이니 내가 하주나 하당에 어찌 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공이 이미 썩은 재목을 버리지 않고 쓸데없는 것을 돌이켜 쓰임이 있게하셨다. 뒤에는 장차 기울어가는 집을 지탱토록하여 국가에 주석(柱石)이 되도록 하시며 몸가짐은 맑음이 물보다 더하시니 저버렸도다. 지축(地軸)같으심을 슬프도다 저 조석으로 광경(光景)의 아름다움과 보장(保障)과 영마(領馬)의 재간은 특히 약간 흔적만 드러나는 것이다. 옛날에 견고한 나라는 산계(山谿)의 험함을 말함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고 미루어 얻을 수 있다. 뒷날 이당(堂)에 앉는자 그 누가 충군우국하는 마음이 병이(秉彝)의 천성에서 나오는자 없으라마는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물이 땅속에 있음과 같으리라 돌아보아 이름이 미간(楣間)에 쓰여짐만을 다행으로 삼고 감이 두어줄 외여 그 뜻을 되풀이 하노라.

地水堂記

我 顯廟十三年壬子李忠肅雙栢公自洪州牧廟堂交薦陞尹廣州公會爲從事已得君心及專城吏懼民安其自奉無愧吳隱之時值遷 陵構畫停之屋於淹峴事卒遂輸入其材立堂於 行宮東穿三大池一則種蓮後庚辰李尙書善溥尹于茲改修加丹雘 又立穿楊亭於其南始余年十七拜雙栢於洪之近民堂及荷堂之建頻來往龍仁花谷之先壘及先府君退

休之琵琶潭荷堂實爲半山停驂之地每坐看東門水確夾岸槐柳周道石橋可愛者非特山水秋花韓臂觀德而己有類鄆州溪堂每擬賦詩鋪張未暇爲今適簿遊留旬朔時府尹缺激余觴于堂新荷疊青錢書襜壓水面賓主俱樂之府尹之甥李君景元卽雙栢之孫請余記之地水之得名在其初建時蓋取諸易傳容民畜衆之義記文尙闕焉李君思所以闡其先蹟念余於雙栢年德相憑既早丞晤旦嘗所輩行眷待尙在己己公與外弟朴士元同立大節周己誇耀於世甲戌夏先府君重卜首輔又舉公爲大司徒兼荷城守禦使居無何先府君遭誣下琵琶潭先大王特遣公與偕同居三田倉舍者數日龍廣壤地交牙有同同鄉公旣爲官於荷州者三我先人曾以御史閱軍實又請建顯節祠晚自琵琶潭寓炭洞先祖兵曹議郎墓下然則兩公定目之慣習可知余於荷州荷堂烏可以無情哉公旣不棄才朽轉無用爲有用後乃扶支將傾之厦爲國家柱石持身清勝水負哉如地軸噫彼朝夕光景之佳保障領馬之資特其粗跡之見於外者古稱固國不以山谿之險云者可以體險而推去後之坐斯堂者孰無忠君憂國之心出自秉彝之天而不泯滅者如水之在地中也 哉願以托名楣間爲幸敢誦數行而復其意

《남한지(南漢志)》 남학명(南鶴鳴) 기문(記文)

침괘정중수기

서울에서 50리를 나아가 동으로 바라보면 높고도 가로뻗은 산이있으니 남한성이라고 한다. 성중에 언덕이있고 언덕위에 정자가 있으니 정자를 침괘정이라고 이름을 부친사람은 상서(尙書) 이기진(李箕鎭)이다. 슬프다 지난날(丙子)와 정축(丁丑)에 우리 인조(仁祖)임금께서 오랑캐의 침범을 당하여 이성으로 피난하셨으나 군사가 한번 죽음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적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고 돌아가게하였으니 나라의 수치이다. 장차 병인(兵刃)을 갈고 병마를 모아 대의(大義)를 천하(天下)에 밝히어야 하겠다. 뜻을 비록 이루지 못한다해도 그 의(義)만은 일

찍기 하루도 잊어서는 아니되는데 지금껏 폐백은 밖에서 힘을 다해야하고 무기는 안에서 칼집에 감추어진채 사람들은 모두 무사안일에 젖어 전쟁의 준비는 잊어버리니 고인의 와신상담 하는 의를 자못 다시는 말도 못하겠도다. 이공이 이정자를 침괘(枕戈)라고 명함도 어찌 경계함이 아니리오 내가 공의 뒤를 이어 몇해만에 이곳에 부임하니 정자의 파손된 곳이 열에 삼십 사라 설수조차 없음을 보고 장인에게 명하여 연목(椽木-서까래)을 바꾸고 흙손질과 단청을 새로하여 보수를 완료하고 손님과 보좌와 군교를 맞아 낙성하면서 위연이 탄식하며 이르기를 이성(李承)은 이산(李山)의 금후(衿喉)가 되고 이정자는 눈썹과 눈이라 여기서 관찰하면 다할 것이다. 이산에 거주하는 자 호구(戶口)가 많지는 아니하지만 평소에 먹이고 기르기를 부모가 어린아이 같이하니 유사시에 한번부르면 구름모이듯 안개달리듯 분주히 명령을 듣는 것은 군졸들이오, 성첩(城帖)과 초루(譙樓)가 껴안은 듯 절하는 듯 궁(宮)과 부(府)를 옹호하는 것은 높디높은 담이오 좌편은 풍성한 창고요 우편에 높이솟은 노적은 일만군사를 배 불리 하고도 넉넉함이 있는 것은 쌓아둔 곡식이다. 이세가지가 있고나서 능히 방책을 연구하며 기략을 발하여 종국(宗國)의 급함을 막아야 하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장수가 병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가 장수에게 쓰이지 아니한다면 비록 병과 성과 곡식이 있다고 하여도 쓸 수 없는 공연한 시설이 될것이니 또한 두렵다 아니하겠는가 슬프다. 나라의 근심이 준비가

없는곳에 있으며 준비가 있고 없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니 병자, 정축의 거울이 어찌 멀다고하리오 그때를 당해서 오랑캐의 말이 우리지경을 넘어선지 3일에 천리를 지나 곧바로 우리 성하(城下)에 육박하여도 한사람이 감히 대적하지 못함은 나라에 준비가 없으며 장수에게 대책이 없어 지키자니 지킬만한 성이 없고 싸우자니 훈련된 군사가 없어서 1일의 변을 막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이다. 맹자(孟子)가 말하지 아니했던가 적국과 외환(外患)없는 자는 항상 망한다고 무릇 적국과 외환이 반드시 남의 나라를 망하는 것도 아니지마는 적국과 외환이 있는 다음에야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라가 보존된다. 사람은 우환에서 살고 안락에서는 죽는다. 이미 안락함을 즐길만하다면 누가 근심을 하라만은 근심하면 살고 즐거워하면 죽는 것은 이치이다. 병자년 이전에는 그 즐거움만을 알고 그 근심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국과 외환이 없음을 믿다가 적국외환이왔던 것이다. 이제 만약에 근심을 소홀히 함이 불가함을 알며 즐거움을 믿음의 불가함을 안다면 병자(丙子)의 치욕은 오늘의 약이 될것시오 적국과 외환을 만약에 항상 문밖과 뜰에 있는 것 같이한다면 성(城)의 약점이 있음을 보게되면 완전히 할 것을 생각할것시오 곡식이 부족함을 보게되면 채울 것을 생각할 것시오 사기가 떨치지 못함을 보게되면 고무하고 주장할 것을 생각하여 격려하고 분발시킬 것이다.

연후에 싸울수도 지킬수도 싸우게 되기전에 해소하기도 할 것이니 막기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근심하는 것이 이길이다.

오직 광주(廣州) 한 성(城)에게만 쓰일뿐이 아니라 나라에 추구 하면 남음이 있을것이니 조정에 나아가 한번 강하여 모든 분야가 백번 갇어 준비하면 버리를 들으면 그물코가 벌어지듯 성적이 있을것이오 국가는 하늘이 내린 큰 터이다. 바라건대 만억년(萬億年)에 더욱 공고하여 또한 그 치지 말지어다. 옛사람 경계한듯 또한 부지런하나 못다 말한 것을 내가 거듭 이와같이 경계하여 써 바래고 축원하는 속셈을 부치는 것이니 후인(後人)또한 마땅이 찬동할것이오 이 정자(亭子)의 흥(興)하고 폐(廢)함은 때에 그사람에게 달린 것이니 어찌 나의 말을 기다릴 것인가.

枕戈亭重修記

出國都五十里東望有山峯橫鶩曰南城城之中有阜阜之上有亭亭以枕戈命爲者尙書李公箕鎮也噫昔在丙丁我仁廟戎虜警駕幸此城土不能辨一死使彼虜逞志而還國之恥也夫將以厲兵刃蒐卒乘明大義於天下志雖不獲就然其義未賞一日忘也迺今皮幣殫於外戈鋌韜於內人皆狃升平而忘戰備古人薪膽之義殆亦不復講矣公之命于茲亭者豈非所以戒之歟余躋公後凡幾年來莅於茲覽亭之摧而剝者十居四三不可以憩處乃命之工易其椽理其桶新其塗墍丹雘功不日告訖延賓佐軍校而落之於是喟然歎曰茲城者一山之衿喉也茲亭者一城之眉目也觀於是盡之矣人之錯居于此山者戶可以百千計平居則哺之養之如幼子有事則一號召而雲屯霧馳咸奔走聽命者健兒也列層櫓譙如拱如楫屏衛我宮府者崇墉也左豐庾右峙廩飽萬兵而有裕者積粟也有是三者而能運籌策發機略以扞宗國之急者將之責也然其不能者反是將不知兵兵不爲將之用則雖有兵有城有粟乎將爲無用之虛設不亦可懼而甚歟噫國之患在於無備備之有無又在於人而丁之鑑豈遠乎我當時也胡騎涉吾境三日越千里而直溷我城下人莫敢格者蓋以國無備而將無策守無素戒之城仗不宿鍊之兵不足以衛一日之變也孟子不云乎無敵國外患者國恒亡夫敵國外患來必亡人國而有敵國外患然後戎心生戎心生則國乃存人之生於疾死於燕

安是已燕安可樂疾疾可憂則生樂則死死理也丙丁以前知其樂而不知其憂故恃其無敵國外患而敵國外患主今若知憂不可忽樂有不足恃則丙丁者眞今日之樂石而敵國外患使若常在乎門庭見城之瑕歟則思所以完之見粟之枵歟則思所以實之見戎旅之不振歟則思所以鼓之倡之激礪而奮發之夫然後可以戰可以守可以銷兵於未形而患有所不足禦者斯道也不惟用於廣之一城而已推之一國而有餘進之朝廷而一講焉則羣工礪百爲修綱舉目張秩然有成績國家天天祚之洪基庶幾萬億年彌鞏不亦休哉前人垂戒之意亦已勤矣抑有未盡發者余旣申戒之如此用寓祈祝之忱後之人當亦同之若夫亭之興廢時也存乎其人何待乎余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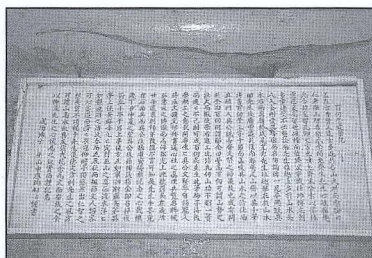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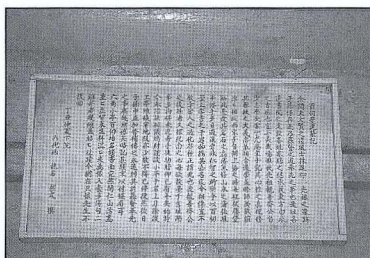
《남한지(南漢志)》 누정편(樓亭篇) 김희순 기문(金羲淳 記文)

백인대중건기

(백인대 건립기와 중수기 그리고 관선재 후손이 성금을 모아 근래에 건립한 육각정에 걸린 현판 건립기를 요약하여 적는다.)

『前略』이 백인대는 천혜적(天惠的)으로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여 봄에는 백화가 만발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수놓은 것 같으며 대하(臺下)에는 청계운수가 용용(溶溶)이 흘러 옛부터 근세까지 춘하추삼절에 시회(詩會)와 친림이 끊이지 않는 송경지이다. 우암선생께서 호중(湖中)으로부터 상낙시(上洛時)에는 차대(此臺)에 등림(登臨)하시어 문인들과 경학강론과 시문화답하시고 친필로 암벽에 백인대(百仞臺)란 대호(臺號)를 휘호하시어 음각한 것이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그 자획(字畵)이 완연하기에 모현봉선(慕賢奉先)의 마음으로 육십년전 정축춘(丁丑春)에 관선재공 후손들이 구재(鳩財)하여 암상에 육각정을 건립하

였던바 오랜세월과 병화도 겪고 몰지각한 사람들의 심한 훼손으로 참담한 형상이 참아 볼수없어 누년 증진할 마음은 가졌었으나 역부득이한 소치로 매년 미루다가 이제 착공에 앞서 족질 창회(昌會)군의 도움으로 공사를 마추어 간신히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니 심히 다행한 일이다. <以下略> 병자(丙子) 팔월(八月) 서기(1996년8월) 관선재공 9대손직서근기』



유차산루기

높은 곳에 아르면 반드시 멀리바라보고 멀리 바라보면 반드시 느낌이 있는 것은 사람의 정이다. 옛날 한나라 무제는 해상에 올라 선인(仙人)을 기다리고 제나라 경공(景公)은 우산에 올라 낙조를 슬퍼했다. 느낌은 비록 같지 아니하지만 그정이 됨은 일반이다. 때문에 왕공이 낭낭왕 효를 일러 백회는 마땅히 정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였으니 높은곳에 올라가 느낌을 가지는 것이 여기에 이른다면 정이란 또한 극한 것이로다 높이오름이 능히 인정을 느끼게 하는 그 까닭은 무엇인가 정이란 심중에서 생기는 것이라 진두수는 이르기를 머리를 감으면 심장이 없어

지며 심장이 얹어지면 계획이 뒤집힌다 하였으니 이말로 미루어서 눈을 크게 뜨면 마음이 들리고 마음이 들리면 생각이 반드시 깊을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찌 산에 오름만하라 루(樓)에 오름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왕중선의 추풍과 경원량의 달밤이 모두 그것이다. 한되지는 말하기를 본바와 앞에서 변하면 지키는 바가 안에서 바뀐다고 하였다고와 산(山)은 높고 얇음이 비록 상대가 아니되지만 그 땅을 떠나 일어서고 소리가 비어나와 사람이 보지못하는 곳까지 미침은 능히 같으니 그 능히 정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두실(斗室) 심공(沈公)이 남한(南漢)의 유수(留守)로 궁실(宮室)을 수리하고 하나의 루(樓)를 치사당(治事堂)옆에 세우니 청량산(淸涼山)과 마주선다 명명(命名)하기를 유차산루(有此山樓)라하고 조순(祖淳)에게 부탁하여 기문(記文)을 하라하니 우주(宇宙)가 있음으로부터 문득 이산이 있었다는 말은 양숙자(羊叔子)의 현산(峴山)의 탄식이다. 조순이 여기에서 공의 정이 양숙자에 느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릇 속자는 옛날의 명사(名士)이다.

우모(訏謨)와 주주(籌畫)를 준조(樽俎)사이에서 절충하고 풍류와 문물이 강역의 밖에 빛이 나서 오늘에 이르도록 역사를 읽는 자라면 그 천년전 사람임을 잊어버리고 그의 성음과 웃는 모습을 애연히 잡을 만하게하더니 이제 공은 경륜의 재(才)를 품고 유아(儒雅)의 질(質)을 타고나서 출세의 길에 처하여 무거운 책임을 받으니 양숙자에게 부끄러울것이 없도다 바야흐로 이 루(樓)에 올라 이 산을 바라볼제 그 근심스럽게 생각나는 것

이 이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숙자의 모습이 가만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 명성을 듣고 그 풍도(風度)를 기뻐하며 그 덕을 사모하여 그 말을 연구하니 고금의 인(人)이 서로 느끼는 정(情)이다. 이는 넉넉히 공이 정에서 느낌을 얻은 때문이런가? 비록 그러나 조순(祖淳)의 느낀바는 공의 정에 비하여 또 같지 아니함이 있다. 산에 올라 탄식을 발한 것이 어찌 양숙자에 그 치라 오직 양숙자 만이 가(可)하기 때문에 고인은 눈물을 앞에서 터트리고 이제 공은 뒤에서 느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하면 나라안에도 이름난 누(樓)가 얼마든지 있다. 신라와 고려는 물론 본조(本朝)에서 세운 것은 금인(今人)이 과연 세운자가 누구임을 알자가 있을 것인가 저들도 그 시작하지 아니해서는 사부(詞賦)와 기술(記述)을 판각(板刻)하여 매달지 아니했을 것이니 그 사부와 기술을 한자도 과장하고 자랑하지 않은 이가 없을 것이니 금인이 과연 읽고나서 느낌을 일으킨자가 있을 것인가 그 어깨를 흔들며 도망가지 아니하면 다행한 것이다. 만약에 세운자와 기술한자가 그 사람이 유명하다면 머뭇거리 거닐며 탄식하고 한숨지으며 능히 떠나지를 못할 것이다. 무릇 다른 사람은 막론하고 공과 조순이 이름난 누(樓)에서 논다고 해도 대개는 같을것이니 정에 느끼는 누와 산이 무엇이다르다고 하랴 때문에 오직 양숙자만이 가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공이 이미 숙자를 느끼고 그 누를 명명하였고 조순은 또 공의 정을 탐지하고 기(記)를 하니 모르겠노라 후일 이누에 노는이가 공과 나를 장차 어떻하다고 평할 것인지 그러므로 그 정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有此山樓記

登高必望遠望遠必有感人之情也昔武帝登海上而待仙人景公登牛山而泣返照所感雖不同其爲情一也故王恭謂瑯琊王孝伯會當爲情死登高而有感者至此情亦極矣登高之所以能感人情其故何哉情者生於心者也晉頭須謂沐則心覆心覆則圖反推是設也肝者心必舉心舉則思必永也歟然豈惟登山而登樓者亦然王仲宣之秋風庾元規之月夜皆是也韓愈謂所觀變乎前所守易於內樓之於山高下雖不侔其離地而起聲空而出及人之所不覩能一也其能使情感不亦宜歟斗室沈公留守南漢繕修宮室及建一樓於治事堂之側與所謂清涼之山正相對焉命之曰有此山樓囑祖淳爲記自有宇宙便有此山卽羊叔子峴首之歡也祖淳於是乎知公之情有感於羊叔子也夫叔子古之名士也評謨籌畫折衝樽俎之間風流文物輝映疆域之外至今讀史者忘其爲千載上人而其聲音笑貌藹然可掬也今公蘊經綸之才秉儒雅之質處頭道而受重寄岩無愧於叔子方其登斯樓望斯山也其悄然而思者固已藐然乎林林笏笏而叔子之形黯然見乎前也聞其名則悅其風慕其德則繹其語古今人相感之情也此足以得公之情之感之故歟雖然祖淳之所感比公其情又有不同登山而發歎者豈止叔子惟叔子而後可故古墮淚於前今公曠感於後試思夫國中之名樓何限羅麗無論卽昭代所建今人果有能知營剏者爲誰乎彼其未始不爲詞賦記述板刻而揚示也其爲詞賦記述者又未始不爲鋪張而夸耀也今人果有能讀而起感者乎其不掉臂而去之則幸矣若營剏與記述者其人有名焉則爲之躊躇焉徘徊焉咨嗟太息而不能去焉夫人無論卽公與祖淳遊所謂名樓者蓋嘗如是矣感於情樓與山何異故曰惟叔子而後可今公旣感叔子而命其樓祖淳又探公之情而爲之記不知後之遊斯樓者其處公與祖淳將何如也故曰其情又不同云

《남한지(南漢志)》 누정편(樓亭篇) 김조순 기문(金祖淳 記文)

무진정

하늘은 특이한 지경을 호웅(豪雄)에게 부치는데 인식하던가
다함없는 승경(勝景)이 한수동(漢水東)에 몰렸구나
봄비는 바다 해오리 난간에 의지한 밖이요

저녁별 골과 따오기 술잔 당기는 중이라
 암커나 역사에 이름이 무엇 유익하리
 늙어가니 시내와 산 흥취 다하기 어렵도다
 저는 나귀 거꾸로 타니 가는곳마다 좋고
 한가함 아는 게으른 새 네가 나와 같구나
 푸른 도랭이 취함을 견디고 어부 따라가며
 흰모포 높은 노래로 목옹(牧翁)을 짝하네
 스스로 돌아가지 아니함이지 가려면 갈수 있으나
 내가 공연히 오호(五湖)에 편주(片舟)생각함이 부끄럽다네

無盡亭

天陔異境屬豪雄 無盡奇觀盡漢東	春雨海鷗凭檻外 夕陽霞鷺引盃中
儻來升泉名何益 老去溪山興叵窮	到跨寒驢隨處好 知閑倦鳥若爲同
綠衰扶醉從漁父 白鬢高歌伴牧翁	自是不歸歸便得 愧余空憶五湖風

《남한지(南漢志)》 누정편(樓亭篇) 최항 시문(崔恒 詩文)

남 양 주 시

태극정

물고기 뛰고 소리개 높이나는 그 사이에서
 별과 달 사이를 한가로이 오고가누나
 평생 사업을 저장하고 쓰는 중에 있는데
 태극정 가운데서 둥근 공을 희롱하노라

太極亭

魚躍鳶飛上下間
 天根月窓去來閒
 百年事業藏諸用
 太極亭中弄一環

『양주군지(楊州郡誌)』 유적편(遺蹟篇) 이단상 시문(李端相 詩文)

의 정 부 시

청풍정기

어떤 사람이 문기를 청절사(淸節祠)아래요 풍우대(風于臺)위에 네 칸 정자가 있어 이름을 청풍정이라 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였다. 천지간에 부는 기운을 천풍(天風)이라 하고 바람소리 이는 것을 인풍(人風)이라 하니, 천풍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풀이 다 쓰러지고, 인풍이 닥치는 곳엔 어진 마음이 생긴다. 그런고로 맹자는 백이(伯夷)의 풍을 받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이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은 뜻을 세우게 되니 성인의 맑음을 얻은 사람은 백이라고 했다.

천추만대에 완악하고 나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그 바람이야 말로 어찌 크고 멀다 하지 않으리오. 오직 매월당

김 선생은 백이의 맑음을 얻었도다. 신동으로 세종 때 태어나 세조가 왕이 되자 세상에 뜻이 없어 총림속에 은둔하여 홀로 맑은 절개를 지켜 가르침을 심어 주시니, 청한(淸寒)이라 부르는 것은 선생의 호이고, 청간(淸簡)이라 하는 것은 조정에서 내리신 시호이다. 참으로 선생의 덕이 시종(始終) 맑았음은 글월마다 밝혀 있도다.

또 동봉(東峯)위에 옛 터가(遺址)있고 동봉 아래 진상(眞像)이 벽에 있어 오는 사람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시흥(詩興)을 돋구어 이 정자를 지었으니 어찌 한 날 산수의 경치와 풍치의 변함을 구경하는데 그치리오. 맑고 향기로움을 집어내고 옛모습을 수습하여 함께 기리고자 함이니, 이름있는 곳에 실지 또한 있으리라. 따뜻한 봄날에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오르면 훌쩍 속세를 떠날 것같고, 찌는 듯한 여름날 번뇌를 갖고 오르면 바람타고 공중에 나는 듯 상쾌하다.

가을에는 서리와 이슬이 깨끗하여 그 빛을 다투고 겨울에는 눈과 얼음이 희고 흰데,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은 이 정자의 사계절 경치이다. 선생의 바람은 또한 그 질서를 같이하여 가히 만고에 빛난다. 또 못 새들의 지저귀는 화음을 이루고 샘물은 잔잔하여 그 맛이 향기로울 뿐 아니라 붉은 잎 노란 꽃이 난간에 아우러져 향취를 품고 있다. 언덕위 지초(芝草)와 냇가의 난초가 정자를 향하여 싱그러움을 돋우니 비록 물정을 모르는 사람도 마음이 서로 통하는 듯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으로 천륜을 아는자 이리오 마땅히 배회하여 교훈코자 함이라. 공자

清風亭記(遺文)

『의정부시 20년사(議政府市 二十年史)』

포 천 시

제 이 양 정 벽

골짜기의 새소리 때때로 한마디씩 들려오는데
침상은 쓸쓸하고 여러 책들 흩어져있네
언제나 안타까운 건 백학대 앞의 물로서
산입구를 겨우 나가면 곧 흙탕물 띈다네.

題二養亭壁

谷鳥時時聞一箇
匡牀寂寂散群書
每憐白鶴臺前水
纔出山門便帶淤

『포천 금석문대관(抱川金石文大觀)』 김수증(金壽增) 시문(詩文)

파 주 시

화 석 정

수풀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회포를 달랠길 없도다
 먼산은 외로운 달을 토해내고
 강은 만리의 바람을 머금었도다
 강물은 하늘과 맞닿아 푸르는데
 서리맞은 단풍은 타는 듯 붉구나
 아! 아 찬 기러기는 어디로 가시고
 처량한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에 그치네

花石亭 李珣

林亭秋已晚 騷客意無窮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遠水連天碧 霜風向日紅
寒鴻何處去 聲斷暮雲中

『파주군사(坡州郡史)』 이이(李珣) 시문(詩文)

화석정 기문

(화석정에서는 많은 시인, 명사들이 시를 읊었는데 여기서는 <화석정>이란 정자의 이름을 지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숙함(李淑臧)의 '화석정기문'을 옮겨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본다.)

나의 문생(門生)으로서 전일 홍주(洪州)원이었던 덕수(德水) 이후(李侯) 의석(宜碩)이 그의 아우이며 나의 동료인 의무(宜茂)씨를 보내와서 말하기를 “파주 관아 북쪽 10리쯤에 율곡(栗谷)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나의 조부 강평공(康平公)의 옛 별장이고, 별장북쪽 깎고 지른 듯한 봉우리에다가 정자를 지었다. 기이한 꽃과 이상한 풀, 진기한 술과 괴짜 돌을 많이 심어 놓고 감상하였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어 퇴폐해 버렸고 다만 옛터만 남았다. 의석은 오직 부조(父祖)의 기업을 황폐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옛터에다가 중건하였다. 정자는 장단 쪽을 향했는데 석벽이 병풍처럼 되었고 임진강 상류를 임하여 지세가 매우 험하다. 난간에 기대서 바라보면 한양 삼각산과 송도(松都) 오

관산(五冠山)이 저 하늘 아득한 중에 머리카락만큼 약간 드러나는 바, 이것이 정자의 경계이다. 그러므로 자네는 정자 이름을 짓고 기문하여 아름답게 하여 주게” 하였다. 나는 찬황공(贊皇公)의 덕유 평천장 기문 중에서 화석(花石)이란 것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 그 기문이란 것을 상고하니 평천을 파는 자는 나의 자손이 아니며, 꽃하나 돌 한 개라도 남에게 주는 자도 아름다운 자제가 아니다 하였는바, 그 훈계한 것이 지극하다 강평공의 별장과 정자에도 찬황공이 자손에게 훈계한 것과같이 훈계한 것이 있었던가 이것은 모르거니와 후(侯)는 오랜동안 퇴폐한 옛터에다가 화석정을 잇달아 지었다. 옛떨기에서 꽃이피고 옛 자리에 돌이 앉은 것을 주인이 보면, 조선(祖先)이 붙들우고 심어서 애완(愛玩)하던 공력을 생각하여 상재(桑梓)보다 공정하게 되리니 팔기를 즐겨하나 주기를 즐겨하겠나 그 즐기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 찬황공이 비록 간절하게 훈계하였으나 가씨(賈氏)가 기록하기를 평천장의 꽃과 돌이 많이 유력(有力)한 자의 차지하는 바 되었다 하였은즉 후사가 있다 하겠나 강평공은 비록 훈계가 없으나 후(侯)가 능히 지켜서 팔지도 주지도 않고 조선의 마음에 맞게 하였으니 뒤를 능히 이었다 하겠다.

그 사람의 어질고 불초한 거리가 이와같이 멀다. 누가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가 정자가 황폐하여지니 꽃과 돌도 함께 황폐해지고 정자가 새로워지니 꽃과 돌도 함께 새로워졌다. 물(物)은 비록 얇이 없으나 만남은 각자 때가 있으니 어찌 우연한 일이지요 이것도 적

을 만하다. 그리고 외로운 배에 명월을 싣고 청풍에 낚시줄 드리움 같은 것은 후의 세상 밖 그윽한 정취이다. 만약, 후를 따라 정자 위에 놀게 되면 다시 후를 위해서 글을 지으리라 이것으로 기문한다 하였다.

李淑城 記文

吾門生洪州舊倅德水李侯宜碩介其弟吾僚友宜茂氏來語曰坡州治之北十里許有里曰栗谷乃王父康平公之舊莊也賞作亭於莊北斷峯多植奇花異草珍松煖石以遊賞焉而歲久頽廢只有舊址宜碩性墜祖業是懼卽其舊址而新之亭面長湍石壁翠屏低列枕臨津上流地勢斗絕憑欄縱目則漢之三角松之五冠微露一髮於烟空杳靄間此其景槩也子幸名而記以侈之予取贊皇公李德裕平泉壯記中語以花石扁之而按其厥謂記則平泉者非吾子孫也以一花一石與人者非佳子弟也其訓戒之者至矣康平之於莊若亭亦有如贊皇之訓戒者乎是未可知也而侯於歲舊頽廢之餘卽新舊址繼作花石主人見花發舊叢石安前窠則思祖先封植愛玩之勸當百倍桑梓而恭敬之矣其肯以之乎其肯與之乎其不肯至是也審矣噫贊皇雖勤訓戒而賈氏有多爲有力者取去之譏則其可謂有嗣乎康平雖無訓戒而侯持守不以以與先得祖先之心其可謂不能後乎其人之賢不植去遠甚如此謂古今人同不同未可知也哉亭廢而花石與之俱廢亭新而花石與之俱新物雖無知遇各有時豈遇然歟是亦可書也若其孤舟明月釣蘼清風侯之物外幽趣倘得從侯于亭上當更爲侯賦之是爲記

《신증동국여지승람》 이숙함(李淑城) 기문(記文)



김종직의 화석정 시

(화석정을 중수(重修)하고난 후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이 화석정에서 읊은 시(詩)다.)

이의석은 진실한 자손
중수한 화석정이 선대에 몇몇토다
이산 저산 이물 저내 소윤(少尹)처럼 빛난건 아니련만
일화일석(一花一石)은 평천장(平泉莊)보다 훌륭허이
현주(玄洲)에 비바람은 사해(四海)에서 오고
적현(赤縣)의 산들은 반공에 떃네
강평공(康平公)이 남긴 일 알고저 하면
보라 만촌풍월(滿村風月)이 푸른 담요인 것을

金宗直 詩

李侯眞箇子孫賢 堂構如今不墜先
某水某丘非少尹 一花一石勝平泉
玄洲風雨來四海 赤縣峯巒落半天
欲識康平貽厥後 滿村風月是青氈

『파주군사(坡州郡史)』 김종직(金宗直) 시문(詩文)

다음은 중국사신이 화석정을 찾아왔을 때 원접사(遠接使)가 되어 화답한 시(詩)다. 1582년(선조15) 명나라 사신 황홍헌(黃洪憲)과 왕경민(王敬民)이 왔을 때다.

황홍헌(黃洪憲)

화석정 앞은 들, 뒤는 산으로 성곽인데
 백운방초는 곧 단구(丹丘-신선의 영역)라네
 산화(山花)의 꽃그림자 송삼(松杉)도 푸르고
 석벽은 남빛띠워 설여(薛荔-향초)피는 가을
 세업(世業)을 힘써 경영하니
 조용할 때 토구(菟裘-은거지)를 생각않으리
 찬황(贊皇)의 큰 공 당사(唐史)에 기록되었거늘
 힘써 번방(藩方) 보좌를 멀리서 도모하리

黃洪憲

綠野堂開背郭幽 白雲芳草卽丹丘
 山花色映松杉翠 石壁靑含薛荔秋
 世業自應勤肯構 淸時豈合念菟裘
 贊皇勳烈標唐史 勉佐藩宣紹遠猷

『파주군사(坡州郡史)』 황홍헌(黃洪憲) 시문(詩文)

율곡의 화답시

선대의 화석정은 해묵어 황량해도
 강산은 의구하여 산과 숲을 보호하였네
 돌이 부식되니 돌로는 연대 알수 없네
 승지(勝地)를 점친 것이 어찌 인연만이라 달게 은둔하여
 선대의 유업 더욱 새롭게 지키리라

경거(瓊瑠-아름다운 패옥)가 벽에 비쳐 후손을 경고하나
소재(疎才)로는 복구도 못해 부끄럽도다

先業荒涼野逕幽 江山依舊擁林丘
花殘草砌纔分種 石蝕雲根不記秋
占勝豈緣甘隱遯 重新祇爲守箕裘
瓊瑠照壁仍垂警 自愧疎才未煥猷

왕경민

녹야(綠野)에 자리한 화석정을 배상(裊想)에게 물었더니
평천장(平泉莊)을 점쳤고 찬황(贊皇)도 있다 하네
세거가문을 사람마다 부러워하니
4대 기업이 어찌 빛나지 않으리
그 유업 찬란하여 주초돌에 남았으나
침석(疊石)의 참치(參差)하여 단장(短牆)에서 벗어졌네
화석정 운치를 본국에서 들었으나
이제 보니 강은 흐르고 산은 우뚝한지 오래로다
솔피리 해맑아 만장(滿牆)이 시원하다
사람이 돌아간 어두운 밤에 주신 시 벽에 남았는데
꿈을 났을 바다위 하늘을 나른다

王敬民

文星來自自雲鄉 靑瑣多年侍玉皇
 筆落配亭辭最妙 炯如隨壁夜猶光
 山容更媚濃浮檻 松籟增清爽滿牆
 人返紫宵詩在壁 夢魂飛度海天長

『파주군사(坡州郡史)』 왕경민(王敬民) 시문(詩文)

※ 화석정(花石亭)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이야기가 임진강의 여울물 소리로 역사의 한 시대 같은 문화권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반구정기 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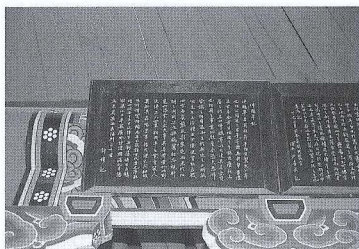
반구정은 전 재상 익성공(翼成公) 황희의 정자이다. 황정승이 죽은지 근 3백년 정자는 허무러지고 쟁기질을 하였고 땅은 황폐하여 또 100년이 지났다. 이제 황정승의 자손이 움막을 강상에 짓고 살면서 반구정이라 이름하였다. 그 이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은 또한 좋은 일이었다. 황정승의 열렬한 공로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남녀간에도 다 찬양하고 있는 터이다. 황정승은 나아가서 조정에 임하면 곧 능히 임금을 보좌하고 정치에 체통이 바르며 못 벼슬아치로 하여금 어질게 직분을 지키게 하고 천하가 태평하고 백성이 자기 직업에 기꺼히 임했다. 관직을 물러나 호수가에서 늪어가며 기꺼히 갈매기와 더불어 모든 것을 잊었다. 헌면(軒冕-고관이 타던 초헌(輶軒)과 머리에 쓰던 면류관)을 보기를 뜬 구름같이 하여 대장부의

하는 일이 특이하기가 이와 같았다. 야사에서 명인(名人)의 고사를 전하기를 “황정승은 평생 말이 적어 사람들이 그 기쁘고 노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무를 당하면 대체를 가지고 세밀한 것을 따지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니 이것이 황정승의 이름이 백대에 이르도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까닭이다. 정자는 파주 서쪽 15리 임진강 아래에 있고 조수 때마다 백구가 강위로 모여들어 넓은 들판 모래 사장에 가득하다. 9월이면 양조(陽鳥-양기(陽氣))를 따르는 새, 즉 기러기가 손으로 온다 서쪽으로 바다는 20리이다.

伴鷗亭記

伴鷗亭者前古昇平相黃翼成公亭也相國沒近三百年亭毀爲耕犁棄壤旦百年今黃生相國之子孫結廬江上居之仍名曰伴鷗亭以不沒其名亦賢也相國之事業功烈至今愚夫婦皆誦之相國進而立於朝廷之上則能佐先王立治體正百僚使賢能在職四方無虞黎民樂業退而老於江湖之間則熙熙與鷗鷺相忘視軒冕如浮雲大丈夫事其卓回當如此野史傳名人古事相國平生寡言笑人莫知其喜怒當事務不問細故此所謂相國而名不沒於百代者也亭在坡州治西十五里臨津下每潮落浦生白鷗翔集江上平蕪廣野沙諸瀾滿九月陽鳥來賓西距海門二十里 〈眉叟許穆記〉

『파주군사(坡州郡史)』 허목(許穆) 기문(記文)



내소정 팔경시 남용익

제1경 화석정의 봄

화석정에 만발한 꽃을
홀로 감상하는 나그네
울곡의 명성을 알지 못했던 그가
애석타 탄식한들 선생이 가신 뒤 봄이라네

제2경 장암(場岩)의 낚시

백척(百尺) 난간에서 봄강에 낚시 느리고
고기를 낚는다면 큰 술 잘 살려 했거늘
지나는 사람 내마음 몰라주고
도(道)를 떠난 동강(桐江)에 물색(物色-경치)만 오네

제3경 송암(松巖)의 맑은 구름

정처 없는 뭉게구름 점점 떠오르 듯
그림 같은 면산이 속이 찬 머리통 같이
비스듬이 바라보니 다정도 한 듯
시객(詩客)이 고수(古愁)를 조문할가 겁내는 듯

제4경 장포(長浦)의 가랑비

장개의 가랑비 맑았다 흐렸다

백로가 가로 날으니 풀 빛이 나는듯
어부는 풍랑을 근심치 않고
배에 기대여 녹쇠의(錄簑衣-도롱이)를 부르네

제5경 동파(東坡)의 달 구경

동파역루(東坡驛樓)에 달이 비쳐
집집마다 발 위에 갈구리로다
규성(奎星-文運을 맡아보는 별이름)은 보기로는 멀지 않거늘
오늘 밤엔 들러 광한유(廣漢遊)하라

제6경 적벽(赤壁) 뱃놀이

적벽 머리에 다시 배 띄웠나니
소선(蘇仙)가신 후 풍류는 남았도다
부서지는 파도, 밝은 달 모두 좋은 밤
황강(黃岡-중국 호북성 황강현, 소식이 호를 동파거사라하
고 이곳에 거실을 마련함)이 필요 없는 임술년 가을일세

제7경 동원(桐園)의 눈

동원의 모설(暮雪)희기가 애애하고
언덕 위 바라보니 날씨 개여가네
밤이 되어도 강가 사릿문 열렸나니
아마도 섬계(剡溪-중국 절강성 조아강의 상류 진(晉)나라 왕

자가 눈오는 밤에 재규(載逵)를 방문한 고사)의 왕자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

제8경 진사(津寺)의 새벽 중

나루 머리에 절이 서니 백운이 층(層)이 되고
 밤중에 종울리매 노승이 있음이야
 내 고소성(姑蘇城-춘추전국시대 오왕(吳王) 부차(夫差)가 월
 나라를 치고 미인 서시(西施)를 얻어 대(臺)를 만들고 살게한
 고사)밖에 머문 것 아닌데
 한천(寒天)에 지는 달과 어등(漁燈)을 보누나

來蘇亭 八景詩 南龍翼

花石亭前花事新 獨來吟賞有閒人
 幽芳舉世無相識 可惜先生去後春

垂釣春灣百尺臺 得魚將欲沽深盃
 傍人不解吾心事 謾道桐江物色來

何處炎雲點點浮 遠山如畫恰盈頭
 橫遮望眼知多意 恐惹騷人弔古愁

長洲細雨晴霏霏 白鷺橫分草色飛
 漁子不愁風浪起 埼船遙喚錄簑衣

東坡古驛月當樓 處處人家簾上鉤
 一點奎星看不遠 今宵應入廣漢遊

赤壁磯頭更泛舟 蘇仙去後尙風流
波殘月白皆良夜 不必黃岡壬戌秋

桐園暮雪白皚皚 望裏平坡霽色開
入夜江扉終不掩 剡溪疑有子猷來

津頭寺隔白雲層 半夜鳴鍾有老僧
不是姑蘇城外泊 寒天落月又漁燈

『파주군사(坡州郡史)』 남용익(南龍翼) 시문(詩文)

몽구정

은종일 낙대 잡고 오르내리다
맑은 물에 발을 잠그고 깜박 졸았네
내 생각 백구따라 헤메이더니
놀란 듯 문득 깨니 해지는구나 (생육신전 한국역대명시전서)

夢鷗亭

把竿終日趁江邊 垂足滄浪因一眠
夢與白鷗飛萬里 覺來身在夕陽天

『파주군사(坡州郡史)』 성담수(成聃壽) 시문(詩文)

여 적

필자는 1991년 10월 26일 경기도문화유산 답사여정중 무진정으로 추정되는 정자 터에 들러 당시의 현황을 기록한 ‘답사기’로 지방도로로 변해버린 오늘의 무진정을 정리해 본다.

무진정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광주 조선백자 도요지(사적314호)가 있고 중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있는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2리 관창수마을이다. 필자의 문화유산 답사의 발길이 이곳을 찾았으나 관리인은 문을 잠그고 출타중이었다. 빈집에 무작정 들어갈수도 없어 주변에서 놀고있는 변천국민학교(당시)5학년 손용수 어린이와 친구들을 불러 협조를 부탁했다. 이들의 안내로 유주공가(有主空家)가 된 별서의 정원을 소요하니 마음먹고 찾아온 여정(旅情)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

이끼낀 축대와 정원수 그리고 고색창연한 느티나무와 잣나무가 울타리를 감싸고 있는 만추(晩秋)의 정경 또한 자연이 펼쳐놓은 한폭의 산수화가 아닐수 없었다. 별서의 건너편은 비록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여 소음이 끊이질 않고 있으나 앞에는 상변천리를 가로 질러 흐르는 이른바 변천(樊川)의 냇물이 맑고 풍부하게 흐르고 울창한 수목을 배경으로 한 절묘한 기슭에 위치한 별서의 경관이였다. 1천여평의 별서지 주위는 괴목(槐木) 해동목(海桐木), 음나무, 전나무등의 고목이 울창하고 두

아름은 될듯한 한그루의 전나무가 곧게 치솟아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선생도 이곳의 번옹별서(樊翁別墅)를 중국의 하남 낙양현(河南 洛陽縣)에 있는 호화롭기 그지없는 이덕유(李德裕)의 별서 평천장(平泉莊)에 비교하여 그것과 못지않다고 하였음은 규모에서 보다는 조원수법이 뛰어난을 가리킨 것이라고 생각해본 시간이었다. 다산(茶山)의 <죽란화목기(竹欄花木記)>에서도 말했듯 대체로 별서나 민간 조원의 식물은 석류, 복숭아, 살구, 매화, 벽오동, 부용, 괴목 반송(盤松)등이니 그 정취의 그윽함을 알수 있겠고 한편 이곳을 여행한 다산의 <유변리기(遊樊里記)>에도 「번옹별서지」로 추정되는 무진정(無盡亭)을 가리켜 <진송울호창창(珍松鬱乎蒼蒼)>이라하여 빼어난 자연경관을 찬탄했다. 권반(權攀)별서지(別墅址)는 세종때의 문신이었던 권반이 경기도 관찰사를 끝으로 관제에서 물러날 때 지은 것으로 추측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권반별서무진정(權攀別墅無盡亭)'이 기록되어있어 정자터의 초석을 찾았으나 5백년 세월속에 흔적은 간곳 없고 당시의 축대만이 정감을 더해주고 있었다. 그후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정조(正祖)때의 10년 재상으로 유명한 번옹(樊翁) 채제공(蔡濟恭)과 그의 아들 홍원(弘遠)에 의해 다시 별서로 꾸며졌음을 추측해 본다. 번옹별서(樊翁別墅)로 명칭되기도 하였던 이곳은 이 마을의 지명이 변천리(樊川里)라는데서도 그 관련성에 천착해 보기도 했다. 번암의 아

들 홍원(弘遠)도 1801년(순조1) 수렴청정을 하던 대왕대비 김씨의 탄압으로 파직되자 바로 이곳에서 은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당시 별서의 모습은 세월의 흐름속에 그 원형이 변하였으나 일부 일지언정 초가집으로 남아있다는데서 짙은 향수를 느껴야했던 소중한 정자터의 현장이었다. 한데 그로부터 12년 후인 2003년9월 그 터전이나마 보존되었을것으로 믿었던 번암별서터의 12년전 모습은 간곳없고 아스팔트도로가 관통하는 삭막한 현실에 망연자실했던 심정을 여적으로 남긴다.

※필자 주 :무진정은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리에 있는 번암별서로 추측되는데, 관련문헌을 상고하여 볼 때 위치 비정에 의문점이 있다. 독자의 질정을 바라며, 필자도 위치 고증을 위한 관련 문헌자료의 섭렵 등 전거를 확인 중에 있음을 밝힌다.

〈사진설명〉

1991년의 무진정(번암별서) 터

2003년의 변화된 무진정(번암별서) 터

사 진 목 록

광 명 (시흥)	觀感亭 - 전경	여 주	九龍樓(신록사) - 전경 현판
강 화 (현)	對潮樓(전등사)	여 주	鳳樓亭 - 전경 현판
광 주	백인대(육각정) -	여 주	迎月樓 - 전경 현판 구조
	전경, 내부, 현판, 암각문	여 주	枕碧樓 - 전경 현판
광 주	迎月亭 - 전경 현판	여 주	枕石亭 - 터 암각문
광 주	地水堂 - 전경 원경	여 주	華陽亭 터
광 주	枕戈亭 - 전경 측면	여 주	清心樓 터
광 주	無盡亭 터	여 주	東臺(신록사前 江上) 터
광 주	石湖亭 터	여 주	遊仙臺 터
김 포	永思亭 터 - 전경 기념비	연 천	南松亭 터
수 원	角巾臺(동북포루) - 전경 원경	연 천	휴암정 터
수 원	耄老閣亭 - 전경 내부	연 천	四美亭(址) 터
수 원	洛南軒 - 전경 현판	연 천	茅亭(佛見山下 鄭來周) 터
수 원	訪花廳柳亭 - 전경 현판 원경	용 인	四隱亭 - 전경 현판 원경
수 원	迎華亭 전경	용 인	鳳瑞亭 - 터 주주
수 원	得中亭 전경	용 인	(新亭) 漾碧亭 - 전경
수 원	신동루 - 전경 천장	용 인	吟古亭 (박물관내) - 전경 현판
수 원	杭眉亭 - 전경 원경	이 천	愛蓮亭 - 전경 현판
수 원	華陽樓 - 전경 원경	이 천	육괴정 - 측면 현판 연못
수 원	山一亭 터	이 천	竹南樓 터
시 흥	恩休亭 - 전경 현판 원경	파 주	伴鶴亭 - 전경 현판
안 산	枯松亭 - 전경 현판	파 주	仰止臺 - 전경 현판 임진강
안 산	망월대 터	파 주	花石亭 - 전경 현판 임진강
안 산	망해정 터	파 주	臨津亭 터
안 산	平近樓 터	파 주	독락정 터
양 주	金華亭 - 전경 현판 암각문	파 주	몽구정 터
양 평	寶山亭 - 전경 현판 원경	파 주	이사정 터
양 평	鳳凰亭 - 전경 현판 원경	포 천	二養亭(址 복원)
양 평	洗心亭 - 전경 현판 원경	포 천	金水亭 樂歸亭
양 평	映湖亭 - 전경 현판	화 성	臥龍樓 - 전경 현판
양 평	濯升亭 - 전경 현판	화 성	龍珠寺 天普樓 - 전경 현판 구조
양 평	봉의정 터	화 성	弘濟樓 - 전경 현판
여 주	江月軒 - 전경 현판	화 성	望海樓 터

누정자료종합

(음) 각종 조선시대 邑誌	(군) 최근 시군지	(신) 《新增東國輿地勝覽》
(비) 《增補文獻備考》	(해) 《海東地圖》	(여) 《輿地圖書》
(지) 1872년도 지방지도	(경) 《高麗圖經》	(기) 기타
(현) 현존 누정		

ㄱ

가평 (신)	無
강화 (교동) (신)	無
강화 (신)	利步亭 : 갑곶나루 언덕에 있다. 燕尾亭 : 갑곶나루 위에 있는데,
강화 (증)	행궁(行宮) : 성 안에 있는데, 척천정(尺天亭)이 있다.
강화 (현)	관창리 龍興宮의 樓(1853년 鄭基世가 붙인 이름)
강화 (현)	晩翠亭
강화 (현)	奉天臺 河岾面 新鳳里
강화 (현)	燕尾亭 강화읍 월곶리 1744년 중건 지유27
강화 : (읍)	利步亭 燕尾亭 息波亭(통진) 海山亭 南將臺 西將臺
강화 : (지)	伏波樓 朝海樓
강화 : (해)	연미정 이섭정
강화 ; (추)	전등사 對潮樓 保晩亭(址, 강화읍 금화리 282 주초석 15基)
강화 교동 : (읍)	晏海樓 三門樓 秋梧軒 八角亭 海山亭 息波亭 庚亮樓 統三樓 拱北樓
강화 교동 : (지)	槩邊亭
강화부(증 宮)	燕尾亭
개성 (현 유)	觀德亭 개성시 자남산 未詳
개성 ; (경)	淸風閣 香林亭 西郊亭 碧瀾亭 (예성강 강언덕 왕성에서 30리)
개성 송도 :	(읍) 南門樓 逝斯亭 泛槎亭
개성 송도 : (해)	觀德亭 서사정 범사정
개성부(증 宮)	逝斯亭 泛槎亭
개풍군 (풍덕) (신)	觀湖亭 :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 長源亭 : 군의 서쪽 25리에 있다.
개풍군 (현 유)	步仙亭
개풍군 (현 유)	扈輩臺
개풍군 풍덕 : (여)	梅花亭 退憂亭 詠飯亭 梨湖亭
개풍군 풍덕 : (해)	古長源亭
개풍군 풍덕 : (해)	梅花亭

고양 (신)	無
고양 (현)	덕양정(덕양구 행주동 행주산성 내)
과천 : (읍)	(遺址포함, 郡北 동작 흑석 등) 望辰樓 望北樓 望遠亭 退老亭(址) 蒼檜亭 明月亭 月波亭 (址)
과천(중·宮) ;	龍驤鳳翥亭
광주 (현)	迎月亭 중부면 산성리 산29 1957년 건립 사모지붕
광주 (현)	迎春亭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156 1957년 창건 팔모지붕
광주 (현)	枕戈亭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산591~1 1751년 건립 무기제작소 자유5
광주 : (읍)	狎鷗亭 無忘樓 枕戈亭 地水堂 九松亭 石湖亭
광주 : (신)	無盡亭 : 주 서쪽 15리, 화산군(花山君) 권반(權攀)의 별장에 있다.
광주 남한 : (해)	무진정 압구정 한명회정
광주 남한지 : (읍)	有此山樓 緩帶亭 又喜亭 以威亭 以明亭 玉泉亭 觀魚亭 枕戈亭 無忘樓 唾(睡?)雲樓 九松亭 駐蹕臺 狎鷗亭 夙夢亭 淸風樓 無盡亭 石湖亭
광주부(중·宮) ;	無忘樓 枕戈亭
김포 (址)	湧金樓 望華亭 龜伏亭 疎涯樓 天繪亭 雙清樓 陵波亭 順流亭
김포 (통진) (신)	無
김포 : (여)	湧金樓(東閣西 小樓)
김포 : (읍)	無
김포 : (지)	詠詞亭
김포 : (해)	龜伏亭 五官亭 연미정 영사정
김포 통진 : (읍)	控海樓 喜雨樓(문수산성)
김포 통진 : + (여)	舞(撫)劍亭
김포(중·宮) 통진 ;	控海樓

L

남양 : (읍)	臥龍樓 (府南門上)
남양 : (해)	望海樓

人

서울 (금천) (신)	孝思亭 : 노랑 나무터 남쪽 언덕에 있는데,
서울 과천 (중)	龍驤鳳翥亭 ; 행궁(行宮)/노량도(露梁渡) 남쪽
서울 양천 (신)	望湖亭 : 객관 동편에 있다.
서울 양천 : (읍)	望湖亭 岳陽樓(址) 相聞亭(址) 小岳樓(익양루舊址) 映碧亭 二水亭(址) 逍遙亭(今無) 莫如亭(今廢)
수원 (신)	雲錦樓
수원 (읍 화성이전)	(+ 得中亭(壯南軒 북 1790년 新建) 山亭(壯南軒 후원 1칸 6면)

수원 (읍 화성이전)	拱極樓 鎮南樓
수원 (증)	迎華亭 杭眉亭
수원 (현)	訪花隨柳亭
수원 (현)	山一亭 1925년 창건 팔작지붕
수원 (현)	龍珠寺 天保樓(뒷면 弘濟樓)
수원 (현)	杭眉亭
수원 : (읍)	訪花隨柳亭 角巾臺 華陽樓 末老閑亭 迎華亭 杭眉亭
수원부(증 宮) :	鎮南樓 雲錦樓 訪花隨柳亭 角巾臺 華陽樓 末老閑亭 迎華亭 杭眉亭
시흥 : (읍)	觀感亭
시흥 금천 : (여)	影湖亭 (시흥)관감정 醉巖亭

안산 : (읍)	平近樓(읍 외삼문루) 鳳凰臺(址)
안성 (신)	克敵樓 :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안성 (양성) (신)	無
안성 (죽산) (신)	봉서루(鳳棲樓) : 각사 동쪽에 있다.
안성 (증) 鏡雪亭 :	읍내에 있다.
안성 : (읍)	克敵樓 鏡雲亭 詠歸亭
안성 양성 : (읍)	諫議臺(今無)
양주 (신)	회암사 南樓
양주 (증)	講武亭 - 備國勝錄有廢城
양주 : (해)	架亭子 華陽亭
양평 (양근) (증)	태허루(太虛樓) : 읍내에 있다. 감호정(鑑湖亭) : 서쪽 8리에 있다.
양평 (지평) (신)	해서정(解暑亭) : 객사 남쪽에 있다.
양평 (현)	鳳凰亭 정조 15년(1790) 중건
양평 (현)	洗心亭
양평 (현)	澤升亭 세조6년 1460 창건
양평 양근 : (읍)	太虛樓 鑑湖亭 映湖臺
양평 양근 : (해)	江漢亭 觀水亭 洋洋亭
양평 지평 : (읍)	解暑亭(今廢) (增)鳳凰臺(광탄)
양평 지평 : (지)	寶山亭 鍊武亭
양평 지평 : (해)	보산정
양평(증 宮) 양근 :	鑑湖亭
여주 : (현)	江漢樓(신록사) 九龍樓(신록사) 遊仙臺 東臺(신록사前 江上) 枕石亭(丹江上 丹巖 閔相公古宅
여주 : (읍)	淸心樓(객사) 鳳棲亭(전녕현강변 類攷) 泛槎亭(금사 梨湖, 김안국 退住 類攷)

여주 : (지)	華陽亭
여주 : (해)	청심루
여주 : (신)	沈流亭 : 천녕(川寧) 금사리(金沙里)에 있다.
여주 : (증)	청심정
여주 : (현)	신루사 九龍樓
여주(증 宮) :	淸心樓
연천 (마전) (신)	無
연천 (신)	無
연천 : (읍)	半輪亭 (唐浦津上)
연천 : (읍)	銀杏亭(墟) 柑松亭(址) 四美亭(址) 茅亭(佛見山下 鄭來周)
연천 : (지)	南松亭
연천 삭녕 : (여)	羽化亭
연천 삭녕 : (해)	우화정
연천 삭령(증 宮) :	羽化亭
용인 (신)	新亭, 漾碧亭 : 객관 동쪽에 있다.
용인 (현)	鳳瑞亭
용인 : (읍)	四隱亭
이천 (음죽) (신)	죽남루(竹南樓) : 객사 동쪽에 있다.
이천 (현)	애련정
이천 : (읍)	愛蓮亭
이천 : (증)	愛蓮亭 : 객관(客館) 동쪽에 있다.
이천(증 宮) :	愛蓮亭
인천 (신)	예전에 객관(客館)이 있었는데 경원정(慶源亭)이라 한다.
인천 : (지)	凌虛臺
인천 영종 : (해)	太平樓

ㄸ

장단 (신)	靈通寺 西樓 : 오관산 부근
장단 : (해)	退北亭

ㄷ

파주 (교하) (신)	無
파주 (신)	臨津亭 : 임진도 남쪽 언덕에 있다. 花石亭 : 주 북쪽 15리 지점
파주 (적성) (신)	無
파주 (증)	豐樂亭 : 읍내에 있다.
파주 (址)	豐樂亭 松亭? 泗亭 七松亭 來蘇亭 銀杏亭 遠思亭 降仙亭

파주 (현)	伴鷗亭
파주 (현)	臨津亭
파주 (현)	花石亭
파주 : (읍)	臨津亭 花石亭 七松亭(址) 來蘇亭(임진하류남안) 伴鷗亭(址) 銀杏亭(址)
파주 : (해)	내소정 수월정 칠송정
파주 : (해)	반구정 화석정
파주 : (여)	水月亭
파주 적성 : (지)	古懸鐘臺
평택 (진위) (신)	釜山亭 : 객관 북편에 있다.
평택 진위 : (읍)	釜山亭(無徵)
포천 (신)	無
포천 (영평) (신)	無
포천 (址 복원)	二養亭 박순 별서
포천 (현)	君子亭 창수원 주원리
포천 (현)	影光亭 군내면, 六松亭 화현면 명덕리, 眞木亭 내촌면 진목리
포천 영평 : (읍)	二養亭(군45리朴思菴) 金水亭(군서7리) 樂歸亭(군남5리黃廷彥)
포천 영평 : (해)	金水亭 낙귀정

ㅎ

화성 (남양) (신)	尙明亭 : 객관(客館) 북쪽에 있다.
-------------	----------------------



경기누정문화

■ 발 행 인 : 김 중 기

■ 편 집 인 : 김 현 덕

■ 집 필 : 지역문화연구소
정승모 · 강대욱 · 엄상균
한동민 · 조형기(사진)

■ 발 행 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Tel : 031·239·1020 Fax : 239·3785

■ 발행일자 : 2003년 12월

■ 기획·인쇄 : C&N 디자인
Tel : 031·252·1175